

고준환 (본각선교원 원장)
"불교중흥, 불교 인재 양성은 내 인생의 마지막 발원"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3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89호 2014년 4월 23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다

진도 실종자 '무사생환 기원' 부처님오신날 행사 축소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승객 47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한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가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배는 1시간여 만에 완전 침몰했고, 179명만이 구조됐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사망자 28명, 실종자는 2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불교계 무사귀환 기도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에 전국은 애도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분위기다. 불교계 역시 전국 주요 사찰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생환을 바라는 기도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7일부터 전국 사찰에서 긴박한 구조활동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진도 여객선 실종자 무사 생환' 기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봉축 장엄등 점등식에서 "오늘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의의 여객선 사고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원한다"고 무사 생환을 발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총무원장 도산),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여객선 침몰 생존자 긴급 구조와 실종자 무사 생환 기원을 위한 기도와 법회 각 종단 소속 사찰과 심인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불교계 각 단체들도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기도를 정성을 다해 올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잇달아 발표했다.

실종자 가족 지원에 총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 산하 긴급재난구호 봉사대는 4월 17일 소속 활동가들을 진도 팽목항으로 급파했다.

긴급 구호단은 4월 16일 사고 당일 진도 향적사(주지 법일)와 현지상황을 공유한 다음 저녁 8시 선발대 파견을 결정했으며, 17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옆에 부스를 설치하고 식품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출된 생존자들이 긴급구호단 부스를 방문해 사건 이야기를 나누며 스님들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해남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도 합류해 상황 수습에 일조하고 있으며, 인근 사찰에서도 지원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백양사, 대흥사 등 호남 지역 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도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해남 미황사는 떡을 지어 실종자 가족들에게 제공했다.

현지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진도사암연합회 회장 진현 스님(진도 쌍계사 주지)은 "현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교신자들이 많다"면서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대흥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의 불자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무사귀환을 바라는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배 안에 있을 아이들이 부모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걸린 실종자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플랜카드. 전국 사찰들은 사고 직후부터 무사생환과 희생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와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등 주요종단 사찰들 '무사귀환' 기도 시작

자승 스님 "불의의 사고 안타까워… 무사히 구조되길"

조계종 진도에 17일 긴급 구호단 급파해 지원 활동

사고 관련 지역 사암연합회 현지서 희생자 위로 계획

스님들 'SNS 희망 나르기'

현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힐링멘토 스님들은 SNS를 통해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는 등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국민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은 4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 및 선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실종자들은 무사하기를, 고인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를 거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우리 다함께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애절한 심정을 17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금강 스님은 "미황사에서 매일 바라다보이는 곳이 진도바다, 꽃 같은 아이들이 꽃피는 봄에 차가운 바다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이제는 노을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저 바다를 보며 49일 기도를 올려야겠다. 이대로는 잘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 심정을 전했다.

봉축 행사, 축소 · 연기 전망

부처님오신날과 각종 봉축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대형 인재에 불교계는 계획했던 행사들과 축제들을 축소, 연기하고 있다.

당장 4월 19~20일까지 양일간 개최하려했던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행사가 무기한 연기됐으며, 함께 진행 예정이었던 화쟁위원회의 대한민국 야단법석도 취소됐다.

조계종은 지역별 봉축 행사에 화려한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했다. 중앙에서 진행되는 ㄴ연등회 연등축제도 프로그램을 조정 중에 있다.

조계종은 "실종자 생환과 희생자 추모의 분위기로 연등회 전체 행사를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연등회 진행 시 화려한 음악, 율동, 장엄등을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18일 용두산공원에서 봉행한 연등축제 점등식 행사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최대한 경건하게 진행했으며, 19일 예정된 비보이 대회와 문화공연도 취소했다.

울산, 대구, 안산 지역 불교계 역시 계획됐던 문화공연을 취소하고 법요식과 점등식 등 최소한의 의식만 봉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의 템플스테이 사찰과 시설들이 청소년 수련회와 문화체험 장소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을 대상으로 4,5월 2차례 진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교육은 고무적이다.

문화사업단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교육 지원을 통해 운영사찰의 청소년 대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수련활동을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1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침몰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온 국민들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미륵 부처님을 기다리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봉축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점등식 이후 탑돌이 모습.

'나눔과 행복의 燈' 불 밝히다

봉축위, 16일 점등식… 미륵사지석탑 형상화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고 축하하는 연등회 연등축제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는 4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주요종단 지도자를 비롯해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김상범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광화문 광장을 밝히는 장엄등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 한 것으로 전통등 명인 전영일 씨가 제작했다. '미륵사지 탑등'은 좌대를 포함해 20m에 이르며 40호 크기의 한지 500여장이 사용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010년까지 해체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13년 11월부터 현재 복원공사 중에 있다. 복원은 2016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점등식에서 자승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우리가 등을 밝히는 것은 지혜로써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천해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간절한 서원"이라며 "희망과 행복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진을 거듭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통사찰 '개발제한 부담금' 완화 나선다

조계종 전통사찰 주지, 17일 대책위 구성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불사를 하기 힘든 요인 중 하나가 보전 부담금이다. 과도한 보전 부담금으로 인해 불사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이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계종은 4월 17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사찰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지 스님들은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주지회의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공동대책위원장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 간사에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경우 특례조항을 신설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100%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89호 INDEX

시방세계 5
화쟁 100일 순례 전북 현장

종합 2
총무원장 선거제 개선 공청회

강의실 중계 8
'불성과 양지' 정인재 교수



제990호 부처님오신날 특집호(4월 30일자)는 연등회 취재 관계로 평소보다 지연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불교교류 위해 노력”

장원삼 스리랑카 대사 17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예방

장원삼 신임 스리랑카 한국대사가 4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활발한 불교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 자승 스님은 “종단은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과 조계종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양국 불교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원삼 대사는 “부임을 하면 꼭 조계종 복지시설을 찾아가 보겠다”며 “스리랑카는 국민의 70%가 불자이고 현 대통령 역시 독실한 불자로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장원삼 신임 스리랑카 한국대사가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양국의 활발한 불교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대 붓다상은 어떻게 정립되나

조계종 24일 교육아사리 포럼

이 시대 붓다상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4월 2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붓다관’을 주제로 제6차 교육아사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결사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붓다로 살자’라는 의미를 고찰하고,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참여불교의 시각에서 붓다를 어떻게 바라보며, 현대 사회에서 붓다는 어떤 모습으로 정립돼야 하는 지 살펴본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중도론을 통해 본 본래붓다와 동체대비행’으로 기조 발제를 하며, 교육아사리 각묵스님이 ‘초기불교의 붓다관’에 대해, 현석스님이 ‘대승불교의 붓다관’에 대해 발표한다. 또 영석스님이 ‘선불교의 붓다관’에 대해, 금강스님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붓다상’을 주제로 발제한다.

한편 교육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격월로 사회 현안 및 불교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선거제도 변화 ‘공감’… 변화 방안은 ‘제각각’

조계종, 16일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매번 거듭되는 선거에서 금권과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종도들의 대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선거제 변화를 요구하는 종도들의 공의를 모으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 종도 의견 반영 못해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대중들은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해 공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출가 수행자로서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종도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스님은 “종도들은 행정 수장인 총무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본 권리 제약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참종권이 제한된 수행자들의 경우에는 종단 운영에 대한 무관심 확산, 애종심이 저하되며 종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제출할 통로와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 구성원이 직접 종단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종단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며 “종단의 시스템과 제도 개선은 종단 개혁의 연장선상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정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제기된 선거 방안은 △집행부가 제시한 준직선제 △완전 직선제 △원로회의가 제안한 선거인단 축소 △완전 추대제 △결사추진본부의 제안인 선추천, 후선출 등 5가지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5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준 · 완전 직선제 · 선거인단 축소
추대 · 先추천 後선출안 등 제안

본사 주지, 現 간선제 유지 주장
종책 모임들 ‘법계 제한’ 직선제
비구니 스님 “완전 직선제 시행”
“선거제도 폐해 많아 추대 필요”
30여명 참여, 관심 부족 아쉬움

법계 제한 직선제냐 추대제냐

특히 토론에서는 법계 제한 직선제와 추대제도에 대한 주장과 제안들이 오갔다.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종책위원장 만당 스님은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3천여 말사”라면서 “말사 주지는 10년차 중덕 · 정덕 법계부터 가능하다. 완전 직선제보다는 법계를 제한해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구니 스님들에게 동일 선거권을 주는 부분에서는 모임 내 이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6일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진행한 종합 토론 모습.

이어 만당 스님은 개인적인 주장임을 전제하며 “추대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은 선거가 망치고 있다. 원로, 중진 스님으로 구성된 종단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총무원장부터 교구 본사 주지들을 선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도량 삼화연구소장 법인 스님은 “선거의 5대 원칙인 보통, 자유, 평등, 비밀, 직접 선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다만 종단의 상황을 감안해 법계 제한은 있어야 하되 일정 법계 이상의 스님들은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선추천 후선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스님은 “추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증 시스템이 확실해야 한다”면서 “소위 법석을 만들어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사고와 사상, 가치관 등을 대중들에게 검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한 암도 스님은 추대제를 제시했다. 암도 스님은 “가톨릭이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은 것은 수장을 추대하기 때문”이라며 “선거제도가 종단에 끼치는 폐해가 어마어마하다. 종교집단이 시대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해도 선거제도는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구니 선거인단 확대 문제인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직선제 논란 중 하나는 ‘비구니 선거인단 확대’였다. 준직선제안을 제시한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현실적 부분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 직선제는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종단 참여 비율이 20% 수준인데 25%로 늘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니 대표로 참여한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완전 직선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준직선제부터 추대제, 선추천 후선출 방안 모두 비구니 참종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운 스님은 “2013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75%가 일정 승납 이상의 구족계를 수지한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직선제를 찬성했다”면서 “준직선제는 비구니 차별이며, 선거인단 축소는 평등권 위배이며, 선추천 방안은 비구니 참여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종단의 역량으로 구족계를 받은 모든 승려들이 참여하는 직선제의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투표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절차가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은 비구니를 차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사 주지 대표로 참석한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기존 간선제 유지를 의견으로 내놨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공청회 이후 각계 의견들을 더 수렴해 5월 경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에 열릴 중앙종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재가불자 위한 수행 입문 길라잡이

조계종 불교사회硏, ‘수행체계 연구서’ 발간

불교의 수행은 참선과 명상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다보니 초심자는 어떤 수행을 어떻게 시작할지 망설이고 고민하기 마련이다. 수행을 처음 접하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가 나왔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최근 수행 초발심자를 위한 안내서인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체계 연구〉(사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행에 입문하는 재가불자들의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초심자의 관점에서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체계적으로 불교 수행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1년 수불스님이 후원한 수행연구기금을 바탕으로 수행체계 연구를 실시해왔으며, 연구소가 실시한 2013년 한국의 사회 · 경제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번 보고서 발간을 추진해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계종 수행 근간인 간화선의 수행의 목적과 간화선이 등장하게 된 배경, 간화선 수행 구조를 상세히 기술했다. 또 화두의 정의, 화두를 살피는 방법, 의심을 일으키는 방법, 의심이 익어가는 과정, 화두의 타파, 인가의 획득, 점검 및 지도 등 7단계로 간화선 수행의 구조를 분석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서도 위빠사나 수행의 목적과 수행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다양한 수행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화선과 대승불교 수행, 위빠사나에 대한 논쟁과 수행 흐름, 궁금점 등을 별도로 ‘Q&A’ 코너에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로 불릴 만큼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많은 불자들이 불교 수행체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수행에 입문하는 재가불자들의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초심자의 관점에 주안점을 뒀다”며 “보고서 발간이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간화선을 대중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출가 스님들을 위한 수행체계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가난 없는 곳에서 행복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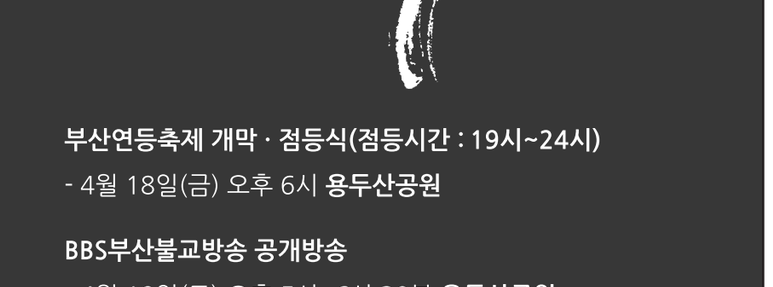
조계종 노동위, 15일 송파 세모녀 49재 열어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을 스스로 포기한 송파 세 모녀의 49재를 맞아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자는 작은 행사가 마련됐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4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장애인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 세 모녀 49재를 봉행했다.

종호 스님은 49재에 앞서 “지난 2월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49일을 맞아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송파 모녀처럼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4월 15일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 송파 세 모녀 49재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이제 영어로 배우고 익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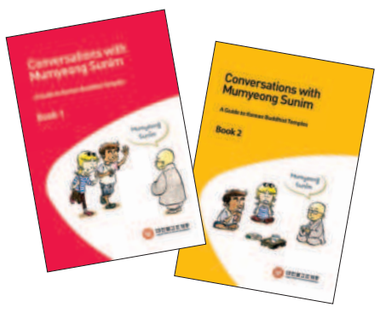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 한국불교 영어 가이드북 발간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영어 안내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무명스님과의 대화(Conversation with Mumyeong Sunim)〉- ‘한국불교 가이드북(Guide Book for Korean Buddhism)’을 발간했다. 이 책은 무명 스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한국불교를 쉽게 설명한 안내서로 템플스테이 현장을 비롯한 영어포교 현장 곳곳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무진 스님(스위스 법계사 주지)과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이 공동집필한 이 안내서는 순수 영어로만 구성된 국내 최초의 불교영어회화 책이다. 〈무명스님과의 대화〉는 △사찰예절과 불교문화 그리고 사찰구조물의 이해 돕기 △영어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을 위한 교재 △각 승가대학 영어 교재 △청소년 포교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무진 · 자우 스님 공동집필
외국인들에게는 영어 안내서
불자들에게는 불교영어교재로
템플스테이 등에서 활용 가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외국인들에게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참여를 제고시키고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영어를 통해 한국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해 발간된 책이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안내서는 한국사찰을 찾아 나선 외국인들이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불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공산 무착사 무명 스님과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사라와 루카의 질문과 답문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총 51개의 챕터를 두 개의 포켓북에 나누었다. 절하는 방법, 합장의 의미 등 사찰문화는 물론 왜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지, 왜 채식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동저자인 자우 스님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영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지루함을 주지 않기 위해 25챕터로 나누어 두 권으로 얇게 구성해 언제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들에게는 궁금해하는 점을 설명해줌으로써 한국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현재 동학사승가대, 외국인서포터즈 등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책은 앞으로 각 대학과 사찰, 청소년 포교 현장 등의 교재로 쓰일 예정이다.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불교영어회화 책 ‘필수’

인터뷰 – 저자 자우 스님

“한국불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만 실전에서 쉽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또 불자들이 불교 용어를 영어로 배우고 싶어도 적당한 교재가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어 해석을 빼고 순수 영어회화로만 구성된 〈무명 스님과의 대화〉의 발간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스님과의 대화〉를 기획하고 무명스님과 함께 공동 집필한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은 이번 교재 발간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 한다. 스님이 이 책을 기획한 것은 2007년도 부터다. 〈금강신문〉에 기고했던 내용들을 수정보완해 책을 내고 싶었지만 그동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출간이 보류되었다고. “사실 예전에도 불교 영어 회화책이 나온 적이 있지만 옆에 한글 해석을 달았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에게는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읽기에 불편한 책이 되어버려요. 좀 더 보완해 순수 회화 영어 책을 만들고 싶었지만 종단 차원에서도 이런 일에 무심했던 게 사실이었죠.”



총제작비가 3천만원이었지만 종단의 지원금은 1천만원이었다. 스님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공동 저자인 무진 스님과 원고료는 받지 않기로 했고 기획 제작 단계에서도 스님이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제작 단가를 낮추는 등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여 3분의 1 가격으로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회화책 한 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에 책을 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무명스님과 대화〉 발간을 계기로 불교계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기초작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외국인 스님 “의료비·학비 지원 절실”

조계종 교육원 연수서 한목소리… 11~12일 경주서 개최

조계종 외국인 스님들이 의료보험비와 학비의 부담으로 수행과 학업 정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장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진행한 ‘2014 조계종 외국인 스님 연수’에서 제기됐다.

연수 프로그램 중 ‘대화의 시간’에서 외국인 스님들은 한국에서의 어려움과 수행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했다. 특히 스님들은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으로 의료보험 문제와 학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스님들은 “외국인의 경우 일부 사중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월 5~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으며 “외국인 스님이 동국대 등 종립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미·사미니의 경우 어학원에 무료로 학습할 수 있으나, 구족계 수계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면 한다”면서 “영어 등 각종 언어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중의 요청으로 통역을 맡아 보면 한국어 전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생활 언어로서는 문제가 없으나 통역이나 번역 등 고급 언어를 구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한국어 능력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올해 외국인 연수에는 국내 거주 62명 외국인 스님 중 54명이 참여해 87%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한국불교 및 한국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외국인 스님 연수를 진행했다. 사진은 선배 스님들과의 대화의 시간 모습.

“몸과 마음 모두 치유하는 동국대 병원 되길”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9일 증축기념 삼존불 점안 불사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이 증축불사를 통해 3배 이상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기념하는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4월 9일 조계종 저장 동주 스님의 집전 하에 증축불사 기념 삼존불 점안법회를 열었다. 이날 의식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동국대 이사 일면 , 명신, 미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종민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원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이진호 동국대 의무부총장(동국대 의료원장)을 비롯해 병원 직원과 환자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설정 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동국대 병원이 육체의 치료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될 것”이라고 축원하며 “의료진과 직원들이 기도하는 정진의 힘으로 환자를 치료해 더욱 완벽한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일산병원은 4월 9일 법당 증축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진흥원 군법당 등에 불서 전달

22종 1천8백여 권 자비나눔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4월 16일 불서 1천8백여 권을 전국 군법당과 교도소 등에 전달했다.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서 불교진흥원은 전국 교도소 60여 곳과 군법당 130여 곳에 불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불서는 22종 1,800여 권으로 도서출판 솔바람과 도서출판 민족사, 불광출판사,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발행한 〈부처님생애〉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붓다 수업〉 〈스무 살의 명상책〉 등이다.

정혜숙 기자

“지속가능 남북교류모델 창출할 것”

민추본 14일 대북 로드맵 발표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가 북한 주요지역 교류거점을 마련하고 성지순례 연계 관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추본은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민추본 2.0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민추본 2.0’은 지난 2월 민추본이 발표한 중장기 대북사업 로드맵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민추본 2.0에 대한 세부사업도 공개됐다.

이미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추본은 민추본 2.0의 주요사업으로 △북한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 △통일의식 확산 △남북불교 경협사업 △불교교류컨설팅 북한불교문화재 공동보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강산 지역으로 국한됐던 남북교류를 평양, 개성 등으로 확대해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과 개성지역 사찰 불사를 추진하고(북한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 지역, 역사적 연계성을발굴해 남북 사찰간 교류를 활성화하며(남북불교 컨설팅), 북한사찰 성지순례 관광사업(불교경협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평양불교회관 · 교류 거점 마련
성지순례 등 불교 경협도 구상

이같은 민추본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의문이 제기됐다. 민추본의 현재 조직구성과 재무구조로는 이러한 사업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부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계 내부에서 대북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종도들을 설득해 민추본 사업의 동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구 조계종 총무원 기획팀장은 “민추본이 통일과 불교 등 비전을 확실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종단의 통일사업이 종도들에게 당위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찰 순회교육 등을 통해 눈높이를 맞춰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기자**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敎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종조사의 대각사상·
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추서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불기 2558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등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올리며 **“용성큰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헌 윤봉길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산도업

일 주 문



국제선센터 불교영어강좌

동국대 국제선센터 센터장 수불 스님은 5월 1일과 7일부터 매주 수 · 목, 외국인 스님 초청 '왕초보 불교영어 · 중급 불교영어' 강좌를 연다.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수여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운 스님은 4월 18일 '길상화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20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불련 통합동문회장 취임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은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中 국가인쇄박물관과 협약

한선학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은 4월 4일 중국 양주에 위치한 중국조판인쇄박물관(관장 서충문)과 고판화학술연구 협약을 맺었다.



박익후 씨, 중국정부 장학생 선발

금강대 박익후(통상통역중어학과) 씨는 한국국립국제교육원과 중국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에서 선발하는 중국정부초청장학금 장학생에 선발됐다.



산악개발박람회 대표작가 전시

불자화가 임무상 화백은 4월 23~25일 프랑스 그로노블에서 열리는 산악개발박람회에서 평창올림픽 대표작가로 작품을 전시한다.

"생활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유필화 우리는선우 신임 이사장



23년전 순수재가단체로 출범
내홍 겪으며 한때 위기도 겪어
젊은세대 영입해 활력불어 넣을 것

"불교에는 결사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선우 역시 23년 전 순수 재가단체로 시작했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결사처럼 어렵고 혼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선우를 다시 일으키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가수행 공동체로 키우겠습니다."

유필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학장이 내홍을 앓던 우리는선우 결사 선봉장으로 나섰다. 상조기금 6000만 원 실종, 회원 개인정보 유출, 수익사업체보증금임의 결손처리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우리는선우에 지난 4월 12일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전임 이사장의 돌연 사퇴로 지도부에 공석이 생긴 상황이었다.

유 이사장은 단체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을 의식한 듯 평등 · 화합, 중생을 위한 간절한 원과 행, 자등명 · 법등명의 가르침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우리는선우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모든 의사 결정을 정법에 의거해서 하겠다"며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뉴스레터, 문자 등의 지속적 소통과 함께 재무 관련 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우리는선우 발족 당시 창립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유 이사장은 그간 선우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선우는 창립 이래 독립성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체 법당을 마련하고 군 포교, 청년포교, 해외포교, 상조회 활동 등 숱한 신행활동을 해오기도 했죠. 지난 2~3년 동안 선우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동안 선우가 이룬 업적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는 우리는선우를 세계적 재가단체로 키워내기 위해 한국불교의 중흥과 세계의 불국토화라는 원을 세웠다. 앞으로 재가불자활동을 활성화할 생각으로 이를 위해 젊은 불자 영입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민 많은 이들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현실적 답을 같이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불자들을 끌어들일 생각이다.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어 경전 모임도 구상중이다. 젊은세대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신심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이뤄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만간 있을 회의에서는 우리는선우가 주력할 사업을 정할 예정이다. 우선 활성화할 사업은 정기법회, 군 포교, 상조회, 청년회, 영어경전공부,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등이 될 전망이다.

유 이사장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불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선우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범적인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경영학 저서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와 불교와 삶에 대한 시집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를 내는 등 신심깊은 불자로 알려져있다. 그가 학장으로 재직하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은 올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MBA 순위에서 45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유 이사장의 리더십은 검증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원효학술상에 박찬국 · 서광 스님



박찬국 교수



서광 스님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학 발전을 위해 수상하는 제5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로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서광 스님이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4월18일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수부문 우수상에 박찬국 교수, 박사과정 후 비전임교수 부문 우수상에 서광 스님을 선정한 데 이어, 석 · 박사과정 학생 부문에서는 강미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에게 은상을, 우동필 전남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에게 동상을 각각 수여하기로 했다.

제5회 원효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다. 교수부문 우수상 수상자에게 상금 700만원, 비전임교수 부문 수상자에게 상금 400만원을, 학생부문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2회 사찰 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4월 16일 보우당 향적원에서 '햇살 가득한 봄, 사찰의 맛' 이라는 주제로 '2014 사찰 건강도시락 경연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봄나들이용 도시락이나 직장인 간편 도시락, 아이들을 위한 건강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이 선보였다. **노덕현 기자**

제45회 4 · 19 동국인 등산대회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교수 · 직원 · 학생 3,500여 명이 참가하는 동국대 4 · 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4월 11일 북한산에서 개최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수유동 4 · 19혁명 기념탑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가해 동국대 희생자 12명에게 헌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뜻을 기리며 그 뜻을 계승하고 단결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민추본 4월 15일 재능기부회원 위촉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능기부회원 위촉식' 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5명의 재능기부회원은 모금 및 후원관리 분야의 한문호 씨, 촬영의 이경민 씨,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신욱기 씨, 뉴스레터 제작 및 디자인의 박정혜 씨, 뉴스레터 필진의 김양희 씨다.

민추본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통일정토 구현을 함께 할 전문가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인사〉 금강대 교직원 발령

△장민호 교학지원처장 △정이용 교무지원팀장 △박연석 학생복지팀장 △가인숙 경영지원팀장 △박혁하 시설관리팀장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과 우리문화 알릴 것"

사단법인 '문화나눔' 개원한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



4월 12일 문화나눔 개원식 가져
국제포교사 활동의 장 넓힐 것

"우리나라 대표 문화사업 법인이 되어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하게 홍포하겠습니다."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4월 1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문화나눔 개원식' 을 갖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문화나눔' 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의 부설법인으로 국제포교사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비영리 문화법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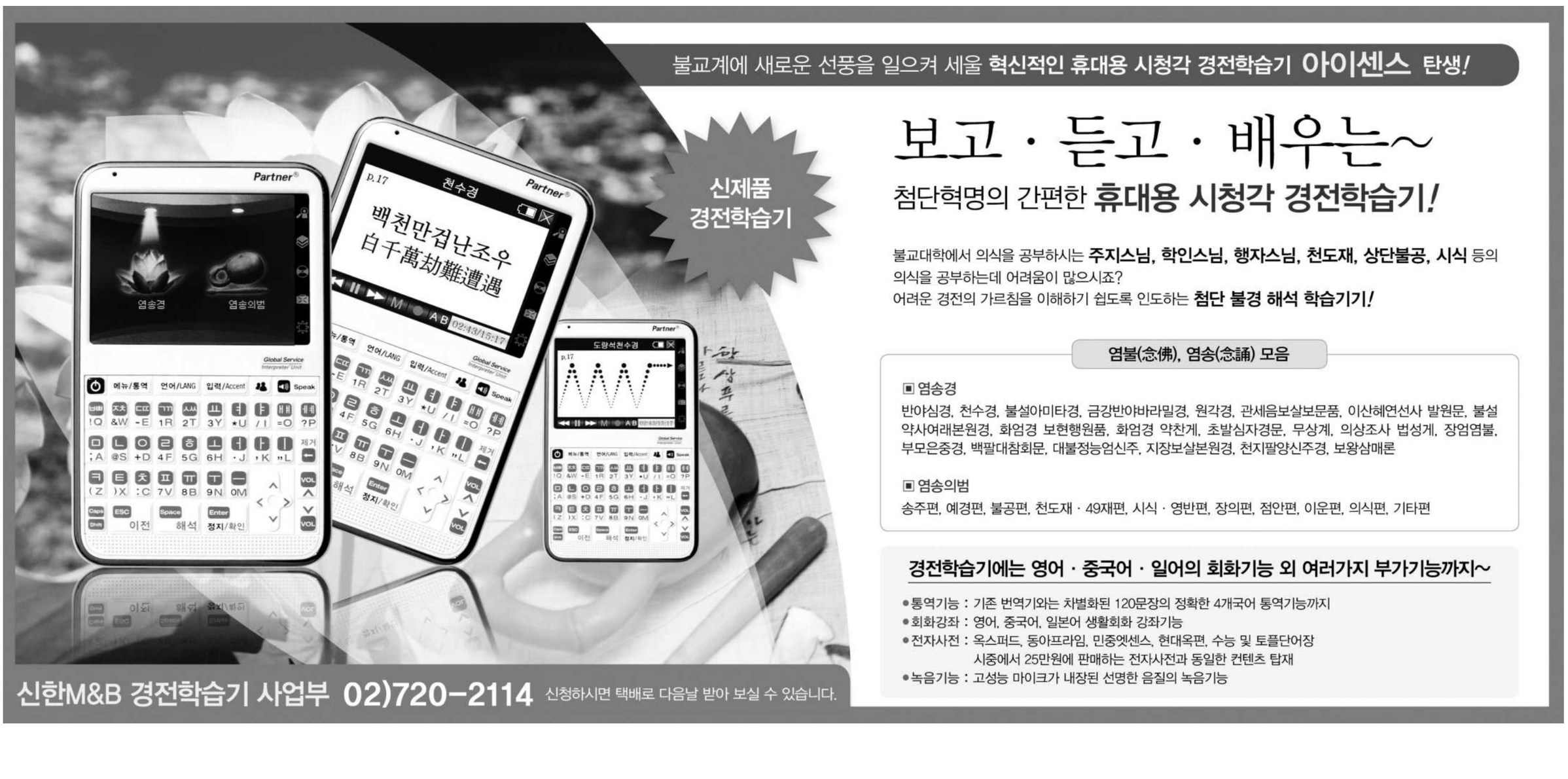
문화나눔은 2인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해 10명의 이사회로 구성됐으며, 회계와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 2명,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마련했다. 이 밖에 업무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 사업을 전개한다.

권영구 회장은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국제포교사회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주류를 이루는 불교문화유산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문화나눔' 을 설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화나눔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찰 및 불교문화재 영문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인터넷 및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문화 세계화 사업 △국제문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권영구 회장은 "국제포교사회의 사단법인 설립은 국제포교사 개개인의 역량과 경륜은 뛰어나지만 이를 조직화해 사회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2011년부터 추진돼 왔다"며 "문화나눔의 출발은 국제포교사들에게 활동의 장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세계화' 라는 종단의 종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가 첫 해인 만큼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잘 하면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첫 번째)과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사진 두 번째)을 비롯한 화쟁순례단이 만경강 길을 걸으며 화합과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을 기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송광정심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세월호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렸다.

“이땅의 아픔과 갈등 치유를 기원합니다”

자승 스님, 화쟁순례단과 전북순례길 함께 걸어

48일차 화쟁코리아 순례행진 격려

세월호 실종자 왕생기원으로 순례시작

18일 송광정심원에 자비나눔기금 전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땅에 아픔과 갈등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제주를 시작으로 출발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이 반환점을 앞둔 4월 18일 전북 완주지역의 순례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48일째 순례행진을 하고 있는 순례단을 찾아 격려하고 순례길을 함께 했다.

4월 13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고불식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순례를 시작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그동안 AI피해 농가 등을 찾아 위로하며 지역의 아픔을 보듬어왔다. 각 지역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현장을 찾아 대화의장을 마련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에서 순례단은 출발에 앞서 세월호 탑승객의 무사생환과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렸다.

자승 스님은 먼저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다함께 기원하자”며 “이 아픔도 순례를 통해 극복하고 화쟁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오늘만큼은 여객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순례를 하자”고 말한 자승 스님은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이 47일째 갈등의 현장을 걷고 체험하고 있어 감사하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또 “도법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 단원들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목소리에 기가 서려있어 다행이다. 몸은 힘들지만 100일 순례를 무사히 회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례단은 송광사를 참배한데 이어 송광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우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송광정심원(이사장 도영, 원장 우용호)을 방문해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하고 장애우들을 위로했다.

자승 스님은 특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 는 서원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이날 방문에 특별히 신경을 쏟았다. 자승 스님은 송광정심원 어르신들을 일일이 포옹하며 “장애인도 차별없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영 스님은 “단기간에 치료가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라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며 “이런 시설이 사회에 질서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종단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순례단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방문했다. 여기서 임수경 센터장과 함께 지역경제센터의 꾸러미 사업, 완주 로컬푸드 사업,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 전북1호 완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미소식당에서 지역 농산물로만 짜여진 식사를 하며 도농공동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화쟁코리아 순례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으로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평화롭게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직접 현장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은 이어 만경강 강둑을 따라 완주 비봉삼거리까지 1시간가량을 함께 걸으며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이 땅의 생명평화를 발원했다. 만경강 길 순례에 앞서 순례단원들은 진도 여객선 침몰 희생자들의 왕생을 기원하는 묵념과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의 선창으로 ‘화쟁코리아 꽃피우자’ 라는 구호와 화쟁순례 발원문을 다함께 낭독한 순례단은 만경강 길을 따라 봉동읍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8km의 길을 걸으며 농업이 주요 자산인 전북지역이 개발 논리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는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여 생명농업으로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아가는 활동을 함께하고 그 가치를 함께 느꼈다.

이날 순례에 동행한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화쟁은 다툼은 잘 이해하고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내가 옳음에도 빈틈이 있고 그름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서로 한발 물러남으로서 오히려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본격적인 전북지역 순례길에 나선 화쟁코리아 순례단은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겨울 축산농가에 혹독한 시련을 안겨 주었던 AI 조류독감 최초 발생지 동림저수지를 찾았다. 순례단은 저수지를 향해 생명평화 100배 정진과 명상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찾아 참배 후 동학농민 발상지 고부면 소재지를 경유해 황토현 전적지까지 11km의 거리를 걷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순례단은 15일 부안 계화도, 새만금을 거쳐 군산에 미군기지에 도착해 미군기지 대책위주민들과 화쟁토론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화제마을과 화재로 숨진 성매매여성들의 아픔이 남아있는 개복동을 방문하고 일제강점기 흔적이 남아있는 동국사를 방문한 후 심리학자 김태형 박사와 화쟁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에는 익산으로 이동해 미륵사지와 완주 송광사 진안 용담댐을 순례했으며, 18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과 만경강길 걷기, 19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국민통합문화제 및 풍남문 광장에서 동물위령제와 국민통합문화제 개최, 20일 남원 실상사와 대안학교, 사부공동체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일 제주도에서 첫발을 내딛은 화쟁순례단은 약 50일 동안 제주 4 · 3사건, 여순사건, 거제도 포로수용소 등 역사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과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과 진주의료원 등 사회적 갈등의 현장을 찾아 해법을 모색해 왔다.

완주=조동제 전북지사장

“모두가 행복한 시대 위해 끊임없이 걸을 것”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화쟁코리아 순례를 이끌고 있는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우리는 3 · 1정신으로 화쟁의 세계를 연다는 꿈을 갖고 길 위를 걷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과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것을 풀기위한 흐름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화쟁이야 말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함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 시대야 말로 다양한 의견, 문화가 상충하고 갈등하고 있다. 이것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면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쟁코리아 순례단은 우리시대의 아픈 곳을 찾아가지만 상생의 현장도 찾아가 격려하기도 한다.

스님은 이에 대해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삶의 현장을 둘러보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 어렵고 힘든 곳에 이런 교훈을 전하는 것도 화쟁순례단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삶이 질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해 지고 안심하고 살수 잇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끝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사회에서 서로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라며 “향후 불교가 이런 사회문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불교 지성화·대중화·생활화

목동큰절 법안정사는 한·불 수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반만년의 역사와 배달 한겨레의 혈맥을 안고 영겁을 흐를 한강을 뒤로하여
시대의 민족 진운을 밝히기 위해 법문을 연 도량이다.



백용성 조사진영

회주 김 효 경
주지 이 도 업

– 대중일동 –

◉ 금강법회: 매월 음력 1일 ~ 3일기도
오전 10시(금강경 독송)

◉ 인등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원각경 독송)

◉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아미타경 독송)

◉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관음경 독송)

◉ 일 요 법 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부 부 법 회: 매월 첫째(토) 오후 7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5시~10시

(재)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목동큰절 법안정사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Tel. (02)2646-4975,
(02)2653-4888

횡성 大覺正寺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211번지
Tel. (033)433-3754,
(033)433-0992

"나를 비우고 상대의 말에 귀기울여야"

불교상담개발원, 4월 17일 14주년 세미나 열어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소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방하착(放下着)을 전제로 화자와 청자가 모두 그 마음을 텅 비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가 행복의 정원이 될 것이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경청은 대화 중에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자각하는 것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최훈동 서울대 겸임교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결여가 소통부족이라고 한다. 오늘의 첨단 기술로도 풀 수 없는 숙제가 사람간의 소통이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소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불교와 심리치료에서 본 소통-수용, 경청, 공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불교에서 본 경청과 소통'을 주제로, 서동혁 원장(밝은서울정신과병원)이 '분석심리학에서 본 경청, 수용, 공감, 치유의 이해'를 주제로, 최훈동 서울의대 겸임교수가 '치유명상에서 소통-숙고명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서 법상 스님은 경청과 공감의 의미, 그리고 불교적인 경청과 공감의 조건이나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법상 스님은 "먼저 경청을 해야 심리적 공감을 일으키고 공감을 일으켜야 원만한 소통이 가능하며, 소통이 돼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져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소통과 경청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사무량심이고, 배려하는 경천의 실현은 사섭법이며, 경청의 자세는 개경게이고, 공감의 내용은 수지독송(受持讀誦)과 신수봉행(信受奉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감은 경청을 전제로 하고 경청은 소통으로 발전한다"며 "결과적으로 (공감과 경청 그리고 소통의)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몸과 마음이 안정을 유지해서 고통을 여의고 안락을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혁 원장은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를 위해서는 이해를 통한 철학적 사색이나 명상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치료자는 내담자의 모든 표현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경청해야 한다. 이것이 치료자의 '관찰적 자아' 인데, 치료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려면 치료자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관찰적 자아'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원장은 "치료자와 내담자에게는 계정혜가 필요하다. 계는 치료 계약, 정은 관찰적 자아, 혜는 통찰(감정적 이해)"이라며 "분석심리학에서 증상과 고통은 이해받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자아의 태도가 바뀌어 자신을 돌보면 증상과 고통이 사라진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아가 증상을 만드는 차원을 초월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훈동 교수은 내면의 소음 때문에 상대의 경청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숙고명상'이 해법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을 잘 듣고자 하나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청을 가로막는 내면의 소음 때문"이라며 "△떠올리고 대면하여 지켜보기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 △머물러 경험하기 △공감하기 △통찰과 통합 △변환의 단계를 거치는 숙고명상을 통해 나의 문제 깊숙이 들어가 그 동안 자각하지 못한 나 자신과 하나 되는 순간 붓다의 성품이 깨어난다. 이 불성은 나와 동등하게 상대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상대를 부처로 대하면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부처 의식으로 경청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한마음선원 마음 템플스테이 상설화

부산지원 · 광명선원 올해 1월부터 진행

한마음선원이 템플스테이를 상설화해 마음공부 포교에 박차를 가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과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올 해부터 템플스테이를 열고 일반인들이 쉽게 마음공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 대법당을 준공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마련하고 '대장부 템스(템플스테이의 줄임말)'를 진행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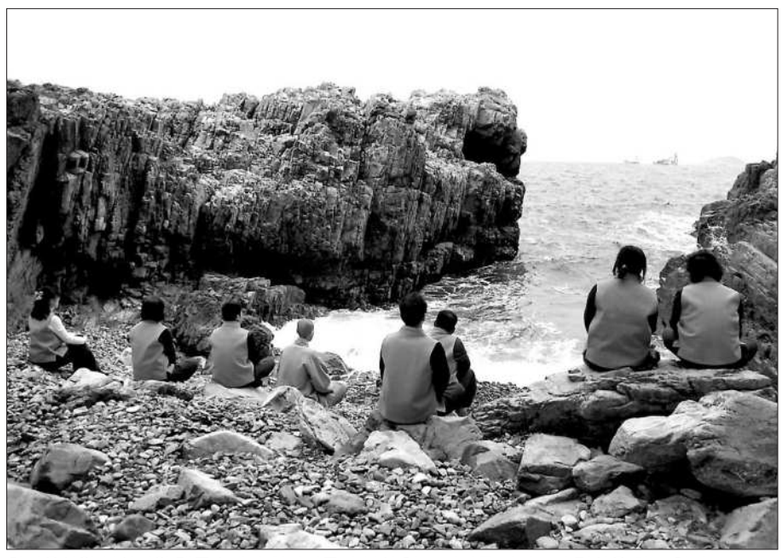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부산지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는 없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정도로 주변의 반응이 좋아 올 초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상설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원은 매월 둘째 주 열리는 정기 프로그램과 학교, 기업,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매월 둘째 주 마다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평소 대행 스님이 강조한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大丈夫)가 되라"는 가르침을 담았다.

대장부 템스 사무국은 " '대장부 템스'는 심성 과학을 주창했던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템플스테이 사무국 기획 인력의 전문성이 더해져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심성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덧붙였다.

대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 프로그램인 '누구나, 긍정하는 대장부'는 휴식형과 체험형, 당일 체험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학교나 기업체, 단체의 경우 미리 예약하면 맞춤형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 각 단체나 학교의 성격에 맞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휴식형의 경우, 영도 절영 해안누리길 산책,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장부 템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템플스테이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대상자를 세분화한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부부, 아버지, 예비엄마(태교) 등으로 나누고 참가자의 성향과 연령, 참가 목적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부산 영도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있다.

부산지원… '대장부 템스' 진행
휴식형 · 체험형 · 맞춤형 등 다양
광명선원…관법수행 · 마음공부 바탕
"군인 · 가족 등 계층 포교 앞장설 것"

이에 따라 부산지원은 △1 · 7월 '어린이(보호자 동반), 멋쟁이 대장부' △2 · 8월 '청소년, 최고야! 대장부' △3 · 9월 '대학생, 깨어나 웃어라' △4 · 10월 '아버지, 아버지 날다' △5 · 11월 '태교, 대장부를 품다' △6 · 12월 '가족, 한마음의 품으로'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지원은 프로그램 특화를 위해 템플스테이 수련, 기업체 힐링 교육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해온 전문가 김성수씨를 영입했다. 한국상담학회 회원인 김성수 사무국장은 조계사, 삼성, 현대, LG,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등 700여 곳 이상에서 인간관계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템플스테이 사무국이나 홈페이지(www.대장부템스.org)로 접속하면 가능하다.

2013년 6월 대법당을 완공한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경내에 30~4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원도 함께 설립하고, 올해 1월부터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선원 교무담당 청송 스님은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초심자들이나 선원에 오래 다녔지만 마음공부에 부족함을 느끼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관법수행과 마음공부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명선원 템플스테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는 △입재식 △오리엔테이션(사찰예절과 윤회담) △저녁예불 △발우공양 △주제가 있는 담선(스님과의 차담) △촛불재 △법문산책(마음나누기)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고주연씨는 "템플스테이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마음이 쉬어졌다는 것이다. 담선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큰 에너지가 돼서, 마음이 쉬어지면서도 채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분별심도 많고 항상 생각에 끄달리는데, 여기와서 여유를 갖게 돼 뜻 깊은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광명선원은 매년 7~8회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송 스님은 "인근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또한 중원대학교의 외국인 강사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어 템플스테이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부모와 자녀, 청소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를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원: (070)4650-5535/ 광명선원: (043)877-50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지도자 고급과정'

4월 17일~6월 12일, 수료후 강사파견 예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4월 17일~6월 12일 '웰다잉지도자 고급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구미례 건국대 외래교수의 '한국인의 생사관' △최수빈 서강대 교수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죽음' △장영수 경희대 외래교수의 '스트레스 감소 명상과 실습' △임정애 건국대 마취통증과 교수의 '말기 암환자와 호스피스' △박종익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의 '자살예방 교육' △신선영 서울어르신상담센터 과장의 '발달심리학과 노인심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김태정 목사와 미카엘 카톨릭대 교수가 초청돼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임종의례실습 및 장례시설견학(서울시 벽제 장묘사업소)등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도 마련됐다.

수료생에게는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료생을 대상으로 평가 후, 성남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진행되는 어르신 웰다잉교육에 강사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wdi.or.kr)를 통해 알 수 있다.(02)722-2101 이나은 기자

종로 궁플란트치과, 무료 치과진료소 운영

4월 27일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앞 사거리에 위치한 궁플란트치과(원장 최우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 행사 중 조계사 앞길 치과 앞에 부스를 마련하고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소'를 운영한다.

궁플란트는 평소 경제적 사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불자,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어린이와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도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파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궁플란트 치과 최우환 대표원장이 시작한 자비나눔 재능기부 의료 봉사활동이다.

이번 행사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불자는 신도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급권자 확인증을 지참하고 궁플란트치과 무료치과진료소 부스로 4월 27일에 방문하면 된다.

진료절차는 궁플란트 치과 앞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구강검진을 한 후 치료가 필요하면 옆 건물 3층 궁플란트치과로 이동해 진료를 받으면 된다. (02)722-2870 이나은 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수 덕 원로위원 해 산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혜 담
원로위원 홍 원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비구니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원장 설 봉

총 무 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환경위원장 혜 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종 무 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2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경기1종무원장 원 담
충청1종무원장 계 현 전라1종무원장 법 도

법계고시 공고
◆일 시 : 불기 2558년 5월 25일(일)(음 4월 27일) 오전 11시
◆장 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호 ☎054)974-260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60년 인생 그은 곡선… 희노애락 그래프

자양복지관 '인생수업' 현장

굴곡진 곡선. 단순한 선이었지만 그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인생 그래프 이야기다.

4월 15일 서울 광진구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의 한 교실. 열 두명의 어르신들이 인생곡선 그리기에 여념이 없다. 나이대별로 기억나는 일을 표시하고 선으로 잇는 작업이었다.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기쁨(위)과 슬픔(아래)이 우여곡절처럼 요동쳤다. 좋기만했던 인생도 나쁘기만했던 인생도 없었다.

'인생수업' 은 광진구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생을 되짚어 보며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된 수업. 지난 3월부터 개강하여 총 16회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 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며 다채롭게 수업이 진행된다. 주변인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고 버킷리스트도 작성하는 등 노년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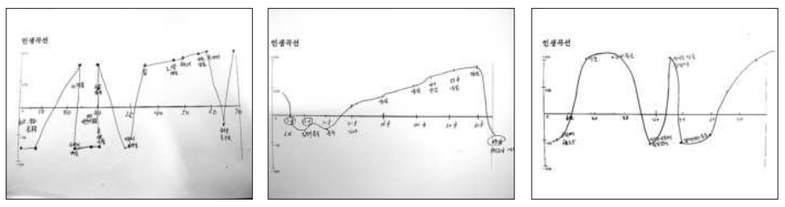
현재 두 반으로 나뉘어져 진행되는 인생수업 수강생은 총 40명. 꽃놀이 가느라 결석한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였으니 이만하면 좋은 출석률이다.

10분 남짓 자신의 기억을 돌아다본 어르신들은 60년 전의 기억도 엊그제 같다. 4세 무렵 이불에 오줌을 싸서 어머니께 혼난 기억도 그대로다. 시집올 당시 고향 생각에 울기만 했던 스무살,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날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돌아다본 어머니의 애잔한 얼굴. 마음나이는 이팔청춘이라던 어르신들에게 삶이란 장면장면의 연속이었다. 기억은 늙지도 않았다.

저마다 그린 그래프를 한 사람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는 승진이, 어떤이



인생수업 참가 어르신들이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인생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세 어르신들이 그린 각각의 인생그래프. 기쁨(위)과 슬픔(아래)이 교대로 반복된다.

행복한 노후 위해 인생수업 개설

인생그래프 작성하며 인생 재점검

경험공유 통해 참석자간 공감대 형성

에게는 가족의 일생이 그래프 선안에 녹아 있었다. 공통점도 있었다. 60대 후반의 어르신들 기억은 6.25 전쟁과 함께 시작하고 있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은 그래프를 아래로 향하게 만들었다.

"어르신들에게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인생수업이 어르신들에게 그 기회를 작게나마 만들어준다 생각해요.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자기표현에 능하지 못한 어르신 세대가 그 자체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우지민 사회복지사는 인생수업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인생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지만, 관련 프로그램은 이미 6년 전 부터 시행해오고 있었다. 거듭 수업이 진행되면서 참여자도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 4회기로 진행되던 수업에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보다 큰 커리큘럼으로 넓혔다. 나에 대해 돌아보고 주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본 후 웰다잉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학기가 끝나는 6월에는 마음 비움 여행, 템플스테이가 예정돼 있다.

인생수업에 아내와 함께 참여한다는 강신호(68) 어르신은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에 이르다 보니 내 인생을 훑어보고 싶었다"며 "자식에게 모범이 되도록 남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느 그래프처럼 강 어르신의 그래프도 롤러코스터마냥 생이 굽이져 있었다. 백일갓 지난 둘째 딸 아이를 보냈던 기억, 죽은 아이를 안은 채 밤을 새웠던 어머니 모습,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하지만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없이 기뻤고 알뜰살뜰 모아 내 집장만을 했을 때는 가슴이 후련했다. 결혼한 아이들이 안겨준 손주를 목욕시켰던 시간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힘들었던 시간, 즐거웠던 기억을 점으로 찍고 잇다 보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내야할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업의 끝자락. 수업을 이끈 이지원 강사(동국대 평생교육원 마음치유 강사)는 어르신 한분 한분의 삶에 박수를 보냈다. 힘들어도 삶을 내팽개치지 않고 60년을 차곡차곡 살아온 것에 대한 존경의 인사였다. 어르신들 역시 자신과 서로의 삶에 대해 박수를 더했다.

어르신들은 가느다란 선 안에 깃든 인생을 되짚으며 웃매무새를 가다듬는 마음으로 하루를,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홍천군장애복지관, 장애인식교육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체험에 나섰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교육을 진행했다. 홍천군내 청소년을 4월 한 달 동안 홍천군내 어린이집과 초 · 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장애인권수업을 시행한 것이다.

교육은 이론과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인권을 설명하고 직접 장애인의 어려움을 경험해보는 교육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소리없는 동영상을 보고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느끼고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 게임을 하며 지체장애를 경험했다.

흥천군장애인복지관 측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체험에 임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관문사, 어린이 글 · 그림 축제



지난해 진행된 우면산 어린이 축제

서초구립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운)과 대한불교천태종 관문사(주지 변춘광)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제7회 우면산의 꿈! 어린이 글 · 그림 축제' 를 개최한다.

5월 5일 우면동 바우뫼로 7길부터 관문사 우면산 부근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축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나의 꿈과 희망' 을 주제로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개최되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나눔마당, 각종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출품된 글 · 그림 작품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상, 서울시교육감상, 서초구청장상 등의 수상도 이루어진다.

참가비는 무료며 참가대상은 6~13세 아동이다. 대회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02)577-6321

배현진 기자

'나 아닌 너를 위한 절' 쾌유 발원

조계종복지재단 장애인 ·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봉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4월 19일 '국내외 장애인 · 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을 봉행했다.

4월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새벽 4시까지 조계사에서 진행된 철야정진은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이날 정진에는 조계종자원봉사단, 재단 산하시설 종사자, 일반 신도, 후원자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향후 경기 용주사, 경북 직지사, 양산 통도사, 의성 고운사, 고창 선운사, 여주 신륵사 등 6곳에서 일반 신도 2,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3천배 릴레이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국경을 뛰어넘는 부처님의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국내 장애 · 난치병 환아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백혈병 어린이들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3000배 철야정진은 지난 13년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북한 장애인 휠체어, 저소득 · 실직가정 자녀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650여명에게 6억2천여만원 상당을 지원해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병원법당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시급한 난치병 어린이 32명을 추천받아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내빈과 1,000여명의 불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나를 위한 절이 아닌, 너를 위한 절과 쾌유발원" 을 기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 배우 김성녀씨도 참석해 환아의 쾌유를 위한 발원문을 낭독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은 "세상의 따스함을 느끼기도 전에 난치병으로 장기간 고통으로 신음하는 어린이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부처님 품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유를 발원한다" 고 말했다.

모금은 5월 봉축 기간 동안 계속된다. (02)723-5101,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배현진 기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법률자문단 위촉

4월 10일, 변호사 9명 임명



한부모가족은 4월 10일 한부모가족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월 10일 한부모가족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법률자문단은 양소영 변호사(양소영 법률사무소)를 비롯하여 9명의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최근「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지원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한부모가족이 이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단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두리모 · 부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무료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조계종 불암사에서 운영하는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에서 무료 합동결혼식에 참여할 부부를 신청받는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은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다문화, 탈북자, 저소득가정 등의 신청을 받아 5월 31일 '馬음Dream(마음드림) 제 10회 무료합동결혼식' 을 개최할 예정이다. 결혼식은 송산복지관 3층에서 개최된다.

신부드레스, 화장, 식비, 웨딩사진, 피로연 등의 일체 경비를 행사주최 측에서 제공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대상자에게는 복지관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부부는 4월 30일까지 송산노인종합복지관(031-852-2595)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의정부시 용민로 99)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馬음Dream(마음드림) 제 10회 무료합동결혼식' 은 한국마사회의정부지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배현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어떤 이치도 없다”

불교평론 4월 열린논단

정인재 명예교수(서강대 철학과)

내 마음이 곧 우주며 우주의 일이 내 마음의 일이라는 양명학. 유학의 주류를 형성한 양명학 발생에 불교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불성(佛性)과 양지(良知)’란 주제로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 속으로 들어가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정인재 교수는 … 고려대와 동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타이완 중국문화대학에서 철학박사를 받았다. 영남대 철학과 조교수를 거쳐 중앙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다. 한국양명학회 회장을 지냈다.

동아시아 문명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의 불교이며 다른 하나는 서양의 과학과 기독교입니다. 동아시아의 노장사상은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오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으며 유교사상은 불교와 노장사상의 영향으로 새로운 유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유학은 공자 맹자 순자 등으로 대표되는 시원유학과도 다르고 특히 한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오경(五經)중심의 경전유학과는 차별화된 유학입니다.

신유학은 정욕에 얽매어 이기심에 가려져 있던 도덕적 본성(仁義)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뇌에 얽매인 중생이 깨달음을 통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와 그 패러다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신유학은 본성을 천리(天理)로 보고 불교의 공(空)사상과 도가의 무(無)사상을 창조적으로 극복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양명학과 주자학은 신유학의 중요한 두 흐름이죠.

주자학은 본성이 바로 천리라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여 성리학 혹은 이학(理學)이라고 합니다. 양명학은 마음이 바로 천리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제창하여 심학(心學)이라고 하고요. 조선시대 사상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은 “불교는 심(心)을, 도가는 기(氣)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인데 비해, 유학은 리(理) 즉 천리를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리는 심과 기를 아우르는데 반해 심과 기는 서로 포섭을 하지 못한다고도 했죠.

조선시대는 주자학을 정통으로 삼고 불교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억불숭유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주자학자들은 심지어 왕양명의 심학을 불교의 심학과 같은 이단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자학은 불교에 대하여 배타적이었으나 양명학은 불교에 대하여 친화적이었습니다.

유학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성은 자기의 인격수양에 힘써 성인(聖人)이 되고자 하는 것(修己)이며, 외왕은 수신(修身)을 통하여 가정(齊家), 국가(治國) 천하(平天下)를 안정시키는 것(安人 혹은 治人)을 말합니다. 유학의 성인은 인륜을 극진히 잘 발휘한 이상적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말하죠. 격물, 치지, 성의, 정심 등의 내성은 불교 영향을 받아 신유학에서 깊이가 심화되고 넓이가 확대됐습니다.

〈중국철학사〉로 저명한 신리학자 펑유란에 의하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이전의 마음(心)은 mind였지만 이후의 마음은 Mind가 되었다고 하죠. 전자는 신체와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고 후자는 그것을 초월한 마음 즉 큰마음(大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무한심의 자극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양명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육상산(陸象山)은 내 마음이 곧 우주이며 우주의 일이 내 마음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우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지라는 말은 맹자에서 유래하였지만 왕양명에 이르러 양지는 마음의 본체(心體) 되어 모든 것의 존재근거(天理)로 확대되었죠.

양명학이란 명나라 시기에 당시 부정부패로 얼룩진 혼란한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하여 왕양명(1472-1529)이 제창한 철학을 가리킵니다. 양명학에서의 공부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업적위주의 학문(爲人之學)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세워(立志) 훌륭한 인격을 완성함을 위한 학문(爲己之學)을 말합니다.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이기에, 유학의 목표는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었던 거죠.

왕양명은 불교와 노장사상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사상에는 불교와 가까운 점이 많이 발견되죠. 그는 양지를 설명하면서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든가 항상 깨어있음(常惺惺)이라는 불교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양지가 바로 성인문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유배지 생활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며 돌무덤까지 만들어 놓고 천명(天命)을 기다리다, 어느 날 격물치지의 뜻을 크게 깨달았죠. “성인의 길은 내 본성이 스스로 넉넉한데 이전에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 것은 잘못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며 각도(覺道)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이치를 내적인 것으로 돌린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주자학은 마음 밖에 사물과 그 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명학은 사물이 나의 마음과 의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음 밖에 어떤 것이 있다는 주장을 판단 중지시키고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없다(心外無物) 따라서 마음 밖에 아무 이치도 없다(心外無理)”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없다는 명제는 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산 속에서 저절로 피었다가 저절로 지는 꽃은 그것을 보는 마음과 연관되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했을 때 그 꽃이 존재하는지 않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판단 중지를 한것입니다. 의식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물(無物)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物)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미연관성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주자는 외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재론자입니다. 주자는 격물을 “외물에 다가가서 그 이치를 캐묻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격(格)자를 이른다(至)는 의미로 풀이하여 격물은 외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캐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양명은 이에 반대하며 격(格)이란 바로잡는다(正)라고 풀이하였습니다. 그는 ‘물’을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격’을 ‘바로잡다’로 풀이하였던 거죠. 다시말해 왕양명은 격물을 고정되어 있는 외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도덕 본성 회복하자는 양명학
불성 근거해 부처에 이르는 불교처럼
양지 근거해 성인돼야 한다고 강조

왕양명은 어버이 자체가 일물(一物)이 아니라 어버이 섬김이 일물이요, 책 자체가 일물이 아니라 독서가 일물이라고 봤던거죠. 뉴스에서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그 아들에겐 시친(弑親)이 일물입니다. 잘못된 의도에서 생긴 행위를 바로잡아 바른 데로 돌리는 것이 바로 격물입니다.

왕양명의 철학은 치양지(致良知)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양지를 현실 생활에 실현한다(致)는 말이요, 양지에 의한 행위 즉 양지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는 지행합일입니다.

그러면 양지란 무엇이며 지식 혹은 지각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양지는 경험적 지식 혹은 지각에서 유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천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각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각과 함께 드러납니다. 둘째로 양지는 천리이며 상주불변하는 마음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즉각적으로 아는 도덕적, 심미적 판단능력이자, 남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고 이것을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보통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영특한 밝음이며 즐거움의 본체이기도 하죠.

이러한 양지가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지행합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지를 현실생황에 실현하는 것을 치양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행위의 합일을 지행합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주자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자학에서는 지식과 행위는 언제나 둘로 나뉘어 있어 먼저 알고 난 뒤에 행위한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知行分離) 당시 지식인을 비판하기 위하여 지행합일을 주장한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한 것이다”며 이는 외적인 지식으로 알았다하더라도 내적인 양지로 아직 깨우치지 못한 상태를 이릅니다. 외적인 도덕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각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양지에서 나온 도덕적 자각이 더 근본적임을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양지를 가리면 도덕적 자각이 생길 수 없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욕심에 가려진 양지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치양지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본심인 양지를 잃어버리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히면 남을 해치고 심지어 골육을 죽이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재해를 막으려면 양지를 되찾는 길 밖에 없습니다.

왕양명은 양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묵좌징심(默坐澄心), 둘째 성찰극치(省察克治), 셋째 사상마련(事上磨鍊)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초학자를 위하여 정좌법을 가르쳤습니다. 불교의 좌선(坐禪)과 유사한 방법이었죠. 왕양명은 초학자들이 마음이 들뜰까 경계하여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혀 맑게 하는(默坐澄心)’ 공부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다스리려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온갖 잡념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끊기가 어려워지죠. 왕양명은 억지로 끊어버리려 하지 말고 욕심이 막 싹트려고 할 때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온 눈으로 살피고 온 귀로 듣고 있다가 한 생각이라도 움직이자마자 바로 그것을 살피어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찰극치의 방법입니다.

치양지의 방법으로 왕양명은 “그대가 조용히 마음을 기르는 것만 알고 이기적인 자기를 극복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에 부딪쳤을 때 마음은 사욕에 기울어져 버린다.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가면서 자신을 연마해야 비로소 확고히 설 수가 있고 조용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움직여도 마음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치양지는 조용함과 움직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양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치양지는 구체적인 일에서 실천되는 실학이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는 불성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명학은 양지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왕양명은 상주불변하는 양지를 마음의 본체로 간주하였으며 일점(一點) 영명(靈明)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이 영명을 떠난다면 천지 만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양지가 천지만물의 근거이며 또한 주재자라고 했습니다. 천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끝내 없앨 수 없고 양지의 광명은 영원히 불변한다고도 했죠.

현대사회는 서양의 민주와 과학을 받아들여 새로운 신유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동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인 시민사회가 생겨나기도 했죠. 현대 양명학은 시민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외왕(新外王)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양명학과 융합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에서 남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 자율적 독립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를 속이지 않는(無自欺) 양지를 자기가 하는 일에서 실현하는 것(事上磨鍊)입니다.

제 9기 불교의식(서울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팔공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종송,향수하래,삼보통청,중단퇴공,각단불교의식,관음청, 지장청,신중청,시달림,방생의식,상용영반,구명시식.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칭,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시 : 2014년 4월 30일(수요일) 오후 3시
◆ 수 업 : 매주(목.금) 오후 3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H·P 010-9361-5566

무파사 팔공불교대학 학장 일관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6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4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4월 중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② 성명학 : 6개월과정(단 역학의 기초과정을 배우신 분께서는 3개월 완성) (매주 월)1시 ~ 2시반
▶ 개강일시 : 2014년 4월 28일 (매주 월) 2시 반 ~ 4시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혜암 스님 수행과 개혁정신 이어받자”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첫 학술대회 열고 다짐

‘공부하다 죽어라’ 는 가르침으로 잘 알려진 근현대 선지식 혜암 스님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회장 성법)는 4월 16일 동국대 중강당을 가득 메운 1000여 불자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보냈으며,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축하 영상을 통해 “혜암 스님은 선풍을 널리 일으키신 분으로 일생동안 참선법을 선양하셨다”며 “후학들은 유훈을 받들어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개혁 당시 혜암 스님과 인연이 깊은 前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도 영상을 통해 “스님은 94년 개혁 당시 원로의장으로서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대중을 독려해 부패한 구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다”며 “청정한 스스로의 일생은 바로 정법을 향한 수행과 그 것을 펼치기 위한 실천행이었다”고 회고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혜암 스님의 20년 행적이 오늘날 불교계를 낳게 했다. 다시한번 개혁불사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학술대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보냈으며,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혜암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되짚었다.

진제 스님 “선풍 널리 알린 분… 유훈 받들어 후학들 정진해야”

월주 스님 “개혁의 구심점 역할, 청정한 일생은 정법 실천”

여연 스님 “적극적 개혁의지 지닌 수좌 오늘의 불교가 배울점”

혜암대종사문도회장 성법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혜암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구성된 ‘혜암선사문화진흥회’를 통해 포교 교육 승가복지 사회복지 장학사업 다문화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세미나로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해 홍법의 기초로 삼겠다”고 했다.

혜암 스님은 종단 개혁 구심점

여연 스님은 기조발제 ‘가야산의 대쪽, 혜암성관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에서 혜암 스님과 같은 출가수행자의 사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연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는 우리 시대를 책임질 본분종사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출가에서 열반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용맹정진한 스님은 현대불교의 모든 출가수행자의 전범”이라고 말했다.

여연 스님은 또 혜암 스님의 종단개혁을 분석하며 “수좌로서는 드물게 세상이치에 밝았다”며 “이는 은둔형 수행자가 아닌 적극적 · 개혁적인 수행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여연 스님은 또 “스님은 장좌불와와 철야정진을 하며 재가자들과 함께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도량청소와 울력을 함께 했다”며 “스님은 재가자들과 함께 수행정진하는 것 만큼 확실한 대중교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직접 실천했다”고 말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도 ‘혜암선사의 수행 리더십 형성과 하화중생’에서 “스님의 장좌불와와 일일일식 등 용맹정진 가풍이 근대 불교계의 리더쉽이 됐다”며 “간화선에서는 재가불자선원과 달마선원을 개원해 재가자들에게도 간화선을 지도했다. 이는 간화선이 생활선임알고 실천하신 모습”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혜암 스님이 산문에서 수행해온 삶과 밖에서 종단 개혁을 이끌던 삶은 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월 15일 ‘황제지보’ 반환이 발표된 직후 ‘문화제제자리찾기’ 회원들이 보신각 앞에서 환호를 외치고 있다.

문화재 지킴이 불교계가 앞장섰다

4월 15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힘찬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대한제국의 상징이었던 황제지보가 반환되기로 결정된 것. 보신각에 모인 이들은 이번 문화재 반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과 안민석 민주당 안민석 의원, 김정광 미주한국불교문화원장 등 불교계 시민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문화재 환수를 축하하는 타종식을 이어가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 25일 방한 시 황제지보와 수강태황제보, 유서지보, 준명지보, 향천심정서화지기, 우천하사, 쌍리, 춘화, 연향 등 9점을 반환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반환을 위해 ‘응답하라 오바마’ 캠페인을 벌여 시민서명으로 미국 정부에 청원을 넣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혜문 스님은 “국새와 어보 환수를 계기로 국운이 더욱 융성해지고 민족 통일이 앞당겨지길 기원한다”며 “이는 그동안 힘을 아끼지 않은 많은 우리 국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의 결과다. 또 불자의 역할이 컸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16일 혜문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혜문 스님은 “이번 황제지보 반환은 불교계가 문화재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라며 “단순한 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미 대통령이 갖고 오는 것이라 대중에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 조사, 본격적 활동

서울 · 부산 · 인천, 강원 지역 등 전통사찰 포함 목조 문화재 총 65곳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 9월까지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지역 등에 있는 목조 문화재 65곳에 대한 흰개미 조사를 수행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흰개미 활동에 따른 목조 문화재 생물피해 예방과 사전 조치를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검측 장비를 동원하고,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 기관인 ‘삼성생명’의 협조를 받아 흰개미 탐지견을 문화재 현장에 투입해 조사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탐지견에 의한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조사는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탐지견의 발달한 후각으로 서식 흔적을 탐지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이 검측 장비로 서식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흰개미는 빛을 싫어하고 주로 땅속에서 기둥을 따라 이동하면서 목부재(木部材)에 해를 끼치지만, 4~5월 봄철에는 군비활동(교미나 이주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비행)을 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며 “이때 목조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흰개미 탐사 장면

노덕현 기자

“다르면서 같은 두 스님, 한국 불교 지남”

자현 스님, 김광식 동국대 교수, 석전과 한암 스님 재조명

“석전과 한암은 각기 조선시대 불교가 남긴 유산, 서양의 문명 및 종교의 유입, 국권 침탈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불교를 구해야 한다는 시대인식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후학교육, 불조혜명의 계승에서 다르면서 같은 길을 걸었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4월 18일 한국불교학회가 개최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 시대정신을 말하다’ 세미나서 두 스님의 사상이 강학과 선수행에서의 양대 축으로 자리해 현재 불교계를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두 스님은 강원과 선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잇는 자질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며 “당대 불교계가 처한 역사적 사명을 수용해 수행과 교육활동을 통해 불교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하지만 석전 스님은 교육기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교를 중심에 놓으면서도 선을 배척하지 않는 관점을 가졌다”며 “반면 한암 스님은 선원에서 수행 후 선을 중심에 놓으면서 교육 및 종단활동에 나서는 관점을 가졌다”고 비교했다.



월정사 교무 자현 스님은 “두분 모두 청정한 수행가풍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된다”며 “특히 현대 사회는 교학이나 수행의 탁월성 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이러한 두 스님의 계율 강조는 오늘날 한국불교가 나아갈 지남(指南)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 한국인들의 고성장 결과에 따른 현대의 젊은 이들은 궁극 목적인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는데 두 스님이 보여준 수행의 모습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硏, 〈한국불교사연구〉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제4호와 〈문학/사학/철학〉 제36호를 펴냈다.

〈한국불교사연구〉 제4호에는 ‘광해군의 외교노선과 그 논쟁의 성격’을 기획 주제로 △계승범 서강대 교수의 ‘광해군의 외교노선과 그 논쟁의 성격’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내상과 외상을 넘어-인조시대 대내외 정책’ △이철헌 동국대 겸임교수의 ‘정허계의 선사상과 법통인식’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부휴 선수계의 선사상과 법통 인식’ 4편이 실렸다. 이와 함께 ‘삼각산 화계사 역사의 안팎과 인물의 앞뒤’를 특집주제로 △고영섭 교수의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인물’ △유근자 동국대 미술학과 겸임교수의 ‘화계사 불교미술의 성격과 시주자’ △이성운 동국대 외래교수의 ‘의례로 읽는 화계사 안팎의 문화’ 등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예硏, 제3회 불교미학 학술대회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동방대학원대학교 M401 세미나실에서 ‘우리 그림과 불교미학의 만남’을 주제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기조강연은 홍윤식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한국 불교미술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미령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가 ‘고려 수월관음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미술평론가 조정육 씨가 ‘단원 김홍도 화폭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백원기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추사의 세한도에 나타나 불교적 미학의 세계’, 진철문 동국대 강의교수가 ‘장욱진의 화폭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법산스님이 발제에 대한 총평을 한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문 의 02)3147-2020

지부교육원

제기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연등 훼손 '파문'

전주 봉축연등 1km구간…
해마다 반복돼 지역불교계 우려

전주지역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봉축연등 훼손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전주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안행로 2.5km에 설치한 연등 수백개가 훼손된 것이다.

전주의 A사찰은 전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이 시작되는 4월 6일부터 전주시 효자동 안행로의 사찰입구 간선도로 2.5km구간 양쪽에 연등을 설치했다. 안행로에 설치한 연등은 총 1000여 개다.

이 사찰이 설치한 연등은 4월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에 약 1km에 이르는 구간의 연등 400여 개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 사찰 주지 스님은 "14일 새벽 6시 30분경 아침 포행길을 나서다 연등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으며 연등을 수거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찰에서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연등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훼손된 연등은 모두 일률적으로 손으로 잡아당긴 듯 비닐이 심하게 찢겨 있었다. 방수 처리가 된 재질을 찢는 것은 커터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 밖에 재사용을 못할 정도로 내부의 철사가 모두 늘어져 있었다.


전주시 안행로에 잘려진채 방치됐던 봉축 연등 모습. 이 같은 훼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지역불교계의 우려가 크다.

CCTV 없는 구간 골라 훼손
사찰 측에선 훼불이어질까 우려
이웃종교 최근 연등철거 요청

문제는 도로 주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 연등이 훼손된 구간은 아파트 담벽이나 공터 주변을 지나고 있어 차량의 왕래는 많지만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이다. 고의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연등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길 건너편의 연등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이 구간에는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연등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찢겨진 연등이 즐비하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파손된 연등은 이미 사찰에서 수거한 상태지만, 지역불자들이 느끼는 충격은 상당하다.

이 사찰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한창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분주한 시기지만 일손을 놓고 혹여 있을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찰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극도로 꺼리고 있고 경찰에도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웃종교의 연등철거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교회신자의 소행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사찰 주지스님은 이번 사건이 종교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이 사찰 주변에는 대형교회가 여럿 들어서 있어 해마다 봉축기간 연등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또 전주시청에도 부처님오신날 연등설치 허가를 반려하고, 이를 금지해달라는 이웃종교인들의 민원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전북 봉축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원탑 점등식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탄하고 세계 평화와 민족화합,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원탑' 점등식이 4월 11일 전주 공설운동장 광장에서 봉행됐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금산사 주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천태종, 보문종, 용화종, 진각종 등 전북지역의 주요종단을 대표한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각급 신행단체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전북불교발전과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작법 시연과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의 축하공연의 식전행사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찬불가, 점등 선언문 낭독, 점등 축원, 봉축 불꽃놀이, 탑돌이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공설운동장 광장에 세워진 봉축기원등은 보물25호 금산사 5층석탑을 모델로 특별히 제작되어 LED 등으로 장식됐다.

도광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밝힌 기원탑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밝히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며 "전북불자들의 원력과 정진의 메아리가 사바의 무명을 소멸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공설운동장에 점등된 금산사 5층석탑등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는 주제로 한 달간의 봉축행사에 돌입한 전북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4월 19일 전북 어린이 큰잔치, 4월 20일 전북불교합창제, 4월 23일 35향토사단 연등제, 5월 3일에는 호국 장영사 연등제 등을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어려운 이웃위해 자비손길을"

임제불교조계종 창종 7주년 기념 위안잔치 개최



임제불교 조계종(종정 지암)이 창종 7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임제불교 조계종은 4월 13일 여수 청암사에서는 지암 스님, 향덕 스님(대중불교조계종 종정), 보현 스님(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나용수 총신도회장, 이낙연 국회의원, 주철현 청암사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300여명이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기념을 축하했다.

종정 지암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그 동안 종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큰 뜻을 알아, 지역사회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1부 법요식에 이어 발원문, 보현행원(청암사 합창단), 고불문(이미경 신도회), 경과보고(김도연 신도회), 장학금 전달청암사 신도장학금 및 장애인 장학금 전달, 환영사, 격려사, 축사, 법어가 개최됐다. 2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 및 점심공양이 진행됐다.

한편 임제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청암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비롯해 매월 광주소년원과 전주소년원에 1대1일 맨토링을 통해 30여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도 신흥사, 평화의종 타종식 '이채'

14일 한중일 사찰 연계 순회 타종, 8일에는 정책토론회도



한반도의 남쪽 끝 완도 신흥사가 한중일 3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작은 행사를 개최했다. 완도 신흥사는 4월 14일 경내에서 한 · 중 · 일 3국 평화의 종(장보고 범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평화의 종 타종식은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한중일 3국 우호촉진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한국의 완도 신흥사, 중국의 산동 적산법화원, 일본의 야마가타 입석사 세 곳 사찰에서 2009년 자매결연을 맺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평화의 종은 2008년 일본 입석사에서 장보고 대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 당나라 유학(적산 법화원)을 다녀온 일본 엔닌 스님의 유덕을 기리는 행사에 시작했다. 당시 입석사는 1200년 만에 한중일 3국 인사를 초대해 성대하게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에는 장보고 대사의 고향인 완도 신흥사에서 '평화의 종(장보고 범종)' 을 제작해 첫 타종행사를 열기도 했다.

평화의 종 타종식 10주년인 2017년에는 4월 14일 일본 야마가타 입석사에서 3국 사찰 관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타종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신흥사가 설립한 (사)완도문화21-장보고아카데미는 4월 8일 완도 교육지원청에서 6 · 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전남지역 불교계 최초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 화엄사 '화엄선재학당' 개설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는 4월 14일 화엄사 법음료에서 화엄선재학당을 개강했다. 화엄선재학당은 구례 지역주민들의 체계적 불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불교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포교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는 지역주민들과 신도 등 50여 명이 참가하여 불교입문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지 영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농촌지역이라 신도교육에 어려움이 많지만 강의를 이끌어나가는 법사 스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을 받는 신도들과 지역민들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립하고, 신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격려했다.

화엄사 선재학당은 4월 15일 개강하여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7월 5일 1기 수료생을 배출한다. 화엄사는 "하반기에 2기 교육을 개설하여 내년에는 종단의 정규신도교육과정으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리불교대학 수계법회 및 입학식 개최

익산지역의 유일한 신도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의 입학식과 수계법회가 4월 11일 봉행됐다.

익산 관음사 큰 법당에서 열린 수계식과 입학식에는 학장 덕림 스님과 김진수 부학장, 이택희 익산불교신도연합회장, 박순자 관음사 신도회장, 최학성 전 능인회장을 비롯한 불자 10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불자로 태어난 신입 학인들을 축하했다.

지난 3월부터 6주간에 걸쳐 기초교리, 사찰예절 등 조계종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32명의 신입생들은 이날 덕림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받고 입학식을 봉행했다.

학장 덕림 스님은 "불교는 자기를 낮추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며 "오늘 불교대학을 입학하고 오계를 수지한 공덕으로 부처님의 큰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라불교대학은 지난 1982년 설립된 이래 1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포교로 참 행복 찾고 싶어요”

부산·울산 포교사 1차 합격생, 통도사서 연수



제19회 포교사 자격고시 1차 합격자 중앙연수’ 입재식이 4월 1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부처님의 불법을 익히고 전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 · 울산경남지역단의 예비합격자들이 포교사로서의 첫걸음을 뗐다. 제19회 포교사 자격고시 1차 합격자 중앙연수’ 입재식이 4월 12일 통도사(주지 원산) 설법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산과 울산의 포교사 예비 합격자 300여 명이 참석해 1박 2일의 연수를 받았다.

지난 2월 조계종이 주관하는 포교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4개월의 연수와 마지막 단계인 면접을 7월 말에 앞두고 있다. 연수기간에는 교육참여 여부 등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를 받으며, 8월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9월 포교사의 자격을 공표하는 품수식이 거행된다.

이번 행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동안 조계종 포교사단 예비 포교사 연수가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시행되었으나, 올해 부산 ·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배려해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통도사에서의 교육은 ‘조계종단의 이해’, ‘불교의식 이해 · 집전’, ‘불교복지론’ 등 불교의 주요 이론과 더불어 포교 발원문 작성, 108배 등의 수행으로 포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졌으며 공식 일정 외 예비 포교사들의 자발적인 철야정진기도가 이뤄졌다.

주지 원산 스님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 포교사 여러분은 포교 이전에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느끼는 생로병사의 문제는 어떠한 부귀영화와 학식으로도 해결할

지역 포교사 배려 별도 진행
불교복지론 강의 · 철야정진 등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아는 것만이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도 왕자의 신분, 학식 등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버리시고 출가하셨다. 여러분들께서도 외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는 포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계는 윤리이다. 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인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니, 계를 항상 유념하고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또한, 불교 인연은 연기법이다. 1차 시험을 통과하고 통도사에서 교육받는 것도 전부 여러분이 열심히 수학한 결과이다. 시간, 신심을 내어 포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좋은 인연과 좋은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고 축원했다.

예비 포교사 서유정(48)씨는 “포교사가 되는 길은 행복한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 자식, 남편 등 일상 속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재능보시를 할 수 있는 포교사의 활동으로 참다운 행복을 찾고 싶다. 더불어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안내자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송언(68)씨도 “포교사는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나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행복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종 포교사의 자격을 획득한 이들은 지역 내에서 각자 원하는 팀을 선정 포교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병원, 사찰, 교정시설, 병원, 노인복지 시설 등 부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청소년 포교, 문화 재능보시, 봉사, 염불 등 다양한 분야로 불법을 전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범어사 보제루 금강계단 현판식

600여 불자 수계법회도


범어사 금강계단 현판식이 4월 13일 보제루에서 열렸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 보제루의 금강계단 현판이 새롭게 걸렸다. 범어사는 4월 1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범어사 율원장 수진 스님, 범어사 한주 무비 스님 등 20여 대덕 스님들과 6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범어사의 보제루는 1700년대에 세워진 누각으로 일제 강점기에 개방형의 보제루가 일본식 사찰형태로 변형된 것을 안타까워한 故동산스님이 1964년에 부분 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2010년에는 단층형태를 누각으로 변경하는 불사가 진행됐으며, 작년 7월 모든 불사를 성만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범어사 보제루는 석계쪽으로 범어사 현판이, 중전쪽으로는 보제루와 금강계단의 현판이 걸려 있었으나 금강계단의 현판이 보제루의 크기에 비해 왜소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현판식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 금강계단의 현판인 동산스님의 글씨를 확대하고, 과거 해체한 보제루 대들보의 판재에 이를 새겨 현 금강계단의 현판을 완성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600여명의 불자들을 위한 보살계가 거행돼 경건하면서도 뜨거운 수계법회가 금강계단에서 펼쳐졌다.

김나영 객원기자

“맑은 눈으로 한반도 통일 기원”

해동 용궁사 남북평화통일 천일기도 입재


남북평화통일 천일기도 입재 법문 장면

부산의 대표적인 수상법당인 기장 해동용궁사(주지 정암)가 제58회 용왕대제 및 남북 통일기원대법회를 4월 14일에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여수 향일암 주지 우석 스님 등 20여명의 대덕 스님과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 남북통일기원문 낭독을 통해 나라와 불자의 평안을 발원했다.

적천사 주지 남륜 스님은 기원문에서 “국제사회는 냉혹하고 잔인하다. 타국의 아픈 상처를 등한시하고 비인류적인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로서 과거를 버리고 맑은 눈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주지 정암 스님은 “용왕기도가 올해로 58회째를 맞았다. 또한, 이렇게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모두 부처님과 신도님들 덕분이다. 과거 사찰 운영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용궁사 불자들을 위한 포교의 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오늘 이 법석에 서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은 “용궁사는 아무나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용왕님이 초청해야 가능하다. 염불, 참선, 수행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대덕 스님들이 오늘 한 법석에 모이셨다. 앞으로도 용궁사의 발전과 더불어 신도님들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첫회를 맞은 남북평화통일 천일기도는 2017년 1월에 회향하게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영덕 사암聯 ‘행복한 문화예술 한마당’

4월 15일 영덕군민회관서


행복한 문화예술 한마당 축제 모습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담)는 4월 15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지역 사암사찰 주지 스님과 지역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덕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한마당’ 봄꽃향기 오감제 축제행사를 가졌다.

회장 현담 스님은 “영덕불교사암연합회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처음 봉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영덕 폐사지 불적답사와 불교현황’ 자료집을 펴내 의미를 더했다.

스님은 “1500여 년의 지역 불교역사를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사찰이 창건되어 폐사되고 또한 이어온 현존의 사찰들의 자료을 기록 정리한 ‘영덕 폐사지 불적답사와 불교현황’이란 자료 책자를 보여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륜사 법성 스님은 “평등공존 동체대비사상과 화쟁 상생 화합사상을 본받아 영덕불교의 꿈을 이루기 의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식순에 따라 식전 행사로 범음 범패로 바라춤, 나비춤, 연꽃춤이 선보였고, 봉축법요식이 끝난후 이어 부대행사로 폐사지기와 전시회, 연꽃컵등 및 단주 만들기 시연도 있었다.

2부에는, 문화예술 한마당으로 색소폰연주, 성악, 해금, 클래식기타, 아코디언 등과 함께 한 즐거운 가요무대로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고종 대구경북 통합종무원사 개원

종무원장 이취임식도 진행


태고종 대구 경북 통합종무원사 개원식

태고종 대구경북 통합종무원사 개원식이 4월 11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대구경북종무원에서 봉행됐다. 1부에서는 부처님 이운 점안과 종사 이운이 제2부 취임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교구를 이번에 통합하면서 관정 스님이 대구경북 종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종무원장 관정 스님은 환영 취임사에서 “소통과 화합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북교구 종무원이 재탄생했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무심사 무심선원 수륙용왕대재

달성군 무심사 무심선원(선원장 무심)은 4월 13일 제 7회 낙동강 방생 및 수륙용왕대 대법회를 열었다.

세원사 회주 천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한 이 행사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천우 스님은 “수륙용왕재는 물에나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귀에게 법식을 공양하는 의식으로 무주고혼 영가천도에 동참하는 분은 무량공덕 지어 가정 편안하고 세세생생 안락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업장 씻고 극락왕생하소서”

삼광사 부처님오신날 기념 점등식


4월 13일 열린 삼광사 영가 점등식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등 점등식을 4월 13일 삼광사 극락전 앞에서 봉행했다.

극락왕생 염원과 함께 ‘아미타불’을 일제히 염송한 삼광사 스님들과 500여명의 불자들은 점등한 영가등을 보며 선조의 영가는 물론 호국을 위해 희생된 영가의 넋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가 수호와 평화를 발원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부처님은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해와 달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은 물론 선조들의 공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선망부모 조상님들이 지었던 모든 업장을 오늘 소멸하여 선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법문을 전했다. 삼광사 교무 형선 스님은 “오늘 삼광사 사부대중의 지극한 효심으로 밝히는 영가등으로 순국선열, 잉아영가, 전쟁과 기아로 죽은 영가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극락의 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발원문을 낭독했으며, 주지 무원 스님과 불자들은 극락전에서 탑돌이를 하며 점등식 회향을 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변산이 품은 벚꽃터널, 상춘객 유혹

벚꽃이 아름다운 사찰 - ③ 부안 개암사

이화우 흩날릴 제/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매창의 이화우(梨花雨)중에서

조선시대 3대 기생이자 부안 출신의 여류시인인 매창이 연인 유희경을 떠나보내며 지었다는 '이화우(梨花雨)'는 비가 오는 것처럼 떨어지는 배꽃과 꽃비를 말한다. 비록 배꽃은 아니지만 전북 부안의 개암사를 찾아가는 길에는 이화우와 버금가는 봄꽃의 여왕인 벚꽃 터널을 만날 수 있다. 운이 좋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기라도 한다면 봄꽃비도 구경할 수 있다.

엄동설한에도 꽃을 피운다는 매화는 절개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쉽게 구경하기 힘들고 연분홍 진달래나 철쭉은 산에 가야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봄만 되면 활짝 피어 화사함을 선사해 주는 벚꽃은 집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 친근감을 더해준다.

개암사 벚꽃 길을 제대로 즐기려면 자동차를 버려야 한다. 꽃비 내리는 벚꽃터널을 걸으며 수많은 선비들의 마음을 녹이던 매창의 시 한수 읊으며 걷는 것 또한 개암사 가는 길의 색다른 운치며 재미다. 용이 휘감은 일주문 기둥을 뒤로하고 개암사 경

634년 백제 왕사 묘련이 창건한 고찰
'개암' 이름은 우금바위 전설과 관련
'마음여행' 주제로한 템플스테이 인기

내에 들어서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100여 그루의 울창한 전나무 숲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연초록 녹차밭 풍경에 눈이 호강이다. 새로 쌓은 석축 사이 돌 층층대를 오르면 매창을 닮은 붉은 매화가 반겨준다. 이 매화는 부안현감을 지낸 이규가 중국 황제 앞에서의 시전에서 이겨 하사품으로 받은 것이라 한다.

개암사는 634년(무왕 35) 백제의 왕사 묘련이 창건한 고찰이다. 사찰 이름을 '개암(開巖)' 이라 부르게 된 배경은 뒷산 정상의 웅장한 '우금바위(또는 우금암)' 의 전설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마한의 효왕 28년에 변한 문왕이 진한과 마한의 난을 피해 이곳에 도성을 쌓을 때, 우(禹)와 진(陳)의 두 장사를 보내어 감독하게 하고 좌우 계곡에 왕궁전각을 짓게 했는데, 동쪽을 묘암(妙巖), 서쪽을 개암(開巖)이라 부른데서 비롯됐다.

즉 우금바위에 천연석굴이 있어 그 바위를 개암이라 불렀는데, 바위 모습이 멀리서 보면 크게 둘로 이루어진 듯해 '바위가 열린 상태' 라는 의미에서 '개암' 이라 칭했다는 구전도 있다.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망하자 도침 스님과 무왕의 조카 복신이 일본에 있던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유민을 규합해 백제 부흥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주류성지로 추정되는 곳도 바로 우금바위아래 우금굴산성이다.

삼국통일 후에는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우금바위아래 우금굴서 정진하며 암자를 중수했는데 지금도 원효방으로 불린다. 진표율사가 개암사 부속암자인 '부사의방장(不思議方丈)' 서 참선 득도한 기록도 있다. 진표율사는 개암사에서 전수한 이래 불가에서 민간요법으로 전수돼 오는 개암죽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고려때는 원감국사가 황금전을 중심으로 해 동쪽에는 청련각, 남쪽에는 청허루, 북쪽에는 팔상전, 서쪽에는 응진당과 명부전을 지었으며, 총 30여 동의 건물을 세워 〈능가경〉을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을 교화해 이곳 산의 이름을 '능가산' 이라 부르게 되었다. 단아한 정취를 자아내는 소박한 사찰 개암사에는 보물이 있다.

길이 14m, 폭 9m의 영산회괘불탱이다. 이것은 조선 영조 25년(1749년) 승려화가 의겸 등이 영축산서 설법하는 석가모니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물 제1269호로 지정돼 있다. 개암사 대웅보전 뒤 울금바위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항전한 백제군의 지휘본부가 있던 곳이며 울금바위를 중심으로 뻗은 울금산성에서 백제 유민들이 항전을 했다고 전해진다. 내소사로 들어가는 길에 아름드리 전나무가 있다면 개암사로 들어가는 길은 단풍나무가 지키고 있어 봄 뿐만 아니라 가을에 찾으면 아름다운 풍광에 저절로 탄식이 나올 정도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개암사 예찬론자들이 많다. 대표적인이가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다. 유 前 청장은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서 "나라면, 개암사에 살고 싶다. 적막함이 무척 마음에 든다. 그 곳에서라면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닌 원래의 내가 될 수 있고, 나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적고 있다. 개암사는 템플스테이 사찰로도 유명하다. 원효스님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소통과 나눔, 휴식과 치유가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마음 여행' 이라는 주제로 우금암 트레킹과 마음나누기, 소금 만다라, 차 명상, 녹차밭 포행, 찻잎따기, 전차 만들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년 전 개암사를 처음 찾았을 때나 지금이나 개암사는 적막했다. 사방을 둘러봐도 고요다. 적멸 그 자체다. 단촐한 전각, 마당 한 켠에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홍매화 한그루. 커다란 석축계단을 오르면 제일먼저 맞는 대웅보전. 뒷산이 치밀어 올린 두개의 울금바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속세의 찌든 때가 저절로 녹아든다. 절을 내려오는 길에 벚꽃의 풍광을 보니 정극인의 '상춘곡' 이 귓가에 스친다.

"세상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옛 사람들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미칠까 못미칠까?/세상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만한 사람이 많건마는/ 왜 그들은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몇 간쯤 되는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지어 놓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부안 개암사=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개암사 가는길은 2.5km구간에 700여본의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등 최절정의 만개상태를 보여준다.


길이 14m, 폭 9m의 영산회괘불탱이다.


634년 백제왕사 묘련이 창건한 고찰 개암사 전경

개암사 주지 재안스님
"수행과 나눔 도량으로 일굴터"



"개암사는 원효, 의상, 진표 율사같은 고승대덕들이 수행한 도량입니다. 원효 스님이 진정한 화쟁 사상을 실천했듯이 사찰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이 주지로 처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수행 풍토를 정착시킨일이다. 2012년 하루 5천배씩 200일간 100만배 절 수행을 회향했다. 10여년 전 서울 봉은사 소임을 볼 때에 이어 두 번째 100만배 수행이다.

스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막지 않습니다. 서로 탁마 정진하면 누구라도 훌륭한 도반이 될 수 있지요" 재안 스님은 복지 포교에도 관심이 많다. 얼마전 조계종의 '아름다운 동행' 에 아프리카 학교 기금으로 1천만원을 후원했다. 풍족해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스님은 그동안 보시한 쌀만해도 8,000kg이 넘는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여행수첩

〈교통편〉

¡ **자가용** 서해안고속도로-부안나들목-고창방면 23번 국도 9.3km-봉은삼거리(개암사 진입로 표지판 우회전 2.3km)- 개암사

¡ **대중교통** 서울에서 고속버스 이용-부안시외버스 터미널 하차-부안에서 상서, 줄포, 곰소, 또는 격포, 내소사행 군내버스를 이용, 개암사서 하차

〈가볼만한 곳〉

¡ **채석강=**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됐다. 면적 12만 7372㎡이다. 부안군 변산반도 맨 서쪽, 격포항 오른쪽 닭이봉 밑에 있다. 옛 수운의 근거지이며 조선시대에는 전라우수영 관하의 격포진이 있던 곳이다.

〈맛집〉

민속바지락죽(변산온천 입구, 063-583-9763), 송포횟집(변산해수욕장, 생선회, 063-581-8877), 당산마루(부안읍내, 참뽕기능성 한정식, 백합죽, 063-581-3040)등이 있다.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불탑 조성은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니라”

탑의 진화

⑨ 미얀마의 불탑 (2) 바간의 불탑


〈사진1〉
세계 3대불교유적지의 하나인 바간의 불탑들.

만달레이 서남쪽에 소재한 바간(Bagan)은 한 때 약 450만개 이상의 불탑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고려 말에 몽고족인 원나라에 의하여 전 국토가 황폐했듯이 불탑신앙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바간도 몽고군의 말발굽에 짓밟혀 지금은 약 2,000여기의 불탑만이 한적한 시골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인도네시아의 보로보두루와 더불어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칭송 받는 바간의 불탑〈사진1〉들은 그 규모와 수량 면에서 신앙적 가치뿐 아니라 예술사적, 건축사적으로도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단한 불사는 오로지 숭고한 불심만이 가능한 것이며, 불심의 연원은 조탑의 공덕에 대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불설조탑공덕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실 때, 많은 보살들과 하늘의 왕들이 함께 모시고 있었다. 그때에 대범천왕, 나라연천(那羅延天), 대자재천(大自在天) 그리고 다섯 건달바왕이 각기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에게 탑을 조성하는 방법과 그 공덕이 얼마나 큰가를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만일 현재의 이 하늘 무리들이나 미래 세상의 일체중생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탑을 세우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마친 후에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고, 거기에서 수명이 다하면 5정거천(5淨居天 : 불환과를 증득한 성인이 나는 하늘.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의 다섯 하늘)에 태어나서 모든 하늘과 더불어 평등하게 된다.” 라고 설하시며, 표찰(表刹:탑 정상부에 세운 당간)과 윤개(輪蓋)의 크기에 있어서는 하늘에 이르거나 대천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크게 하던 바늘크기나 대추 나뭇잎과 같이 적게 하던 그 공덕은 똑같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그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나 머리털, 치아, 수염, 손톱, 발톱을 봉안할 것이며, 그것이 없으면 최소한 사구게(四句偈)만이라도 탑 속에 봉안하면 그 사람의 공덕은 범천과 같다고 설하시며, 만일 어떤 중생이 이러한 인연의 뜻을 깨달아 불탑을 조성하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 (〈대정신수대장경〉 16권 801쪽 상단) 라고 하여 전 세계의 모든 불교인들은 시대를 넘나들며 크고 작은 다양하고도 많은 불탑을 조성하는 이유가 되었다. 바로 바간이란 불교성지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 부터는 2회에 걸쳐 현존하는 바간의 수 천 개의 불탑 중 몇 기를 소개 하고자 한다.

바간, 과거 450만개 불탑 조성
몽고군에 의해 2000개만 남아
신앙적 · 예술적 · 건축적 불가사의
조탑 공덕에 대한 가르침 결과로
숭고한 불심만이 할 수 있는 불사
쉐지곤…미얀마 불탑의 모델
‘아난다 불탑’ 아난다존자와 관계없어

1) 쉐지곤(Shwe Zigon)불탑

쉐지곤은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된 불탑이다.〈사진2〉 이 쉐지곤 불탑의 조형성은 미얀마의 수많은 불탑의 모델이 되었으며, 아노리타(1044-1077) 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미얀마 전통 민속신앙의 37명의 낫(nat:정령)이 안치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쉐지곤이란 돌에 새겨진 문자에 의하면, ‘승리의 땅’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불심이 깊었던 아노리타 왕과 짠시타 왕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그 이후 1557년 바인나웅 왕이 탑에 황금색을 칠하고 1768년 신퓨신 왕이 티(hti ; 불탑 정상의 우산모양)를 다시 조성하여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불탑의 구조는 사각의 기단위에 종 모양의 탑신을 하고 있는데, 각 기단 중앙에는 탑에 오르는 계단이 하나씩 있으며, 기단에는 부처님의 전생담을 조각한 장식판이 붙어 있다. 3층 기단 각 모서리에는 쉐지곤 탑을 축소한 모양을 조성하였으며, 계단 밑에는 ‘마녹띠하’ 라고 불리는 상을 조성해 놓았다.

이 마녹띠하는 사람의 상체 하나에 사자의 하체 둘을 합한 것으로 다리가 여섯 개이며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기단 위에는 8각형의 단이 있어 상부의 원형 탑신을 사각의 기단과 연결하는 자연스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탑신은 연꽃잎으로 장식하여 마치 연화좌에 부처님을 모신 느낌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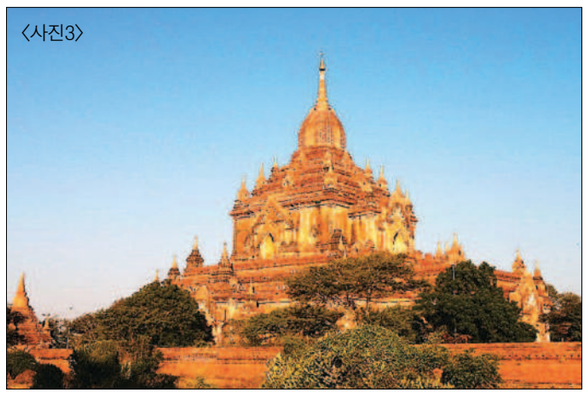
이 탑의 기단 안에는 작은 법당이 있는데 과거 사불을 모시고 있다. 이 중에 1102년에 굽타양식으로 조성된 서쪽의 청동불은 왼손은 설법인을 오른손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을 하고 있는 독특한 수인의 불상이다.

2) 티로민로(Htilominlo)불탑

과거 바간족의 나라파티시투 왕에게는 5명의 왕자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막내였던 나다웅미아(1211-1234)가 똑똑해서 왕은 그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었다. 고민 끝에 왕은 다섯 명의 왕자를 불러놓고 둥글게 세운 뒤 양산을 가운데 세워놓고 중앙에 서서 말하였다. “이 양산이 쓰러지는 방향에 서 있는 왕자가 나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막내를 향하여 살짝 힘을 주고 밀어서 양산을 향하게 하였다. 왕의 뜻대로 막내왕자가 왕위를 자연스럽게 계승하게 되었으며 그에게는 ‘양산이 선택한 사람’ , ‘왕이 선택한 사람’ 이라는 뜻의 ‘티로민로’ 왕 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티로민로 왕은 훗날 그 자리에 불탑을 조성하여 부왕에 대한 그리움과 효성을 표현한 것이 오늘날 티로민로불탑〈사진3〉인 것이다.

이 탑은 기단은 정사각형으로 하층 한 변의 길이가 43m이며, 탑의 최고 높이는 46m나 되는 대형의 불탑이다. 탑의 내부는 예불을 모실 수 있는 법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방불을 모시고 있다.


〈사진2〉
쉐지곤은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된 불탑이다.


〈사진3〉
티로민로왕이 불탑을 조성하여 부왕에 대한 그리움과 효성을 표현한 것이 오늘날 티로민로불탑이다.

3) 옹아-빠다웅(Nga-Kywe-Nadaung)불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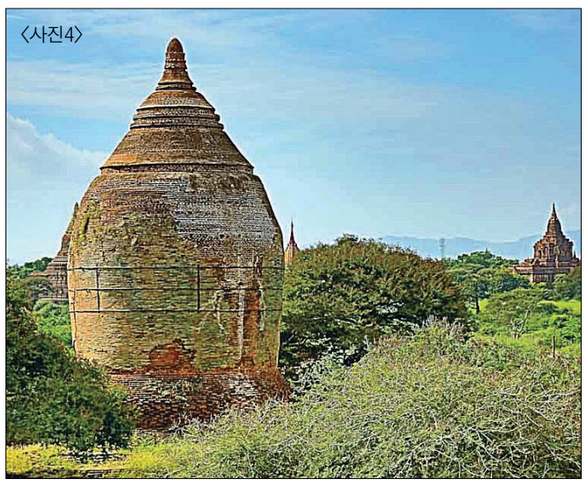
바간의 수 많은 불탑 중에 마치 우리나라의 석종형 승탑을 연상케 하는 것이 옹아-빠다웅불탑〈사진4〉이다. 이 탑의 명칭은 ‘옹아-빠의 귀걸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옹아-빠는 힘이 센 바간의 전설적인 장사였다.

벽돌을 재료로 하여 조성된 전탑으로 상부는 지진으로 붕괴 된 것을 최근에 복원하였으며, 1975년 대지진으로 탑신에 균열이 발생하여 쇠줄로 둘러 지탱하고 있어 참배객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불탑이다.

4) 아난다(Ananda)불탑

황금색으로 빛나는 아난다불탑(사진5)은 바간에서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신앙의 성지로 유명하다.

전설에 의하면, 키얀시타(Kyanzittha)왕(1084-1113)의 궁전에 8명의 수행자가 방문하였다. 그들은 수미산위의 간다마나(Gandhamadana)에서 온 수행자들이었다. 그 곳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은 하였지만 설법은 하지 못하는 벽지불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기다리는 곳이다. 불심이 너무나도 돈독했던 왕은 그들을 위하여 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원을 지어주고 3개월 동안 음식을 공양하였다. 어느 날 키얀시타왕은 그들에게 간다마다나에 있는 ‘난다물라’ 동굴을 구경하고 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은 왕에게 난다물라 동굴을 짓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왕이 그 방법대로 조성한 것이 ‘난다’ 라는 불탑이었다. 18세기 이전에는 난다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아난다’ 불탑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다문제일 아난다존자와는 관련이 없는 명칭인 것이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불탑을 건립한 왕은 조성방법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명의 수행자들을 모두 살해하였다는 비극적인 전설도 전하고 있다.


〈사진4〉
우리나라의 석종형 승탑을 연상케 하는 것이 옹아-빠다웅불탑이다.


〈사진5〉
황금색으로 빛나는 아난다불탑은 바간에서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신앙의 성지로 유명하다.

이 불탑은 한 변의 길이가 53m나 되는 정사각형의 기단 구조이지만 각 기단 중앙에 길이가 18m나 되는 출입구의 통로가 있어 위에서 보면 ‘아(亞)’ 자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탑의 총 높이는 53m로 내부에는 동쪽 구나함모니불, 서쪽 석가모니불, 남쪽 가섭불, 북쪽 구류손불의 과거 4불을 모시고 있다. 이 불상들은 높이가 약 9.5m로 모두가 입불상으로 구류손불과 가섭불은 탑을 조성 할 당시에 함께 봉안한 목조불에 금을 칠한 것으로 설법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구나함모니불과 석가모니불은 화재로 소실 된 것을 콘바웅 왕조 때 다시 조성하여 봉안 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구나함불의 수인이다. 오른손 엄지와 중지 사이에 알약을 상징하는 구슬을 쥐고 있어 다른 불상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수인을 하고 있다.

이 불탑의 조형적 특징 중 하나는 탑신에 수많은 감실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 감실 안에는 많은 불상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과 생애를 표현 한 조각상들이 들어 있다. 부처님의 생애만을 표현하는데 80개의 감실을 활용할 정도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교화적인 면은 물론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호에는 바간의 불탑 중 대표라 할 수 있는 쉐산도 불탑을 위시하여 바고에 있는 짜익티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글 · 우인보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에서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부처님의 위대한 실체, 인간 영혼체의 비밀, 무아론의 바른 이해, 불보살이 되는 수행법을 **영산불교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체계적 교과과정,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깊고 방대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수준 높은 불자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입학을 통해 교학과 신심, 그리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2014년도 영산불교대학 5기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1 · 2 · 3 · 4학년 각반 150명 선착순 모집
■ 입학자격 : 제한없음. 처음 입학하시는 분은 1학년만 입학가능.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순서로 매년 승반
■ 수업일정 : 2014년 5월 24일 ~ 2014년 11월 30일
월 2회 – 격주 토요일 (4시간 강의)
■ 입학일시 : 2014년 5월 24일 10시
■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392
■ 교육과목

1학년	부처님의 생애, 신불교사상, 칭명염불수행법, 금강경사경, 불교예절, 찬불가, 특강
2학년	지장경, 천수경, 반야사상, 정토학, 신불교학개론, 찬불가, 특강
3학년	법화경, 아함경, 열반경, 금강경, 세계종교비교 I , 특강
4학년	보현사상, 문수사상, 신불교학과 철학, 세계종교비교 II , 특강

입학처 및 연락처

대전분원 : 042)525-5325, 042)525-5345
춘천본사 : 033)243-1787
고성분원 : 033)681-5515
제주도 제2본산 : 064)783-5355
서 울 분 원 : 02)453-5953
부산분원 : 051)554-5150
대구분원 : 053)654-5557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조선인이 운영하는 禪房 만들자”… 민족불교 발현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⑧ 만해 스님과 선학원

서울 종로 안국동 40번지 선학원 중앙선원. 선학원 중앙선원 건물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습만 달라졌을 뿐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현재는 법인법을 놓고 조계종과 마찰 중에 있지만, 근현대 선지식들 대부분이 선학원 이사장을 지냈을 정도로 선학원은 한국불교사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다.

선학원은 1921년 5월 15일 서울 간동포교당(諫洞布敎堂) 보살계 계단에서 설립의 서막을 열었고, 그해 8월 10일 기공을 거쳐 4개월 뒤인 11월 30일 준공됐다.

선학원이 건립되기까지 만해 스님의 역할은 컸다. 만해 스님과 선학원의 관계는 선학원의 직접적인 창설배경이기도 한 임제종 운동부터 짚어봐야 한다.

1910년 10월 6일 굴욕적인 한일불교협약인 ‘조동종 맹약’이 조선의 원종과 일본의 조동종 승려 사이에서 체결되고, 다음 달인 11월 6일 이 맹약에 반대하며 임제종 운동이 전개됐다. 맹약의 핵심은 당시 한국불교계의 대표기관인 원종(圓宗)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일본 조동종의 고문을 위촉하고, 조동종의 한국 포교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는 “조동종무원이 필요하여 조선에 포교사를 파견할 때는 조동종무원이 지정하는 사찰을 숙소로 정하여 포교 및 교육에 종사케 할 것”이라는 굴욕적인 조항도 있었다.

만해 스님은 훗날 임제종 운동에 대해 “조선불교의 부흥을 도모할 때 원종(圓宗)의 맹약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단을 별도로 세워야 원종을 자멸케 함이 첩경이라는 견지에서 조선 고유의 임제종을 창립했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장악하기 위해 사찰령 반포를 앞두고 있었던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1912년 서울 대사동의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간판은 철거됐고, 만해 스님은 경성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제종 운동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지키고자 했던 스님들의 노력은 선학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남전(1868~1936)·도봉(1873~1949)·석두(1882~1954)스님이 설립자금을 모았고, 임제종운동에 참여했던 만해·용성·만공 스님 등은 설립이념을 민족불교의 확립과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뒀다.

만해 스님은 선학원 설립 이듬해 쇠락한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키고자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에도 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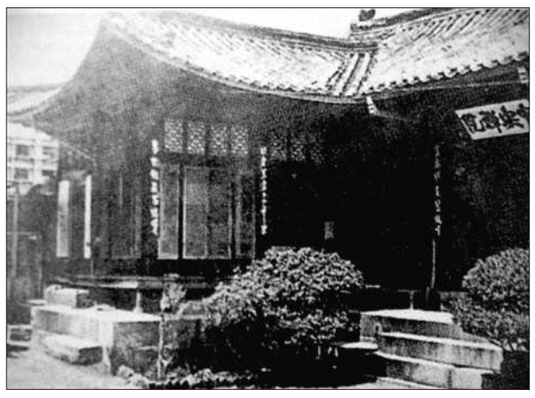
선종의 부활과 자립 활로를 위해 설립된 선우공제회는 1922년에 문을 열었다. 본부를 안국동 선학원에 두고 서무부, 재무부, 수도부의 3부를 중앙에 두고, 백양사, 마하연, 정혜사 등 각 사찰에 지부를 두어 유대를 긴밀하도록 했다. 당시 만해 스님은 수도부(修道部) 이사소임을 맡기도 했다.

참고로 1924년 무렵 선우공제회의 통상회원이 203명과 특별회원 162명을 합하여 전체 365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었던 것을 보면 초기의 공제회는 그 창립취지와 운영의 투명성으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불과 1~2년 만에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재정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은 당시 불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교단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불교 안위와 결부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1910년대 임제종 운동 씨앗으로
1921년 안국동에 선학원 창립
“제대로 된 韓불교 만들자” 주장
만해, 선우공제회 이사 역임 기여
선학원 설립조사 7인 영정 봉안







1973년 중창된 현재 선학원 중앙선원의 전경<사진 위>과 초기 선학원의 모습<사진 아래 왼쪽> 그리고 수좌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선우공제회의 발기문<사진 아래 오르쪽>. 만해 스님은 선학원과 선우공제회 창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같이 만해 스님은 선학원 태동부터 건립 이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선학원 2층 법당을 가면 알 수 있다. 이곳에는 7명의 설립조사와 1명의 중흥조가 모셔져 있다. 바로 만해 용운(萬海龍雲, 1879~1944), 만공 월면(滿空月面 1871~1946), 성월 일전(惺月一全, 1866~1943), 도봉 본연(道峯本然, 1873~1949), 남전 한규(南泉翰奎, 1868~1936), 석두 보택(石頭寶澤, 1882~1954), 용성 진종(龍城震鍾, 1864~1940), 초부 적음(草夫寂音, 1900~1961)이다.

이 같은 선지식들이 한데 모여 선학원을 만든 배경에는 민족불교의 기치를 바로 세우는 것 이외에도 한국불교의 선(禪)을 바로 잡기 위함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불교의 선 수행의 상황은 만해 스님의 논저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에서 적나라하게 찾을 수 있다.

“지금에 이르러 참선을 한다는 자 10인을 놓고 볼진대 진정한 선인(禪人)은 불과 1인이며, 입과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2인, 나머지 7인은 모두 밥 먹기 위해 앉아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멋도 모르고 졸고 있는 자가 대부분이다.”

보리심을 구할 강원도 마찬가지였다. 최기정의 묘사에 따르면 1920년 당시 전통강원은 용맹정진의 치열한 구도의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한 학인들만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곳으로 전락했다.

지금이라고 전문 강원(講院)이 없는 것은 아니요, 땔감을 지고 스승을 좇는 학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강당이라는 그 곳에는 쓸쓸하고 적막하기가 찬바람 부는 빈들과 같이 아무 화기애애한 맛을 발견할 수 없이 그저 기계적인 것 같으며, 강학을 하는 학인들도 아무 용기 없이 그저 두 어깨가 처지고 마치 도살장에 들어온 소처럼 낙오의 한숨만으로 일종의 밥을 구걸하는 나그네요, 낭만적이고 이름만으로 허송세월하려는 것은 통계수자가 증명하는 바이다.

당시 불교계의 혼란한 상황에서 선학원의 창건상량문(創建上樑文)도 “세상의 이치와 인심(人心)이 점차 복잡하여 교리와 종지의 선전이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각종교가 번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불자들이 책임감을 절감하고 금강심(金剛心)의 서원을 함께 세운지 수 십 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고 했다.

선학원의 설립조사들이 사찰령에 예속되지 않은 기관을 설립하고자 한 것은 수좌들의 수행과 그 결집으로 선풍진작과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이었고, 그 결실은 궁극적으로 민족불교의 회복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구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선학원 설립의 취지와 이념아래 만공 스님은 소위 일본 중처럼 변질되지 않고 ‘우리만의 선방(禪房)’ 마련을 천명했고, 성월 스님은 1912년 서울 인사동의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헐어 약간의 목재와 기와를 보탰다. 여기에 남전·도봉·석두 스님이 막대한 정재(淨財)를 출연하였다. 당시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의 부인 구지월화(具智月華)를 비롯하여 왕실의 상궁나인들까지도 기꺼이 안주머니를 털었다.

선학원의 탄생 배경에 대해 오경후 선학원 선리연구원 상임연구원은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가 풀린 이후 거의 20여 년의 시기 동안 한국 불교계에 불어 닥친 질곡의 산물”이라며 “설립의 직접적인 취지는 “사찰령과는 관계없는 순전히 조선사람끼리만 운영하는 선방(禪房)을 하나 따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의 설립은 이 시기동안 진행됐던 일본의 한국불교 지배와 일본화, 한국불교의 친일화에 대항하여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민족불교의 정체성을 천명했던 임제종운동의 계승이었고, 한국불교 지배를 위한 사찰령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만해 스님은 유심사(唯心社)를 얻기까지 백담사와 선학원에서 번갈아 가며 주석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이 회동서관에서 간행되었을 때는 선학원의 6대 이사장 석주 정일 스님이 인쇄부터 책 만드는 일까지 도와드렸다고 전한다.

또한 1926년에 만해 스님은 6.10만세운동으로 선학원 근처에 잠복해 있던 일본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인산일(因山日,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일제의 억압과 탄압이 날로 심해지자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민족진영과 공산사회주의자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독립만세 시위운동이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힌 학생 수는 서울에서 210여 명이었고,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나 되었다.

6·10만세운동에 자극받아 1927년 국내에 있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공산주의자 간의 타협에 의해 반일민족유일당운동 단체가 바로 신간회(新幹會)다. 만해 스님은 신간회 창립 당시 중앙집행위원이 되었고, 7월 10일에는 경성지회장에 임명되었다.

석주 스님은 “신간회는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합법적인 사회정치단체였지만, 결사체(結社體)로서 항상 일제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만해 스님의 경성지회장 시절 선학원에서 회의를 많이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선학원은 한국불교를 있게 한 주춧돌이었고, 이에 대한 토대를 만든 것은 만해 스님을 비롯한 근현대 선지식들이었다. 법인관리 감독과 사찰 재산권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는 후학들을 보면 선지식들은 뭐라 하실지 돌아볼 일이다.

신성민 기자

마하연 투어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 대만 불광사 공승제 4박 5일
1,190,000 출발 8월 16일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5일
1,090,000 5월 28일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6일
1,390,000 5월 9일, 23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899,000 6월 7일, 11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간 헤호) 5일
1,490,000 5월 28일, 6월 11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290,000 ~ 6월 4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990,000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듯하다 ②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인 듯. 그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 따로 없는 거이. 경계라는 건 말이죠. 산하대지인 듯이지 만약 산하대지가 듯이 아니고 진짜라면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전부터 계속해서 허공으로 더불어서 죽 변하지 않아야 듯 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고. 물론 그 자체가 허공성이고 하니까 산하대지인 듯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이도 난 듯, 늙은 듯, 젊은 듯. 죽는 듯 이거 아니에요? 전부 지금 듯 판에 노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듯 여러분이 설법 듣는 듯. 이거 아니에요?

이 듯을 참으로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단이 나. 야단이 야단 난 듯이지 참은 아니거든. 야단이 영원히 계속은 아니거든. 야단하다가 없어지면 그대로 잊어버려. 딴 생각을 해. 그거 전부 듯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전부 허공성이고. 그러면은 경계인 듯 성품인 듯. 경계 역시 허공성. 성품 역시 허공성. 내가 있음으로서 경계도 인정이 되는 거라 말이죠. 또 그 경계의 그 자체로 봐서 전부 허공성이거든. 그래서 헛 거 나툰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뚱이도 헛거 나툰 거라 말이죠. 그러면 이 놈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성에서 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성에서.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의 심성에서 말이여. 전성체, 온전 전자. 성품 성자. 전성체에서 비로소 유정무정이 갈라진 것이거든. 그러나 이 유정물들은 슬기가 있어. 전기, 저건 슬기가 없어.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여. 우리도 지금 슬기 없는 것 가지고 있거든요. 이 머리털 이거 슬기 없거든요. 손톱이니 살이니 이거 성품 없으니 슬기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걸 내가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향해서 유정물이라 할 따름이지 실에 있어서는 이거 슬기 없는 거예요. 성품 없는 거예요.

성품이 있어야 비로소 슬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법하는 듯 하지만은 말이죠. 그건 듯밖에는 안되고 또 내가 살아 있는 듯 하지만 전부 듯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듯 속에 우리가 놀고 있어요. 듯. 그러나 그 듯은 우리말로 듯입니다. 이 듯을 우리가 모를 따름입니다. 이걸 참말로 알아서 여기서 생사결판이 나는 거라.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계와 성품이 어떻지요? 둘인가 하나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 마음 씀씀이 역시 그것도 허공성이고 이것도 한 번 가져 보는 듯 하는 거예요. 진리란 것이 바로 캐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습놀이만 하던 우리의 분으로 봐서는 처음에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을 겁니다. 본래부터 나오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 나온 분들은 처음 들을 겁니다. 전부 듯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는 듯, 밥을 짓는 듯,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듯. 전부 듯 아니에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루어서 사는 듯.

> **허공은 하나이니 진리가 하나**
> **우리 몸뚱이도 헛것 나툰 것**
> **살림살이 이루어서 사는 듯**
> **'듯 속에' 놀고 있다**
>
> **몸 밖 아닌 내면에서**
> **진짜를 찾아야**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가정을 이룩하는 것도 듯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도 듯이고 또 이 듯을 안 해서는 안 되지. 전부 듯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어느 놈이 진짜입니까? 전부 듯이니 말이지. 그러니 전부 듯이니 우리는 진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건 두 말할 것 없이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지 내 몸 밖을 향해서 찾을 곳이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거든요. 그러니 진리가 하나 아니에요? 이거 참 묘한 겁니다. 허공은 하나이니 진리가 하나에요. 진리가 하나이니 지(자기) 배가 고프면 지가 먹어야 돼.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까지 배가 고프지는 않아. 내가 배가 부른데 다른 사람까지 배가 부르지는 않거든. 전부 지 개인이라. 또 그리고 가족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를 포함한 가족이지 나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 나중에 갈 때는 지 혼자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듯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전부다 관련성이 있지. 사실은 있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듯에 지나지 못한 거여. 그러하니 모든 것이, 차별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체 만법 일체 사실이 어느 것이 멀고 가까운 인연관계에 있어서, 요샛말로 현실이라 합니다. 또 현실이라 해도 맞지. 그와 같이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 야단하지만은 사실에 있어서 전부 듯이에요. 어느 것 듯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하니 여러분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답을 해야 비로소 견성을 완전히 하게 됩니다. 확답 못하면 견성 안 됩니다. 좀 시일이 걸립니다. 경계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아니라 말이여. 따로 없다. 어째 그러냐.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째 그 돌하고 나하고 성품이 한 가지냐. 이거 의심나지 않습니까? 의심나니까 이걸 하나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 공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통 다른 공부하고는 달라서 어디까지라도 하나의 진리를 그대로 파헤치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를 파헤쳐 놓으면 그 까짓 거, 생사니 복이니 뭣이니 전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오랫동안 모습놀이하던 습성이 있어 놓으니 좀체 이 말이 곧이 안 들립니다. 아마 듯에 있어서는 다소 납득이 갈 겁니다. 생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해결이 될 겁니까? 왜 그러느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한 뭣을 하더라도 나중에 털털 털고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그렇습니다.

절대 날 믿어야 됩니다. 날 믿으라는 건 내 육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믿는 겁니다. 물론 내 성품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이니까 물론 믿겠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무아미타불… 깨친이에게 귀의"

8. 십념(十念)

南無阿彌陀佛

우리는 참회하는 진언을 읊었다. 이제 다음은 나무아미타불 하는 아주 큰 구호를 외우는 일이다. 아미타불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성인을 모셔 놓고 이 도량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무(南無)는 돌아가 의지하는 것. 아(阿)는 없다는 부정사, 미타(彌陀)는 커다란 생명, 이를 번역하면, 수량(壽量), 또는 자비와 사랑의 빛이라는 뜻으로는 광량(光量)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아미타(阿彌陀)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목숨, 무량수(無量壽)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빛, 무량광(無量光)이라고 하게 된다. 이렇듯 번역이 두 갈래로 벌어져 어렵게 되므로 그냥 아미타라고 칭하는 것이다. 불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① 자기가 깨치고 ② 남을 깨치도록 하고 ③ 깨친 바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친 행동을 구경까지 밀고 나가 실천하고 ④ 동시에 남에게 실천하기를 권하고 요구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란 헤아릴 바 없는 대 생명을 깨친 이에게 우리가 돌아가 귀의한다. 또는 헤아릴 수 없는 대 자비를 베푼 부처님에게 돌아간다는 뜻이 된다.

이것을 주문이라 해도 좋고 명호라고 해도 괜찮다. 원래 주문은 간단한 것이다. 이 여섯자는 간단하지만 그 속에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헤아릴 수 없는 대 생명, 헤아릴 수 없는 대 사랑을 베푼 그 어른에게 돌아 간다는 것은 현대어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리가 될까?

대 사회관(大社會觀)을 깨쳐서 이를 철두 철미하게 자각하고 추궁하여 대 사회적인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이다. 자그마한 개아(個我), 에고에 급급하지 않고, 구차스런 타산에 얽매어 허덕거리는 생활을 청산하고, 대 사회에 뛰어들어 이를 직접 호흡하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성취토록 하려는 그러한 대 인격(大人格)을 실현한 그 분 한테로 돌아가 의지하겠다 하는 소리가 된다.

이러한 대 사회관, 대 사회성(大社會性), 대 사회적(大社會的)인 행동이라는 어휘에서 거창한 이상주의(理想主義)를 연상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러한 어떤 특정한 관념형태(觀念形態)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결국 '나는 사람이다' 하는 인격(人格)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대 사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느끼고 보은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은 보은 감사를 표현한 말이다. 인간으로서 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행위이며, 이제부터는 떳떳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말이 된다. 간단한 말이지만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를 사람이라고 알아 주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며 지금은 하나의 인간이 사회에 대하여, 전 우주에 대하여 인격을 선언하는 엄숙한 순간인 것이다.

> **은혜 느끼고 보은한다는**
> **뜻을 가진 '나무아미타불'**
> **이는 스스로 사람이라는**
> **것을 자각하는 행위이며**
> **떳떳이 사람 노릇하고**
> **살아야겠다는 진언이다**

흔히 선종(禪宗)에서 몰지각한 사람들 중에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고 염불하는 것을 근기가 약한 것으로 치고 우둔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참선(參禪)을 할줄 몰라 그러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모르는 소리다. 염불만하면 살부모(殺父母)와 같은 중죄(重罪)를 저질렀더라도 다 사죄(赦罪)가 되는 것이며,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 열 번만 뇌이면 극락세계(極樂世界)로 간다고 하니 그야말로 미련한 사람 꾀는 소리라고 헐뜯어 말들을 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정토문(淨土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나무아미타불의 뜻도 교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비방만 일삼는 무리다. 가령 그들 말대로 오역죄(五逆罪)를 짓고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인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 때 그때야말로 참회가 있고, 반성을 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생기는 때가 아닐까 보냐. 끝내 무지 몽매하고 몰지각(沒知覺)하여 영원히 무명(無明)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내는 것보다는 제아무리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것을 죄악이라고 깨닫고 반성한 나머지 나는 이제 한번 사람 노릇을 하고 죽어가야겠다고 외친다면 이보다 더 대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제불(諸佛)의 본원(本願)이고 또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인 것이다.

아주 간단한 구호로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나는 사람이오' '이제부터는 사람 노릇을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깨닫고 한 시도 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나무(귀의)한다. 감사한다. 보은한다.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대지의 은혜를 받았다. 태양의 열과 온기를 받았다. 수분과 산소와 생명에 유익한 뭇 영양을 섭취하였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하물며 곡식과 옷과 일용품(日用品) 주택 문화시설 등 비록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서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은혜를 느낄 줄 알고 사회에 보답하고 보은(報恩)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정상적인 자리로 찾아든 것임을 깨닫는다. 이런 모든 생각이 나무아미타불에는 들어 있다.

우리들 수행자(修行者)들이 생활하는 이 도량(道場)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인간으로서의 대사(大事)도 결정하였다. 그 대사인즉은 나무아미타불이며 이는 대 사회의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생명을 깨친 그 자리에 귀의한다는 것이며, 대사회의 생명을 깨치고 실천한 대인격자에게 귀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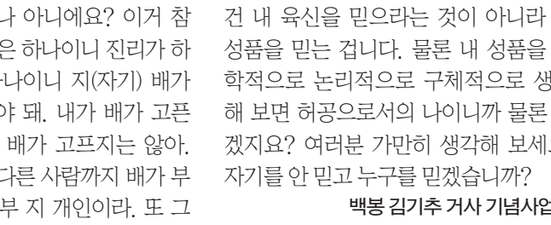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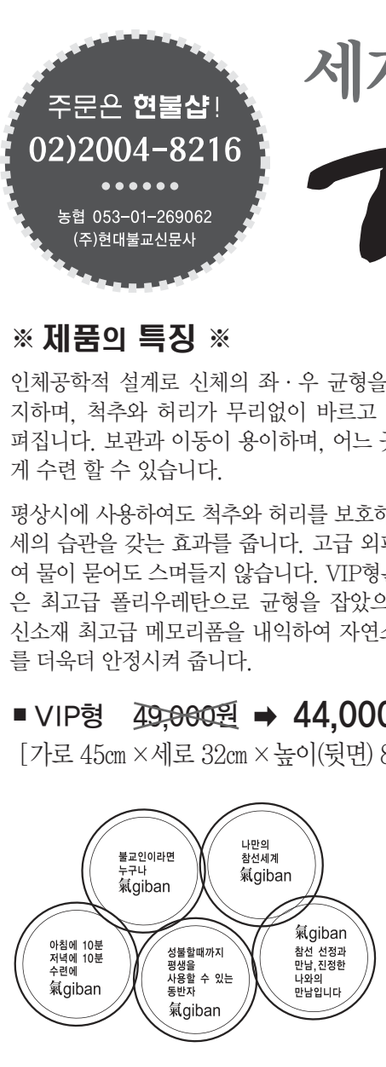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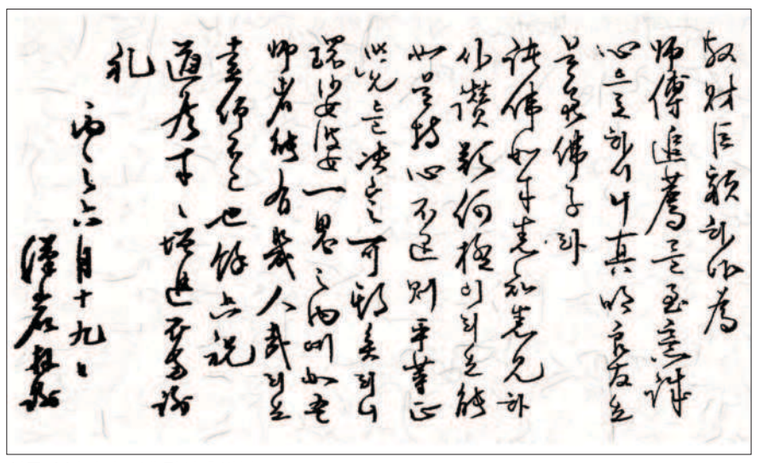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3〉

절친한 도반에게도 '배사' 인사말 써

拜謝



석주 스님에게 보낸 답서 후반부

석주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편지를 받은 지 몇 일이 지났습니다.

법체가 항상 만강(萬康)하시기를 빌고 또 빕니다. 병승(病僧, 謙稱으로 한암선사 자신을 가리킴)은 그럭저럭 지냅니다.

스님이 (은사스님 천도기도를 해 달라고) 보낸 돈 50원은 잘 받았습니다. 즉시 11일부터 날마다 한 번씩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축원했으며, 17일 날에 회향시식을 하고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이 말엽 오탁악세(五濁惡世)에도 스승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가 없지는 않지만, 스님은 이와 같이 거액을 들여 스승(남전스님)의 천도를 지극 성심으로 하시니, 참으로 밝고 어진 벗이요, 선불자(善佛子)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여래가 다 알고 다 보시니, 어찌 말로 다 찬탄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道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평등정각(平等正覺)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 안에서 우리 석주스님과 같은 이가 능히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멀리서 우러러 마지않습니다. 오로지 법체가 내내 증진(增進)하기를 빕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합니다.

병자(1936년) 6월 19일
한암 배사(拜謝)

이 편지는 한암선사께서 서울 칠보사 석주(昔珠, 입적) 스님에게 답한 편지로, 1936년 병자년(丙子年) 음력 6월 19일에 보낸 것이다.

석주스님의 은사는 근대 선승인 남전(南泉, 1868-1936) 스님이다. 남전스님은 선학원을 창건한 주역으로 일찍이 해인사 주지도 역임(1904년)한 분이다. 보기 드문 선필(禪筆)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남아 있는 글씨는 몇 점 되지 않는다. 1936년 4월 28일 서울 선학원에서 입적했다.

석주스님은 은사스님이 입적하자 왕생극락을 위하여 한암선사께 돈 50원을 보내 천도기도와 함께 상원사 대중들에게 공양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암선사는 "돈은 잘 받았고 그 즉시 11일부터 17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축원했으며, 시식(施食), 회향을 한 뒤 대중공양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암선사는 석주스님에게 "이 사바세계에 우리 석주스님과 같은 이가 능히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 하여 은사스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孝誠)을 칭찬하고 있다. 모든 부처님과 여래가 다 알고 다 보시니 장래 반드시 평등정각(平等正覺)을 이룰 것이라고 수기(授記)하고 있다.

당시 돈 50원이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거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꽤 큰 금액이었던 것 같다. 1930년대 논 한마지기가 50원 정도였고, 보통학교 교사 한달 월급이 50원이었다고 한다. 오늘날 경제 개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돈이 귀한 당시, 산사(山寺)에서는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는 스승에 대한 석주스님의 정성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다.

석주스님은 범어사 출신으로 서울 칠보사 조실로 계셨다. 한암선사의 애제자(愛弟子) 탄허스님과는 절친한 도반이었다. 말하자면 제자의 도반에게 답하는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한암 배사(拜謝, 절하고 올림)'라는 인사말을 쓰고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불교중흥, 불교 인재 양성은 내 인생의 마지막 발원"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본각선교원 원장)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본각선교원 원장 · 72)는 '불교중흥'과 '거사불교활성화'를 노후의 원력으로 세운 원로 법학자다. 그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초대 회장이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멤버로 활약하며 불교의 청년화 · 지성화에 기여해왔다.

정의감이 넘치는 성격의 고 교수는 젊은 시절 군사독재에 맞서 동아방송 필화사건에 참여, 투옥까지 경험했다. 이후 그는 법학을 공부했고, 경기대학교 교수가 돼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면서 국사찾기협의회 3대 회장,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 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주적인 국가 세우기에 주력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기 마련인데, 고 교수는 누구보다도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기자의 이러한 의문에 고 교수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과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 지금 여기 사는 게 중요하다. 부처님은 무분별의 삶을 강조했다. 나도 매 순간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고준환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불사에 전념하길 발원하고, 2009년 정년퇴임 후 사재를 털어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학교인 '본각선교원(本覺禪敎院)'을 세워 불교중흥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 청년 · 대중화 운동 참여

고준환 교수는 경기 화성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교적 가풍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 친구와 함께 성경공부도 하고 부흥회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지만, 목사는 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의구심 많은 소년이었다.

유달리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도교, 유고, 불교, 기독교, 이슬람, 민족종교 등 여러 종교를 공부했다.

대학 1학년 시절, 고 교수는 청담 스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법문을 듣고 감화돼 불교에 귀의했고, 서울대 법과대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법불회가 등장하고 초대 대불련 회장을 역임한 신호철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불교가 청년화, 대중화, 지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활약을 했던 홍도 스님(일명 방울 스님)을 찾아가 의논한 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고준환 교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선지식은 탄허스님이었다. 고 교수는 청룡사, 대원암, 학하리 등에서 탄허 스님을 뵙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서울 청룡사에 스님이 주석 할 때에는 화엄경 · 장자 강의를 들었다. 그때에는 법불회 동기인 박준수, 전창열, 명호근, 김문웅, 김춘오 등과 함께 저녁마다 법회에 참석해 탄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환희심을 느꼈다.

"그 시절에 스님이 불교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신 것, 노장과 유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특히 장자 소요유라든가,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 화엄경의 사사무애 중중무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서울 법대 시절 청담·탄허·홍도 스님 영향
서울대 법불회 참여…대불련 창립멤버활동

동아일보 기자시절 군사독재에 맞서기도
한국교불련 초대회장으로 불교지성화 기여

국사찾기 · 민주통일운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
민족의 뿌리 정립 위한 저서 20여권 출간

2011년 본각선교원 열고 불교대중화 발원
불자마을 세우기 위해 철원에 토지 마련

탄허 스님은 1975년 화엄경을 번역해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했다. 고 교수는 스님에게 〈신화엄경합론〉 한 질을 받았다. 탄허 스님은 고 교수에게 '군자유삼락이왕천하불여존언(君子有三樂而王天下不與存焉)'이라는 글을 함께 내려주었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에서 왕이 되는 것 따위는 그 세 가지 즐거움에는 없다. '세 가지 즐거움[三樂]'의 첫째는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無故)한 것이며, 둘째는 우러러 하늘에 부그럽지 않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며,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자와 이 유묵을 집안의 가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심외무불(心外無佛)이라고 스님이 쓰신 액자도 보관하고 있어요. 스님은 사람들에게 책을 잘 주지 않았어요. 저를 주신 것이 제가 학자의 가능성이 있고, 저의 미래를 내다보시고서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평소에 스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평생 학생부군의 체질이고, 학문적인 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탄허 스님의 수준에서는 멍텅구리 수준이지만."

그칠 줄 모르는 나라사랑 · 불교사랑

대학 졸업 후 고준환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10년간 언론인으로 생활했다. 평소 민족주의, 민주적인 것이 나라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오던 그는 투옥까지 경험했다.

"당시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글을 쓰지 않고 던져주는 것만을 갖고 기사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기사도 역사의 기록이라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고 취재를 해서 썼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국회의원 79명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빌미로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에 보도해서 입건 구속됐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있다가 미결수로 나왔어요. 제가 그 무죄를 입증하는 데 8년이나 걸렸어요. 이런 이력이 있어서 해직이 되고, 언론투쟁을 할 때에 보니 기독교, 천주교 등은 사회봉사도 하고 독재정권과 맞서고 있는 활동이 많았어요. 그러나 불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좌천돼 동아방송 PD를 맡고 있던 고 교수는 법정 스님을 초대해 방송하는 등 노력했다.

"일부러 법정 스님을 인터뷰해서 제가 자주 뵈었습니



고준환 교수는 2011년 본각선교원을 개원하고 응용불교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본각선교원에서 수업을 듣고있는 불자들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다. 동아일보사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 130여 명이 있었지만 불자는 별로 없었는데, 저는 스님들과 친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불교적 입장이 뚜렷해서 모든 사람이 저는 불자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불교도 보살도의 입장에서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게 당연히 도와서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북돋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준환 교수는 1974년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가담하고 기자노조 설립을 주도한 죄목으로 해직을 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고 교수는 졸업 후 10년 만에 다시 전공서적을 펴고 공부를 시작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에 임용돼 안정적인 길을 걷게 됐다. 30여 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고준환 교수의 나라사랑과 불교사랑은 그칠 줄 몰랐다.

중국의 동북공정 음모가 한 · 중 두 나라 간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던 2004년, 고준환 교수는 재야사학자들의 모임인 국사찾기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상징하는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과 삼랑성, 김해시 허왕후릉 파사석탑 등을 국보 승격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펼쳤다.

고 교수는 "중국의 중화사상이 기승을 부리고 국내 강단사학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역사는 해방 후 근세사로 국한될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고대 유물유적을 국보 · 세계문화유산화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의 뿌리를 확실히 함으로써 자주적인 역사를 정립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불교 인재양성 발원

탄허 스님은 평소 인재양성에 대해 강조했다. 고 교수는 "스님은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고 보셨다. 그리고 지하에서 뜨거운 것이 융기해 동쪽과 남쪽은 내려가고, 서쪽은 융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통일이 돼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럴려면 그런 장래를 대비해야 하고, 나라를 이끌고 나가면서 세계를 지도할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탄허 스님의 뜻에 그의 역사 · 인생관을 보태 2011년 본각선교원을 설립했다. 시각(始覺)이 본각(本覺)이라는 뜻의 본각선교원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 이란 전제 아래 부처님의 마음인 선(禪)과 말씀인 교(敎)를 동시에 가르친다. 금강경과 선어록에 기초한 불교교리와 함께 '불교와 예술' '마음과 수학' 등 응용불교학 강의를 매일 진행해왔다.

최근 서울 구로로 사무실을 옮긴 고 교수는 정천구 교수(영산대 전 총장), 유종민 교수(중앙대 전 예술대학장), 정대구 전 영산대 교수, 김선형 인천대 석좌 교수 등 제반 학문의 원로 교수불자들과 새로운 커리큘럼을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다.

또한 탄허 스님 열반 30주년을 맞아 스님의 뜻에 작은 정성을 바쳐 〈누가 불두(佛頭)에 황금똥 쌌나〉를 발간했다.

"우주는 본각이고, 불이중도며, 열반이며, 적멸이고 부처이니, 중생이 본각으로 살아가려면, 신해행증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각은 중생을 떠난 적이 없고, 새롭게 깨달은 시각(始覺)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닌 본각이요, 구경각이었던 것입니다. 중생이 선교일치(禪敎一致)로 크게 깨달아 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 성불하는 일이 인류의 영원한 희망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로 이 책을 현대에 맞게 저술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의 책이 개안종사들에겐 쓸데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저어되지만, 진리에의 갈증 있는 분에게 목마름을 채우는 한 바가지 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월 신장에 이상이 생겨 한쪽을 떼어 내는 수술을 한 고 교수는 다시 한 번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평소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죽음에 직면하니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 꿈이 언젠간 이루어지길 발원할 뿐입니다. 본각선교원 대학원 대학이라든가, 불자마을 같은 것을 세우려는 꿈이요. 이미 저는 1994년에 이런 것을 하려고 철원에 3만 8천 평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감에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택해 정진하다 보면 단박 깨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불교중흥, 나아가 세계일화 평화세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항상 원대한 꿈을 갖고 종횡무진하는 고준환 교수. 고은 시인은 이런 그에게 '고준환' 이란 제목의 시(詩)를 지었다. 시에는 고준환 교수가 어떤 인물인지 잘 드러나 있다.

"기자보다/ 학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사람/ 장대키 자랑스러웠지/ 장대키 그것보다/ 그 성량 풍부한 목소리 자랑스러웠지/ 이마 넓다가/ 정수리에 홍시 하나 천도복숭아 하나/ 학자의 길보다 종교의 길 가기 시작한 사람/ 그의 법학 그의 뒷모습에는 술과 여자 따위 없지/ 차 한잔 대접받고/일어서는 나그네이기 십상/ 그의 몸속의 원융세계/ 그의 머릿속 학문/ 아마도 다 내보이지 않고/ 그냥 떠날 사람"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고준환 교수는 … 서울대 법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 대학원 석 • 박사를 졸업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발기인이며, 동아일보사 기자, 동아방송 PD를 역임했다. 동아방송 필화사건으로 투옥했으며, 동아일보사 기자노조 창립 발기인으로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했다. 동아일보사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해직 후,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을 맡았다. 경남대 교수, 경기대 법정대학장, 조지워싱턴대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황우석교수살리기국민운동본부장, 국사찾기협의회 회장,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 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본각선교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하나되는 한국사〉 〈대한근현대사 실록 칠금산〉 〈덫에 걸린 황우석〉 〈붉은 악마 원조 치우천황〉 〈성경엔 없다〉 등 20여 권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법일기

간부 포교는 군포교 연속성 보장

한번은 공군의 후배 법사님이 찾아와 '학생군사학교' 법사님이냐고 물으며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법사님에게 감사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의아하더군요.

그 법사님에게 들으니 치통이 있어 병원에 가니 군의관이 일어나더니 스님이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합장을 하며 '성불하십시오' 하더랍니다.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합장하며 인사를 하니 왠지 뿌듯하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인사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고 했더니 학생군사학교 법사님이 그랬다고 하여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군의관은 불자로서 항상 신심을 가지고 장병 진료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자를 양성하는 곳은 누가봐도 군대입니다. 짧게는 5주에서 16주 가량 훈련을 받으며 매주 법회에 참석하면 저절로 불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포교에서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도 불자로 양성합니다. 임관하기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기에 종교는 큰 힘이 됩니다.

학생군사학교 법사 시절을 되돌아보면 매주 200명 이상의 군의관 후보생들이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군의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고급 자원을 모아놓고 법회를 열어 불자로 만들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 임관 초기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원력으로 뭉쳐 법회를 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불자간부들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불자이거나 종교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으면 법회를 보는 것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신의 종교만을 고집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부대장을 만나면 포교활동이 지장을 받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가 중요합니다. 군법사들은 정기적으로 부대를 옮겨 다닙니다. 인사이동의 명에 의해 정든 부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옮겨다니다 보니 불사를 비롯해, 임기 동안 진행해온 포교프로그램들의 연속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사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어받아 한층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이 없어져 새롭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법당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간인 성직자나 해당부대의 불자간부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포교활동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당에 법사가 부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법회를 보고 신행활동을 영위한다면 군포교가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동료 법사님들이나 후배 법사님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명이라도 더 부처님 법을 접하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군에 불교 군종제도가 도입된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일반불자들을 보면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저조합니다.

한국의 성인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해 일정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종교활동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부들에 대한 포교도 한층 더 높일 차례입니다. 군승법사, 민간인 성직자들과 함께 한명의 포교사로서 간부들이 사병들을 이끌고, 보다 많은 사병들이 군법당에서 부처님 법을 접하고 불자로 거듭나는 그 날을 기원해 봅니다.



그림 · 박구원

간부 군포교 영향력 커
민간 성직자 · 간부 연계해야
불자들 군포교에 대한 관심 절실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티베트 고대 불서, 현대 언어로 번역한다

종사르 켄체 스님의 '백년 프로젝트' 순항 중

23만 1,800여 쪽에 달하는 티베트 고대 불서를 영어 등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백년 프로젝트 – 84,000' 가 순항하고 있다고 〈The Star〉 지가 보도했다.

〈The Star〉 지에 따르면 '백년 프로젝트' 는 지난 2010년 1월 히말라야 불교계를 대표하는 드종살 켄체(Dzongsar Khyentse) 스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오는 2110년까지 티베트 대장경을 비롯해 고대 불서를 번역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요 티베트 장경을 선정, 우선 영어로 번역하는 한편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시범 운영하며 번역 성과물을 공유한다. 이후 2035년까지 티베트 대장경을 영어로 완역한 후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을 정비해 '디지털 도서관' 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2110년까지는 원전과 1차 영어 번역본을 근간으로 현존하는 언어로 옮긴다.

"현재 '백년 프로젝트' 에는 15개국 153명의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고 〈The Star〉 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종사르 켄체 스님은 "현대 문명에서 티베트 불교의 정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며 '백년 프로젝트'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탄 불교의 주요 학승이자, 불교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진 종사르 켄체 스님은 이를 위해 옥스퍼드대학, 베이징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순회 특강을 진행하며 관련 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직접 메가폰을 잡았던 '컵' (The Cup · 1999), '여행자들과 마법사들' (Travellers and Magicians、2003), '바라–축복' (Vara: A Blessing、2013) 등의 불교영화 수익금 전액을 '백년 프로젝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세 편의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년 프로젝트' 의 실무 책임자인 황 징 루이(Huang Jing Lui) 박사는 "역사적으로 역경 사업은 불교 부흥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티베트 장경의 5% 정도만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뿐" 이라고 진행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0년 1월 착수… 100년 작업
15개국 153명 학자 번역 동참

황 징 루이 박사에 따르면 '백년 프로젝트' 는 티베트 대장경의 경?율장에 해당하는 까규르(Kangyur)와 논장에 해당하는 땐규르(Tengyur)를 비롯해 티베트 고대 불서를 포괄하고 있다.

〈The Star〉 지는 황 징 루이 박사의 말을 인용, "이중 때규르에는 고대 인도와 티베트의 불교 학자들이 철학、과학 등을 주제로 기술한 4,000여 편의 논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관련 학계의 사유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평가했다.

또한 〈The Star〉 지는 " '백년 프로젝트' 에서 먼저 주목하고 있는 티베트 장경을 비롯한 고대 불서는 560여 종" 이라며 "현재 153명의 관련 학자들이 영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에 능숙하다고는 하지만, 각각의 장경과 불서에 담겨있는 의미에 찬 사유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녹녹하지 않다" 고 전했다.

"고대의 사유를 올곧게 번역할 수 있는 이들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 학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는 종사르 켄체 스님은 "번역할 때 적합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어렵다" 며 "다양한 관점과 방향에서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잘 훈련된 학자들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백년 프로젝트' 의 번역에 참여하고 있는 줄리아 스텐젤(Julia Stenzel)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학자들 모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며 "티베트 불교의 자랑거리는 현재까지 잘 보관되어 내려온 방대한 분량의 대장경" 이라며 "이를 현대의 언어로 옮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큰 즐거움" 이라고 말했다. 줄리아 스텐젤 박사는 현재 〈허공장보살경(Ākāśagarbha-bodhisattva-sūtra)〉 을 번역하고 있다.

'백년 프로젝트 – 84,000' 의 번역 성과는 'http://84000.co/' 에 접속, 온라인으로 살필 수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고대 불서를 영어 등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백년 프로젝트–84,000' 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백년 프로젝트' 홈페이지.

종교차별 항의 소송에서 불교 학생 승소

美 루이지애나 네그릿 학교 불교도 학생에 기독교 강권

기독교 신앙을 강권하던 루이지애나의 한 학교에서 불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부모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언론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는 최근 "기독교를 강권하던 네그릿 학교에 항의하던 학부모에게 학교 측은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했다" 며 "법원은 학생이 다른 학교로 통학하느라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에 대한 위자료로 4천달러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앞으로의 통학비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보도했다.

문제는 태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는 태국계 미국인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시작됐다.

네그릿 학교 라타 로아크 교사는 "세상이 6천년전 신에 의해 창조 됐고, 성경 말씀은 모두 올바르므로 진화설은 잘못된 것" 이라고 가르쳤으며, "ㅇㅇ이 창조한 것들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라고 시험문제를 내기도 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주님' 이었는데 문제 학생이 이 답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는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태국계 학생을 비하했다. 학생의 부모는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학교 측은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근처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했다.


기독교 신앙을 강권하던 루이지애나의 한 학교에서 불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부모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승소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은 종교 활동을 장려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 △종교 서적을 읽어오라고 과제를 내지 말 것 △종교 교육을 목표로 삼을 수 없음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서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지 말 것 등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

루이지애나 ACLU의 책임자는 "어떤 어린이 지도 교사가 신앙을 강요한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며 "이 합의 사항들은 해당 지역 학교에서 더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세계 최대 황금 불상 탄생

중국에서 순금을 323㎏이나 사용해 만든 세계 최대 황금 마주신 불상이 탄생했다.

4월 13일(현지시각)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동남부 푸젠성 푸톈시 앞바다 메이저우섬에 있는 마주사찰은 지난 11일 새로 만든 황금 마주신 불상에 대한 첫 공양의식을 가졌다. 이날 공개된 마주신 불상 제작에는 순금 323㎏이 들어갔으며 높이만 3.23m에 달한다. 불상은 중국 본토와 대만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278일에 걸친 주조 작업 끝에 완성했다. 불상을 만드는 데는 1억686만위안(약 180억원)이 들었다. 순금으로 만든 마주신 불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마주신은 중국 동남부 연해 지역의 항해를 관장하는 전설상의 여신이다. 마주사찰은 마주신을 모시는 총본산으로, 마주신 신도들에게는 '성지' 로 불린다.

이나은 기자


중국에서 순금을 323㎏이나 사용해 만든 세계 최대 황금 마주신 불상(사진)이 탄생했다.

와이오밍주 사로잡은 '아님 툽텐 스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과 명상 지도에 쑥 빠졌어요"

미국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Jackson Hole)의 벽안 불자들이 티베트 스님의 법문과 명상에 쑥 빠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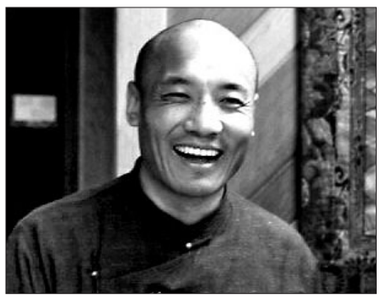
〈USA〉 지는 "아남 툽텐(Anam Thubten) 스님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과 명상 지도가 잭슨 홀 지역 주민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며 "스님이 주석하는 다르마타 재단(Dharmata Foundation)에 벽안 불자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명상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다르마타 재단의 설립자이자 12년 전부터 잭슨 홀 지역의 청장년 불자들의 신심을 다져온 아남 툽텐 스님은 올해로 7회를 맞는 '잭슨 홀 대중 법회' 의 증명법사로 나서, 오는 5월 초순까지 매 주말마다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아남 툽텐 스님은 잭슨 홀 지역의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스님" 이라는 '잭슨 홀 대중 법회' 의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루이스 레이슬리(Louise Lasley) 씨는 "그 이유로 이 지역의 청장년 불자들과 십여 년 넘게 교류해 왔다는 점도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스님의 가르침이 '간결' 하고 '명쾌' 하다는 데서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다.

〈USA〉 지에 따르면, 아남 툽텐 스님은 아이다호 주에서도 매년 지역 불자들의 주목을 한껏 받는 대중 법회를 기획, 진행해 오고 있다.

〈USA〉 지는 루이스 레이슬리 씨의 말을 인용, "와이오밍 주보다 앞서 열리는 아이다호 주의 대중 법회에는 '잭슨 홀' 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청장년 불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는 데 주목하고, "잭슨 홀의 청장년 불자 층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남 툽텐 스님의 오랜 '노력' 과 탁월한 '대중 친화력' 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잭슨 홀' 의 빼어난 자연 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영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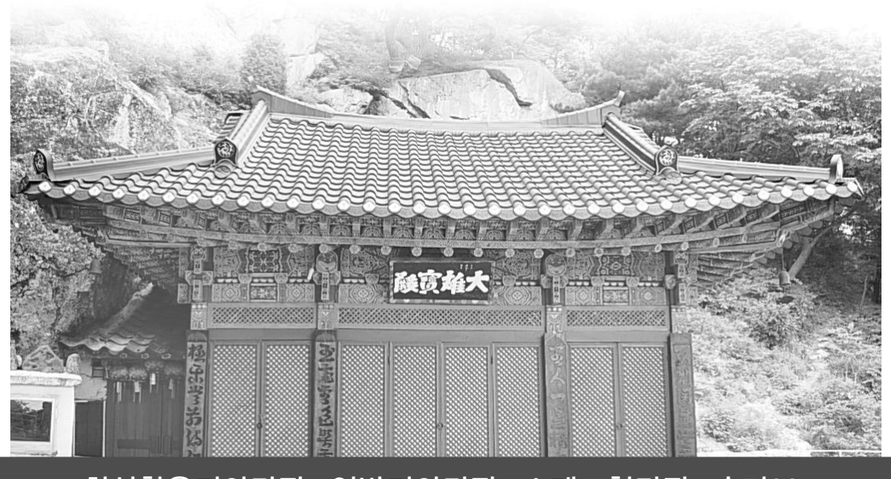

아남 툽텐 스님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이 미국 와이오밍의 벽안 불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로키 산맥의 산간 지대에 앉아 있는 '잭슨 홀' 은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관광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의 로케 현장이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쾌적한 날씨로 인기가 높아 명사들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USA〉 지는 지난 2007년부터 아남 툽텐 스님의 대중 법회에 참여해 온 프랭크 컬(Frank Curl) 씨의 말은 인용, "지난해 말 잭슨 홀에 신축된 '올드 윌슨 스쿨 커뮤니티 센터(Old Wilson Schoolhouse Community Center, 이하 '올드 윌슨 스쿨')' 의 역할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 전했다.

올드 윌슨 스쿨은 잭슨 홀 불자들의 서원이 모여 신축된 불교 센터로, 이곳에서는 아남 툽텐 스님의 명상 프로그램과 수련회가 상시 진행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존에 없는 특허기술이 접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 불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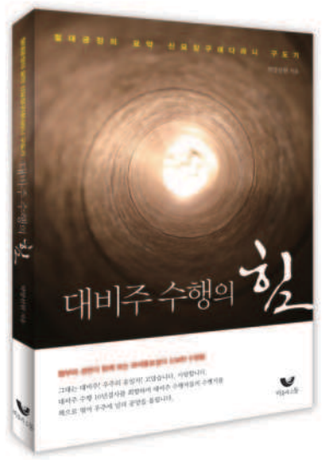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조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대비주 수지독송하는 우리 몸은 '광명의 깃발'
대비주 수지독송하는 우리 마음은 '신통의 창고'

대비주수행 10년결사 회향한 수행자들의 체험기!

생각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행대로 된다.
원(願)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절대긍정의 묘약 신묘장구대다라니 구도기

대비주 수행의 힘

덕양선원 지음 | 신국판 | 부분칼라 | 312쪽 | 12,800원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일기 • 법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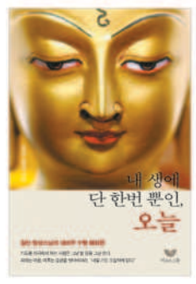


수지심시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다라니의 힘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대비주를 수행하면 참된 행복과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일산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 예화편

내 생에 단 한번 뿐인, 오늘

일산법상 지음
46판 | 올칼라 | 200쪽 | 10,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사진으로 만나는 다양한 '풍경'

한국불교사진협회 제19회 회원전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박봉수)가 봉축을 맞아 회원전을 연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제 19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 제 8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을 4월 25일~18일 3회에 걸쳐 연다. 산사의 풍경소리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박봉수, 이한규, 박정숙, 김동암, 강승규 등 60여 회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고문인 선암 스님, 자문위원인 혜자 · 대윤 스님, 특별회원인 도일 스님 등의 작품도 전시된다.

박봉수 회장은 "마애불, 아미타불, 석불, 석등, 석탑, 연꽃에 이어 올해는 사찰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주제로 잡았다. 요즘 새로 건축하는 사찰들은 풍경을 매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풍경을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사진 구도에 맞는 풍경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회원 각자가 최선을 다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금강산 신계사, 용암사, 해인사, 영화사 등에서 촬영한 다양한 풍경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된다. 불교사진협회는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전국 사찰을 찾아다니며 촬영을 하고 있다. 이한규 부회장은 "회원들이 부부단위로 많이 참여하는데 남편은 촬영을 하고 부인은 법당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움 풍경도 연출된다"고 전한다.

전시는 △1차 4월 25일~30일 서울메트로미술관 △2차 5월 1일~7일 능인선원 경내 △3차 5월 12일~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12전시실 등에서 열린다.

한편, 회원전과 함께 한국불교사진협회 주최 제 8회 불교사진공모전 수상자도 발표됐다. △대상 '염불수행'(심인고 김보형) △금상 기도(동해중 박철민) △은상에 종송(심인고 이종욱) · 탁발 (심인고 유승연) 등이 수상했다. 이와함께 불교사진협회는 제 9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 접수는 9월 1일~내년 3월 15일까지이며 전국 중 · 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011)346-2275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사진협회가 풍경을 주제로 19회 회원전을 연다. 사진은 강승규작

어린시절 추억 '아리랑 어머니'로

신은숙 개인전… 4월 21~27일

불자 문인화가 인강 신은숙 작가가 4월 21~27일 '아리랑 어머니' 전을 조계사나무갤러리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 신 씨는 문인화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독실한 불자로 현재 암투병중인 어머니를 신 씨는 이번 작품의 모티브로 했다. 작가는 "내 삶의 시작이었고, 과정이며 끝내는 되돌아가야하는 고향 같은 존재, 무하유지향이 바로 어머니이시다. 그런 어머니의 투병을 지켜보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 미안함과 서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붓을 들고 작품으로 그 진심을 드러냈다"고 전한다.

작가에게 어머니는 우주이며 천지이고, 삶의 근원이자, 신화의 세계 자체가 된다. 작가는 투병중인 어머니에게서 삶의 원형과 작품세계의 시원을 찾고, 또 반드시 되돌아가야 하는 고향에서 발원하는 신화의 삶을 그려냈다.



신은숙 작가의 '무아유지향'

작가는 어린시절 추억을 그림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한다. "어려서 열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밭에 나가시고 혼자 마루에 나와 힘없이 앉아 있을 때, 그 날은 봄이라 앞마당에 살구꽃이 바람에 날려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꽃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며 무척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죠. 그 처음의 기억을 되살려 작품에 담아 보았습니다." (010)3624-5063

정혜숙 기자

봉축의 기쁨 음악으로 나눠요

2014년 봉축음악회 '다채'

봉축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다양한 음악회가 열린다.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음악과 함께하는 봉축 음악회를 미리 만나본다.

조계사는 5월 2일까지 매주 작은 음악회 '소리나눔 콘서트' 를 연다. 지난 4월 9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콘서트를 열고 있는 조계사는 대웅전 앞에 무대를 마련 시민 누구나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일까지 수 · 금 1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4월 23일 메노스 금관 5중주 △25일 앙상블 랑코르 현악 5중주 △30일 경기전통예술단 공연 △5월 1일 아카시아 아카펠라 공연이 진행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02)768-8600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0 경기북부음악예술제' 가 4월 25일 오후 4시 50분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8개시와 3개군의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상생과 화합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행사로는 영산재 등 식전 공연에 이어 제2부 행복나눔 음악예술제에서는 '원효대사 일대기' 를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제1막 거룩한 탄생이어라(경기북부연합합창단) △제2막 깨달음의 새벽(경기북부연합합창단) △제3막 화쟁과 무애행과 열반(경기북부연합합창단+성악앙상블) 등으로 구성된다. 제3부 축하공연에서는 걸스데이, 이은미, 조항조 등이 출연한다. (031)969-0108

불자 장애인 모임 보리수 아래는 제7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아나율과 주리반특 , 그 아름다운 동행' 을 5월 1일 오후 7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연다.

공연은 △음악과 함께하는 법문 △스님과 장애불자가 함께 읽는 경구 △오케스트라와 장애불자들이 더불어 하는 시낭송과 음악연주 △장애불자 작사 국악가요 △이웃종교와 함께 하는 섹소폰과 피아노 연주 등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북칼럼니스트 이미령 씨가 맡는다. 010-2367-2611

거제불교사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연꽃음악회가 4월 28일 오후 7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거제불교연합합창단, 박강성, 심진스님, 티엔젤, 에스플라바, 메아리풍물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이웃을 위한 자비기금으로 사용된다. 거제불교사원연합회는 "수익금은 이웃을 위한 자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010-4543-6845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은 5월 1일 오후 7시 경북 영주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첩첩산중 시골마을 절에서 어린이밴드와 함께 창단돼 화제를 모았던 둥근소리합창단은 정기 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딱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그동안 절 안팎으로 봉사하며 신심 깊은 음성공양을 올리던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의 제 1회 공연에서는 청량사 어린이법회 아이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어린이회 부모님으로 구성된 청량사 둥근소리밴드가 흥을 돋아주고, 청량사 어린이밴드 꼬마풍경과 청량사 어린이회 출신 이민영 지휘자가 이끄는 원적정사 합창단(특별출연)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054)672-1446

이밖에도 대웅제약 이지덤과 이종격투기선수 추성훈이 후원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 후원의 밤 공연이 4월 30일 오후 5시 30분 대웅제약 별관 베어홀에서 열리며, **동화사**는 5월 6일 오후 2시 전문예술인과 함께하는 장기자랑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봉축 행사가 축소되는 가운데 교계 한 공연 관계자는 "음악회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계사-소리나눔콘서트

경기북북사암聯-음악예술제

보리수아래-장애 · 비장애 공연



봉축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다양한 음악회가 열린다. 사진은 도심 조계사에서 점심 시간 여는 소리나눔콘서트.



청량사 어린이 밴드 꼬마풍경 연습 장면



거제불교사원연합회의 연꽃 음악회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빛으로 그려낸 '석굴암본존불'

국립경주박물관 국내 대표 사진작가 배병우 작품 전시… 상설 전시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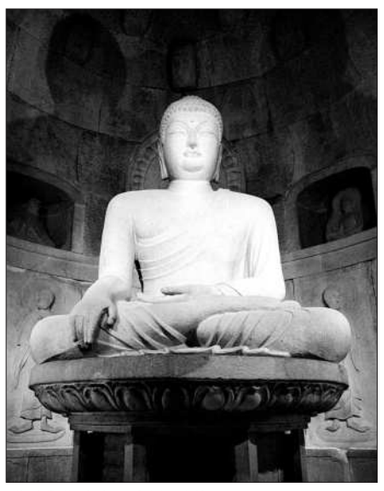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석굴암 본존불 등 배병우 작가의 사진을 상설 전시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사)경주박물관회로부터 배병우 작가의 사진 작품 3점을 지난 4월 8일 수증받고 이를 상설전시관인 신라역사관과 신라미술관에서 전시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미술관(중층)에는 '석굴암 본존불'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중층의 한가운데에 전시된 경주 송화산 출토 반가사유상과 함께 넓은 공간에서 신라불교조각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신라역사관(중앙홀)에는 '경주 서악동 능묘군' 과 '흥덕왕릉의 석인상과 소나무' 등 2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중앙홀 한 가운데 전시되어 있는 성덕왕릉의 십이지원숭이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신라왕릉의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배병우 작가는 사진을 '빛으로 그린 그림' 이라는 순수미술로 재창조해낸 한국의 대표적 사진작가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소나무들을 촬영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 등을 촬영 문화유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혜숙 기자



배병우作 '석굴암 본존불'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바로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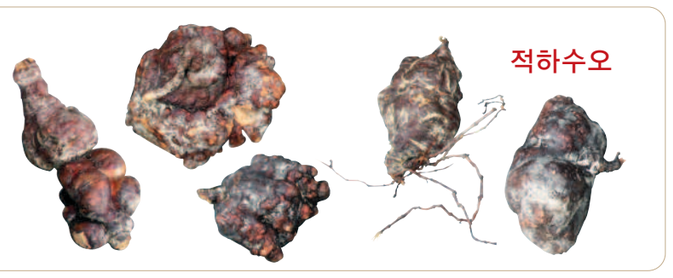
☎ 031-534-3373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문화

"인간 번뇌 유채색으로 검정 복주머니는 진리 상징"

개인전 여는 홍미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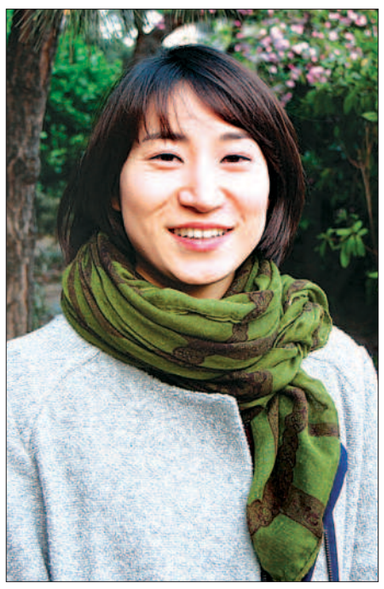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해요. 화나고 슬프고 짜증나는 마음, 즐겁고 기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존 제 그림들이 행운의 바람을 담았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마음을 잘 살펴 진정한 나를 찾는 진리의 세계를 표현해내는데 주력했어요."

연꽃 향수병 시계 등의 사물을 통해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던 작가는 이제 그 눈길을 내면으로 돌렸다. 마음공부라는 것을 접하고 난 뒤 생긴 변화다. 그녀는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의 행복을 찾고자 했다. 홍미림 작가의 개인전이 4월 23일~29일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가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그녀가 마음공부를 접하고 난 뒤에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작품으로 표현해 냈다는 것이다. "남편의 권유로 정토회 깨달음의 장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그동안 내 마음을 참 외면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화나고 짜증나고 슬픈 마음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그러면서 매순간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홍 씨는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홍익대 동양화과에서 미술학 석박사를 받았다. 국내외 개인전을 13회 개최했고 홍익대 서울교육대 등에서도 강의를 맡았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진 그녀의 이력은 누가 봐도 근사하고 화려하다.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다.

"아버지가 저와 같은 동양화과 교수님이셨어요. 이런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한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물론 가족들 모두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지지해주었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힘 들고 또 좀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누구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은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니 주변의 기대 때문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회의가 들더라고요."



마음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홍미림 작가의 개인전이 4월 23일~29일까지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마음공부하며 그려낸 20여 점
4월 23일~29일 선화랑서 전시

그림을 계속 그려야할지를 고민하던 차에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에 참가해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거기서 작가는 자신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되었다고. "스님께서 아예 손을 놓아 보라고 답변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미치도록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계속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질문을 하고 난 뒤 감기몸살로 그림을 두달 동안 놓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제가 정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붓을 들었죠."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그녀의 작품 세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마음의 다양한 변화를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해 진리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제가 채색화를 그리다 보니 주로 민화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지고 와요. 민화가 인간의 복을 구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막연한 행운보다는 내면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내면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었죠."

마음의 변화를 유채색으로 알록달록 표현하고 검정색 복주머니를 통해 그 안 담긴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진리 그리고 꿈',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감정의 흐름을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로 표현한 '그대 마음속의 이야기' 등 20여 점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아직은 초보지만 앞으로 꾸준히 마음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제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제에서 좀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홍미림 작가는 그동안 선화랑, 갤러리이즈, 중국 베이징 상상국제미술관 등 국내외에서 13회의 개인전을 열어왔으며 2012 '중한건교 20주년 중한우호서화교류전 국제작가상 수상', 2010 '제2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오는 9월 명동 세종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02) 734-045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그대 마음속이야기'



복주머니에 담긴 진리를 표현한 '진리 그리고 꿈'

백세의 청풍은 속세 생각 끊게 하고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⑰ 금산사 (下)





후백제의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감금당했을 때 쌓은 것으로 전하는 성곽과 성문. 금산사 초입에 있으며 근래 복원 복원됐다.

'안수정등'의 가르침

비승비속으로 전국을 떠돌던 김시습이 금산사에서 하룻밤 묵으며 남긴 시를 차운한 윤증(尹拯 1629~1714)작품이 돋보인다. 윤증은 우암 송시열의 제자였으나 후에 그와 학문과 정치적으로 대립한 소론의 영수였다. 학문도 깊었지만 효행의 실천이 남달랐던 그의 문집 〈명재유고〉 1권에 금산사와 관련한 시가 보인다. 먼저 김시습의 시를 차운한 작품을 보자. 제목은 '금산사(金山寺)에 노닐며 김열경(金悅卿)의 시에 차운하다[遊金山寺 次金悅卿韻]이다.

부세수여차지관(浮世誰如此地寬)
세심태경도청단(細尋苔徑度淸湍)
소번자문수등정(疎煩自問垂藤井)
선승선등노회단(選勝先登老檜壇)
답장증하추색힐(沓嶂蒸霞秋色擷)
만임비우간성한(滿林飛雨澗聲寒)
청풍홀억동봉자(淸風忽憶東峯子)
삼창유편야이란(三唱遺篇夜已闌)

뜬 세상에 이곳처럼 한가한 곳 또 있으랴
이끼 낀 오솔길과 맑은 여울 따라 걷네.
등나무 드리워진 우물에서 번뇌 씻고
늙은 전나무가 선 석단(石壇)에 오르누나.
겹겹의 산봉우리 가을빛이 얽혀 있고
숲 가득히 비 날리니 시냇물 소리 차네.
청풍 불자 갑자기 동봉자가 생각나서
남긴 시 읊조리매 밤이 벌써 깊었구나.

이 시의 창작 배경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금산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김시습의 시를 생각하고 그에 차운해 한 수를 남긴 것'이다. 윤증이 금산사를 찾은 이유는 수련에 그대로 드러난다. 세속의 번뇌를 잊어버리고 한가한 시간을 즐기고자 오솔길과 개울을 따라 온 것이다.

그렇게 당도한 절에서 시인은 유명한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예를 들며 스스로 번뇌를 씻어 마음을 정갈하게 하였음을 드러낸다. 〈비유경〉 등에 나오는 '안수정등' 이야기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코끼리와 등나무뿌리, 독사, 꿀, 쥐, 우물 등을 통해 설명하는데 사찰의 벽화로도 많이 그려진다. 어쩌면 윤증도 금산사에서 이 '안수정등'의 가르침을 그린 벽화를 보고 '등나무 드리워진 우물에서 번뇌 씻고'라는 시상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방등계단으로 올라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상념에 사로잡히다가 김시습의 시가 생각나 읊조리는 사이 밤이 깊었다. 물론 밤이 깊었다는 표현은 시간적인 묘사일수도 있지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경지를 은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시의 제목에 나오는 김열경은 김시습의 호이며 미련에 나오는 '동봉자' 역시 김시습의 별호이다.

아들에게 감금된 견훤의 이야기

윤증의 문집 〈명재유고〉 1권에는 '금산사(金山寺)에 노닐며 김열경(金悅卿)의 시에 차운하다'에 이어 '또 이목은(李牧隱)의 시에 차운하다[又次李牧隱韻]' '또 장계곡의 시에 차운하다[又次張谿谷韻]' 등 3편이 나란히 실려 있다. '장계곡'은 앞에서 시를 살펴 본 본 장유(張維)다. 목은 이색의 시에 차운한 작품을 보자.

쌍계명옥향산중(雙溪鳴玉響山中)
승지장래제일공(勝地裝來第一功)
장불앙장전동부(丈佛昂藏專洞府)
종대청형부림궁(鍾臺淸逈俯琳宮)
견훤사업천년취(甄萱事業千年臭)
목노시편백세풍(牧老詩篇百世風)
총시유인진려절(摠是遊人塵慮絕)
추광사의의난궁(秋光徙倚意難窮)
–사즉견훤소창 기후훤자신검 수훤어차사
(寺卽甄萱所創 其後萱子神　囚萱於此寺)

산속에 메아리치는 쌍계의 물소리가
승지를 만들어 준 제일의 공신이지.
거대한 미륵보살 한 고을을 압도하고
종소리 맑게 울려 사찰을 감싸누나.
견훤이 한 사업은 천 년의 추문이요
목은이 남긴 시편 백세의 청풍이지.
이 모두가 나그네의 속세 생각 끊게 하여
가을볕 아래 서성이며 마음을 못 잡겠네.

–이 절은 견훤이 창건한 것인데 뒤에 견훤의 아들 신검(神劍)이 견훤을 이 절에 다 가두었다.

이 시에서 윤증은 금산사에 얽힌 역사적 사건 하나를 차용하여 밝히고 있다. 시의 말미에 후백제의 견훤과 그의 아들 신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다. 시의 본문에서 견훤의 말년은 두고두고 추문이 되었지만 목은의 시편은 '백세의 청풍'이라고 찬탄했는데,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말미에 절의 내력을 설명한 것이다. 지금도 금산사 초입에는 성곽의 흔적이 있는데, 견훤이 아들에게 감금당하다 시피 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윤증이 차운한 이색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빼어난 절창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견훤의 사건에 빗대어 이색의 작품을 '백세의 청풍'으로 찬탄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증이나 김시습, 이곡, 장유 등 선비들에게 금산사는 인간 세상의 번잡함이 사라진 곳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시를 쓰는 선비들은 수행자의 입장이 아니었고 다만 세속의 번잡을 씻고자 산사를 찾은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들의 시는 하나같이 속세의 근심으로 돌아가며 끝을 맺는 것이다.

고려 말의 선비 허백(許伯 ?~?)의 '금산사' 라는 시 역시 절 풍경은 그림같이 묘사했지만, 마음의 고요는 얻지 못했다.

고사의산록(古寺依山麓)
고맹압수애(高甍壓水涯)
곡한원규월(谷寒猿叫月)
송명학소지(松暝鶴巢枝)
풍인종성원(風引鐘聲遠)
파요탑영이(波搖塔影移)
애한오유벽(愛閑吾有癖)
갱여노승기(更與老僧期)

유서 깊은 절은 산기슭에 의지했고
높은 용마루는 물가를 누르고 있네.
골짜기가 차니 잔나비는 달빛 속에 울고
소나무 숲 어두우니 학은 가지에 깃든다.
바람은 종소리를 끌어 멀리 울려 퍼지고
물결은 탑 그림자를 흔들며 옮겨가네.
나에게는 한가로움을 사랑하는 병 있어
다시 노스님 만날 날을 기약 하노라.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봉 불기 2558년 금강계단 구족계 산림 및 전종도 법계고시 준비공고 행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 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발원하여 해당부분 전 종도 아래와 같이 제방에 준비 공고 합니다. (특히 법계 품수자는 준비에 만전을 기여할 것)

원로원장 대웅
교육원장 봉덕 고시위원장 일봉 고시위원 혜명, 대일, 의광, 무여
고시부위원장 용현(경주안강 원라사)

※ 사미계
※ 구족계 산림
※ 법계 고시
● 장소 : 법계고시사 관음정사(부산역 앞)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관음정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부산역) 문의처 : 총무 010-4566-4504. 051)442-5658. 468-5657 팩스 051)442-5659
호국불교조계종 http://jogyeong.kr / 관음정사 www.happybuda.kr / E-mail : OK-1207@hanmail.net

(社)護國佛教 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입종업체

우리춤 체조, 한국무용, 불교무용 연구소
● 원장 : 조론심
● 부산 금정구 남산동 99-30 051)512-0115. 010-3834-6677
● 우리춤, 체조 전문지도 자격증반 수시 모집중!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http://www.kukjeav.com
● 010-3832-8855 수봉 합장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9 ~ 4/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6	내게 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라(기억에 남는 명법문)	편집부	불광출판사
7	인생아 웃어라	원영	갤리온
8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1(세주묘엄품 1)	무비	담앤북스
9	땡큐 붓다(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장종천	운주사
10	마음 닦는 비결(해안 스님 선어록 강설)	동명	나라연



온몸으로 '공동선' 실천한 서산대사

서산(전10권)

신지견 지음 | 연인M&B 펴냄 | 각권 1만2천원



책은 임진왜란 당시 73세의 노구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승병을 일으켜 구국에 앞장섰던 서산대사(휴정 · 1520~1604)의 생애를 그린 장편소설이다.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은 많지만 서산대사와 의승군을 다룬 것은 많지 않다. 전 10권으로 출간된 소설 〈서산〉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서산대사의 업적과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

"흔히 권력이 억압적인 구조일 때는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런 저항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우리의 근현대사도 역시 그런 저항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워 척불(斥佛)을 합리화한 조선 중기의 사회는 생산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저항을 불러들인 단초가 되었으며, 소설 〈서산〉에서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내세워 갈등의 플롯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러한 저항적 진정성의 상징인 서산대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서산대사가 누구이며, 그가 왜 우리 시대에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출간은 서산대사의 의발과 유품이 모셔진 해남 대흥사의 주지 범각 스님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범각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위와 같이 말하고 7년이 걸린 이번 출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이번 출간은 4월 28일 서산대사의 탄신 491주년을 앞두고 계획된 서산대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이다. 범각 스님은 서산대사의 업적과 사상 등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보고 서산대사의 재조명 작업에 진력해 왔다. 2007년 범각 스님은 대흥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신지견 작가에게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집필을 요청했고 이듬해 〈서산 사상과 신자유주의〉라는 책(논문)이

서산대사의 생애 소설로 재조명
집필 7년, 범각 스님 출간 도와

출간됐다. 이후 범각 스님은 서산대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논문보다는 문학작품(소설)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소설 〈서산〉을 제안했으며, 대흥사에 보관된 방대한 서산대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설〈서산〉의 출간을 이끌었다.

국가를 '공동선'이 실현되는 하나의 울타리로 볼 수 있다면, 소설 〈서산〉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결과물인 사회의 극리(極離)현상, 양분화의 불공평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역사라는 거울에 투사한 소설이다. 한국 사회의 불공평과 구조적 모순의 기원을 우리 역사에서 찾고 있다.

그릇된 양반 문화와 부패 구조에 대항하는 분자적 탈주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 〈서산〉은 혁명을 꿈꾼 세력들이 임진왜란을 만나 혁명의 꿈을 접고 민족 존망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극명하고도 유려하게 그려내고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에서 왜군에 맞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기득권 사대부들이 아니라 의병과 의승병을 포함한 민초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역사적 결과의 수용만이 아니라 과정을 탐색하며 역사적 '사실(史實)'을 재해석했다.

작가는 "서산대사는 권력을 가졌거나 부를 가진 분은 아니었다. 더구나 경쟁을 부추긴 분이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위기에 섰을 때 칼을 들고 일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모두의 국가임을 보여 주었다. 공동선을 온몸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고 말하며 현재의 우리 사회를 공동선이 실현되는 울타리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소설 〈서산〉은 역사적 관계망에서 유기적으로 창조된 인물과 사건,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서산〉은 나라 안팎으로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조선 중기의 역사적 현실 상황들을 유 · 불 · 선을 깊이 있게 넘나드는 치밀한 구성과 속도감 있는 전개, 짜임새 있는 줄거리와 개성 있는 등장인물 등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서산〉은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과도한 육식 멈추지 않는 한 인류 미래 없어"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박종무 지음 | 리수 펴냄 | 1만 7900원



이 책은 약육강식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생명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수의사인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문체로 쉽게 정리한 책이다.

약육강식의 왜곡된 생명관은 자본의 논리와 닮았다.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해서 공존의 미덕은 파괴됐다. 지금도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동물들은 고통받고, 아마존의 밀림은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은 유전자가 재조합된 식품을 섭취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 책은 '공존'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온 약육강식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일그러진 우리의 생명 구도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동물학대, 약육강식 논리로 합리화 될까?

수의사인 저자는 소에게 자주 일어나는 병인 고창증을 처음 배우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어. 수의사가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가 꼬여서 죽어버리는데 수의사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수의학의 외과수술이 오늘날 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도 소들이 멸종되지 않고 존속했다는 것이 신기했지."

그러나 고창증은 애초에 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병의 발발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소에게 풀이 아닌 옥수수를 먹임으로 인해 위 내에서 급격하게 세균이 증식되고 가스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 외에도 동물원의 동물들과 반려 동물 문제 등 학대받는 다양한 동물을 보여줌으로써, 약육강식의 논리로 합리화된 동물 학대의 현실을 직시 한다.

공존법칙 거스른 약육강식 파헤쳐
가장 큰 대안은 생태적인 삶

약육강식이 아닌 근거는 무엇인가?

차별주의가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진화'의 개념은 백인 우월주의 · 남성 우월주의, 나치의 유태인 학살 등에 이용되었고, 다른 생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시켰다.

지구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인간이 강해서가 아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해왔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생명의 속성이 약육강식이 아닌 공존의 관계임을 진화, 공생명 그리고 생물학적인 관점서 뿐만아니라, 물리학적인 관점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생태적인 삶을 산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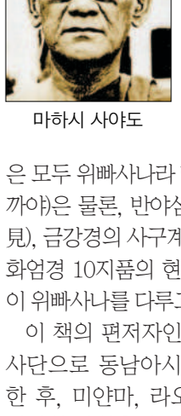
과학자들은 2030년을 오일 피크라 예상한다. 지금처럼 과도한 육식과 풍족한 에너지 생활을 멈추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밝지 않다. 혹자는 과학 발달이 오일 피크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원칙적으로 에너지 소비 속도를 늦추지 않는 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에 저자는 생태적인 삶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생태적인 삶이란 . 생명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위빠사나를 이어가는 선지식들

붓다의 후예, 위빠사나의 선사들 Ⅰ·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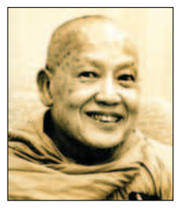
잭 콘필드 지음 | 김열권 옮김 | 각권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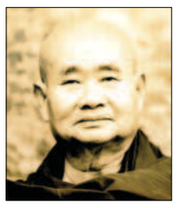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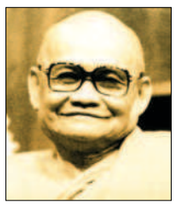
위빠사나는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원형 수행법이다. 책은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전파해온 미얀마와 태국의 위빠사나 선지식 15명의 가르침과 수행법들을 망라한 수행지침서로 세계적인 불교 학자이자 서양의 대표적 명상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잭 콘필드가 수행과정에서 겪어온 일화나 대담과 함께 테라바다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엮었다.

불교경전에 적혀 있는 부처님 수행법들


마하시 사야도


아찬 줌니엔


파욱


아잔 차

은 모두 위빠사나라 할 수 있다. 아함경(니까야)은 물론, 반야심경의 반야로 조견(照見), 금강경의 사구계(諸相非相 卽見如來), 화엄경 10지품의 현전지 등, 모든 경전들이 위빠사나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편저자인 잭 콘필드는 평화봉사단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했다 출가한 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전역의 사원을 순례하며 오랜 세월 수행을 쌓았다. 그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은 부처님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테라와다 불교수행의 특성과 심오한 단순성을 전파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대부터 전해오는 전통 수행법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선지식들의 수행체험과 수행법, 생활모습 등이 붓다의 전통적인 법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불어 남방불교와 대승불교 및 티베트 불교와의 상이점과 공통점 등도 질문형식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구에선 다년간 베스트셀러로서 서구인들에게 불법을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책으로, 남방불교의 의례 · 의식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시킨 선지식들의 법문과 수행법, 근기와 개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은 이들 위빠사나 수행법들은 물론, 미얀마와 태국의 최신 수행법들도 총망라하고 있다. 미얀마 순룬 사야도의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한 수행법, 태국의 전설적 선사인 아찬 문의 연기 통찰로 아라한과를 실현한 체험담, 타웅푸루 사야도의 부정관,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모곡 사야도의 수행법, 아찬 나에브의 생활 속 깨달음을 체험하여 고(苦)를 강조하는 수행법, 자비관과 사마타선정, 위빠사나를 함께 근기에 따라 지도하는 아찬 줌니엔의 수행법 등, 다양한 수행법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수행자라면 초보자든 전문수행자이든 누구나 탐독하면서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행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책은 남방 아비담마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니까야경전에 입각한 미얀마 선지식들의 수행법과, 대승법을 포함할 수 있는 태국 선지식들의 위빠사나 수행법 등, 불법의 다양한 수행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보자의 수행법부터 구경각 아라한을 실현할 수 있는 수행법까지 두루 다루고 있어, 수행자라면 누구에게나 도움 되는 '전천후(全天候) 수행서'이다.

전문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인간관계, 작업능력 향상, 잠재능력 계발, 자애의 실천 등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행까지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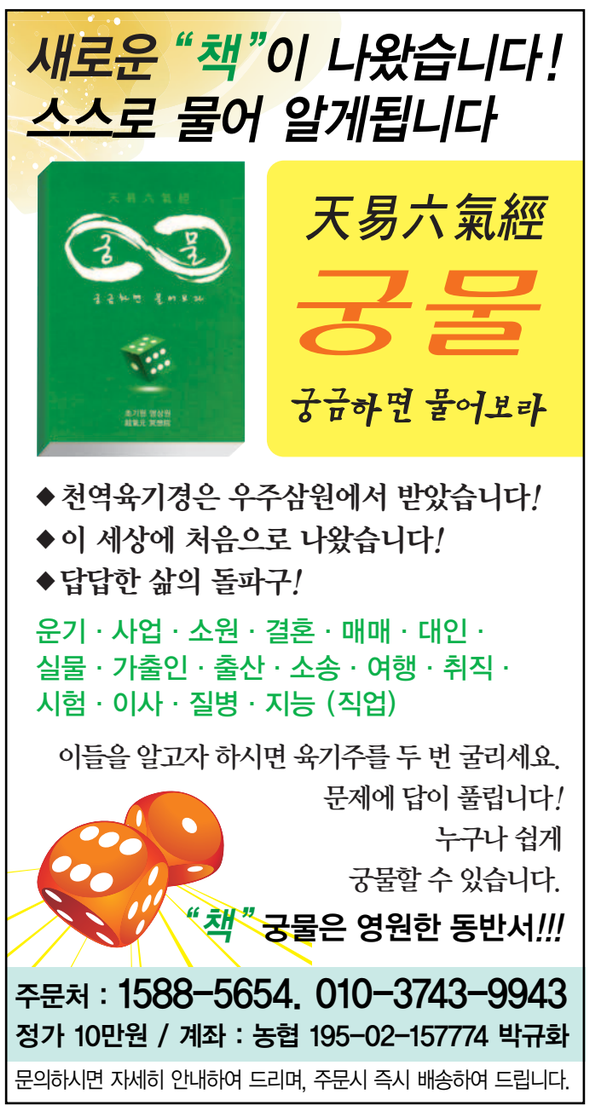
이 책에 수록된 수행법을 응용하면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번뇌 등을 근원적으로 치유 · 근절할 수 있어, 심신(心身)의 힐링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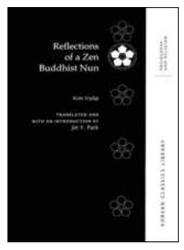




일엽 스님 저서 50년 만에 영역

〈Reflection of a Zen Buddhist Nun〉
〈어느 수도인의 회상〉 영문판

일엽 스님 지음 | 박진영 번역 | 하와이대 출판사 펴냄



〈Reflection of a Zen Buddhist Nun〉은 근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 비구니 일엽 스님(1896~1971)의 작품인 〈어느 수도인의 회상〉을 저본으로 한 영문판으로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김일엽 문화재단(이사장 월송)이 출간을 후원했고,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학 철학과 박진영 교수가 번역했다.

〈어느 수도인의 회상〉은 일엽 스님이 스승 만공선사의 뜻에 따라 절필한 지 30년 만에 대중포교의 뜻을 두고 펴낸 책으로, 세간에 잘 알려진 〈청춘을 불사르고〉의 초간본이라 할 수 있다. 일엽 스님의 불교사상과 참선세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수상록이다.

책은 불교의 사상을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구니로서의 삶을 불교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어, 현재 미국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불자' '여성불교'에 관한 논의에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엽 스님의 글은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삶의 이야기가 불교교리에 관한 논의와 잘 섞여있어, 불교 학자들 뿐 아니라 영어권의 불교 수행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님은 생전에 자신의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서양인들에게 읽히길 원했다. 이번 영문판의 출간은 스님이 입적한 지 40여 년 만이고, 책이 나온 지 5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인, 여성운동가, 사상가 등의 다양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을 종교인으로서 마감한 스님의 생애는 '정신의 투철함'으로 가득하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투철한 '자기 정신'으로 '자기의 소리'를 내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을 살았다. 그러한 치열함으로 이 세상의 벽을 부수고자 노력했으나 인간적인 한계와 현실의 제약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뇌의 끝에서 만공선사라는 선지식을 만났다. 만공선사로부터 영원을 사는 큰 가르침을 얻게 되어 불가에 입문 하게 되었고, 생애 전반에 흐르는 투철함을 바탕으로 철저히 '자기 완성'의 길을 추구했다. 그렇게 스님의 삶은 1928년 입산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신학문을 수료하고 동경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 여성이며, 더욱이 개화기 최초의 여류 문인으로서 신여성 운동을 주도하며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던 그녀의 출가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두 번의 결혼과 실패,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으로 대표되는 여성해방운동, 불같은 사랑 등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이끌어 오던 그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자 세간의 의견은 분분했다.

스님의 글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은 1960년초, 글 또한 망상이라며 불립문자를 내세우는 스승 만공 선사의 뜻에 따라 절필한 지 30년도 더 지난 뒤였다. 대중포교에 뜻을 두고 펴낸 〈어느 수도원의 회상〉, 〈청춘을 불사르고〉 등은 출간되자마자 세인의 관심을 끌며 서점가를 뒤흔들었다.



비구니로서의 삶 불교적으로 서술한
〈어느 수도인의 회상〉 영문판
생전에 영문판 출간 발원
1960년 출간 당시 서점가 술렁
최남선보다 먼저 신시 발표
문인, 여성운동가 등 다양한 삶

스님이 우리 문학계에 남긴 업적은 적지 않다. 신체시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보다도 1년 빠른 1907년에 이미 '동생의 죽음'이라는 시를 쓴바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신시의 지평을 연 사람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문의 형태로 내려오던 선문학이 만해 스님에 이르러 근대화의 옷을 입었고 그 명맥을 일엽 스님이 이었다.

"사랑이란 우주 전체의 힘이며 생령 본체의 생사가 달린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다. 나는 사랑의 근본을 알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중(僧)이 되었다." 스님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철학가이자 사상가적인 면모가 많았다. 삶 전체에 흐르는 특유의 정신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주체적으로 지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 그가 중요한 인생 문제의 실마리가 불법에 있음을 알고 주저 없이 출가한 것이다. 스님의 출가는 인생을 걸고 찾아나서야 할 삶의 절실한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스님은 현실 문제에 바탕을 둔 인간성 회복을 수행의 일차적 과제로 삼았고 나아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인간 구제에 뜻을 둔 수행이었기에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닌 생명력 있는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1971년 1월 28일 새벽, 스님은 자신이 건립한 비구니 선원에서 열반에 들었다.

책은 서문,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문은 번역자인 박진영 교수가 '김일엽 : 삶과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일엽 스님의 삶과 문학, 신여성으로서의 활동, 종교관을 소개하고 있다. 1부는 〈어느 수도인의 회상〉이 '인생', '불교와 문화', '만공대화상을 추모하며(15주기일에)', '입산 25주년 새해를 맞으며', '방콕에서 주최되는 제5회 불교도연맹대회에 보내는 제의서', '불교에서는 왜 정화운동을 일으켰나', 'C선생에게 (C선생은 사학가로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함', 'M친구의 편지를 읽고', 'R씨에게', 'B씨에게', '반환된 선물을 안고서', '노스님 원고를 베끼고 나서(월송스님)'의 순으로 번역되어 있고, 2부는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중에서 '공으로 돌아가라', '기도와 염불', '참선과 심득', '영생을 사는길 : 언론인들에게'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박재완 기자

"제대로 된 삶 살기 위해서는 죽음 제대로 직시해야"

티벳 死者의 여행 안내서

족첸 폰롭 린포체 지음 | 최람, 이균형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 2만원



족첸 폰롭 린포체는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드는 깊은 이해와 스스럼없는 따스함으로써, 완전한 초월을 이룰 기회인 여섯 바르도에 대한 티벳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현대의 독자들 앞에 생생히 풀어낸다.

이 책은 2002년에 14회에 걸쳐 북미의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강의 내용에 추가적인 가르침과 설명이 덧붙은 것으로, 뒤늦게 필사자료라도 구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요청이 쇄도한 덕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린포체는 사후의 바르도뿐만 아니라 현생의 바르도까지 망라하여, 각각의 바르도마다 어떤 수행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빠짐없이 설명해준다.

보통 '바르도(bardo)'는 현생과 다음생 사이의 중간(中陰界)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지만, 본래는 어떤 두 지점 사이의 상태 또는 시간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폰롭 린포체는 이 책에서 티벳 불교의 전통에 따라 현생과 관련된 세 가지 바르도(현생, 꿈, 명상)와 죽음과 관련된 세 가지 바르도(죽음, 사후세계, 환생)를 정교하게 분류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그 모든 존재 상태를 관통하여 이어지는 마음의 근본적인 성질을 드러내 보여준다.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죽음 이후의 과정에서 격렬한 감정이나 두려움, 공황에 압도되기 쉬우므로 그전에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미리 배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바르도 속에서도 수행의 요체는 본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생에서 쌓은 수행의 성과는 사후에도 유효하며 오히려 사후세계에서는 마음이 적나라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 공성(空性)을 꿰뚫어 해탈에 이를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도 있다.

〈사자의 서〉는 티벳 불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이다. 죽음에 관한 인류 최고(最高)의 경전으로 꼽히는 이 책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경전은 14세기에 발굴돼 20세기 초에 서구사회에 소개됐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은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는 극찬과 함께 장문의 해설을 쓰기도 했다. 이 경전을 저술한 파드마 삼바바(연꽃에서 태어난 사람)를 티베트 사람들은 문수·금강·관음보살, 세존자(尊者)가 합일한 화신(化身)이며 '제2의 붓다'라고 부른다. 그런 그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당신의 자비의 밧줄로 그를 붙잡으소서/악한 카르마의 힘에 이 생명 가진 자가 굴복하게 하지 마소서/아,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이여/ 사후세계의 불행으로부터 이 자를 보호하소서/…"

또한 국내에서도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에반스 웬츠 편집판이 20만 부 이상 판매되었을 만큼 전 세계 구도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시대를 앞선 의식탐구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티벳의 수행전통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상징들의 의미와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고는 이 책을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티벳 불교서 독보적 위치 차지
'바르도' 수행 체계 정리
칼 융, 최고의 정신 과학 극찬

이 책은 바르도 수행을 매개로 삼아 티벳의 실제 수행체계를 현대의 언어로 일목요연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국내의 독자들에게는 가장 탁월한 〈사자의 서〉 해설서인 동시에 가장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티벳 불교 입문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족첸 폰롭 린포체는?
1965년 인도 북부 시킴에서 태어났다. 달라이 라마로부터 족첸 폰롭 법맥의 7대 환생으로 인정받고 1968년 룸덱 승원에서 제7대 족첸 폰롭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16대 카르마빠, 딜고, 뚤쿠 오겐 린포체, 노슐 켄 린포체, 그리고 직계 스승인 켄뽀 출팀 걈초 린포체로부터 닝마파와 까규파의 수행 지도와 전법을 받았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티벳 불교학자이자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제적 불교연구 및 수행 센터인 날란다보디(Nalandabhodhi)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3개 산 주변에 깃든 옛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산행

황찬익 지음 | 역사인 펴냄 | 2만3천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최근 보도에 따르면 등산객이 늘었다고 한다. 꼭 전국의 유명산이 아니라도 조그만 야산에도 주말에는 줄을 서서 다녀야 할 정도로 등산객들이 붐빈다. 그러나 늘어난 등산인구에 비해 등산문화는 제자리 걸음이다. 산 위에서나 아래서나 모두 먹고 마시는 것이 산행보다 먼저인 경우가 많다. 이를 평소 안타까워한 황찬익 前 봉은사 종무실장이 최근 〈이야기가 있는 산행〉을 펴냈다.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90년대 초 불교계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산중에서도 가장 명당에 위치한 사찰을 자주 찾게 되고, 스님들만이 알고 다니는 외진 산길을 걷는 일을 즐기게 됐다. 이런 그가 바람직한 산행문화를 생각해 보자는 의도로 만든 책이 바로 〈이야기가 있는 산행〉이다. 산과 산 주변에 깃든 역사와 인물, 옛 이야기들을 끄집어 내서 산행을 할 때 그것들과 교감하며, 걷고 마치고 돌아와 오래토록 기억에 남는 산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명과 설화 등 길가에 놓여 있는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생각을 풍부하게 할 때 터벅터벅 걷는 것이 단순한 다리운동에 그치지 않고 가슴을 트이고 머리를 맑게 하는 수행에 다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에 맞춰 테마별로 구성했다. 총 23개의 산이 등장한다. 책 속에는 산 뿐만 아니라 그 산에 속한 사찰도 함께 소개돼 있어 불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 흐름 짚어 체계적으로 정리

단전주선

길도훈 지음 | 씨아이알 펴냄 | 1만5천원



단전주란 마음이 단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무르는 것을 일컫는다. 단전주선은 원불교 〈정전〉에 수록된 좌선법으로, 원불교 교조 소태산의 깨달음 이후에 그동안의 수행과정을 되짚고 다듬어서 정돈한 간결한 선법이다. 총론 차원에서 드러낸 원불교 좌선법을 길도훈 교무가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프로그램화하여 이 책을 썼다.

진리와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수행의 밝은 길을 밝히는 저자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선의 흐름을 짚어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했다. 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재능 없이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변화 과정을 느끼면서 좌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궁극적인 목적에 따른 단계별 목표로 나눠 정리했기에, 방법을 위한 방법으로 헤매는 일 없이 선의 과정을 밟아 가도록 했다.

저자는 초심자의 심경에 따른 선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25년 전부터 초심자의 자세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정리 했다. 또한 직접 선방을 열어 15년 이상을 선과 성리를 지도하면서 터득한 현장 경험을 더해 실용적이고 객관화된 좌선법을 완성했다. 이 수행법을 따라 수행하면 초심자라도 좌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이미 수행해온 사람들은 경지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올곧은 구도자의 진솔한 수행담과 진리의 소식이 함께 녹아 있는 것도 특징이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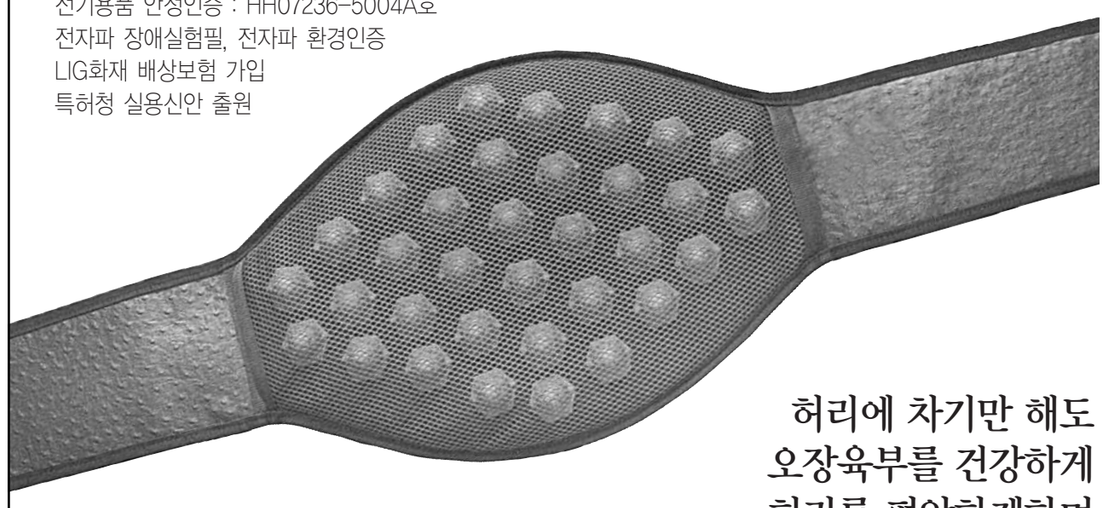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붓다의 물리학

5. 업에 기인한 섬세한 물질

몸 갈망 끊으면 조건의 삶 탈피…그것이 해탈

감각의 문을 통해 경험되는 대상물질들과 감성기관들 그 자체는 거친 물질들이고 그 외의 것들은 섬세한 물질들이다. 이미 보았듯이 일곱 가지는 감성대상들로 색깔, 소리, 냄새, 맛과 몸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대 중 세 가지인 땅 성품과 열 성품, 바람 성품이다. 다섯 가지 물질은 감성기관인 눈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다. 대상물질이 관련된 감성기관에 부딪혀서 일상에서 수시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일어난다.

28가지 물성 중 감성대상과 감성기관 12가지는 거친 물성이고 나머지 16가지는 섬세한 물성이다. 감성기관은 물질을 생성하는 네 가지 요인 중 다른 세 가지인 마음, 온도, 영양분에서가 아닌 전적으로 업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오로지 업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한 물성들은 또 있다. 여성 기능, 남성 기능, 생명기능, 그리고 심장토대다.

여성기능(잇틴드리야), 남성기능(뿌리신드리야)을 집합하여 성 물질(바와루빠)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생의 첫 순간부터 일생동안 업에 의해 생산되는 물질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업에 기인된다. 〈앗타살리니〉(2, 2권, 1부, 3장, 322)에 남성으로 출생하느냐 여성으로 출생하느냐는 다른 과보(위빠까)라고 설명한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선업과보(꾸살라위빠까)이지만 선행의 정도가 다르므로 그 결과도 다르게 된다. 남자로 태어나는 조건이 되는 선업(꾸살라깜마) 보다 여자로 태어나는 선업이 정도가 더 낮다. 일생동안 남성과 여성의 지위 간에 차이가 난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보다 남성이 더 존경받는 것은 사실이다. 보통 여성은 사회에서 명예스런 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혜의 계발에 관해서는 남성과 여성 양자 모두 할 수 있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상윳다 니까야〉(4권, 육처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37주제 여인 상윳따, 34, 증장 경)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덕목을 증장시킴으로써 성스러운 여성수행자는 지혜를 키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립하고, 더 나은 것을 확립시켜 나간다. 이 다섯이 무엇인가?

믿음(삳다), 계(실라), 배움, 관용, 지혜이다. 비구들이여, 그것들을 증장시켜, 그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립하고, 더 나은 것을 확립시켜 나간다…"

〈앗타살리니〉(2, 2권, 3장, 321)에 남성과 여성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외모, 직업,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여성의 특징 등은 여성기능이라는 물질에 조건 지어져 있다.

〈앗타살리니〉에 이런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그 기능 때문에 생성된다. 씨앗이 있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어 큰 가지와 작은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 하늘을 가리며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성다움, 여성의 특징으로 불리는 여성(통제)기능이 있으면, 여성이 된다…."

남성기능에 관해서도 같이 말할 수 있다. 여성기능과 남성기능은 '통제기능들'이다. 통제기능, 즉 인드리야는 그 자신의 영역에서 '리더'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남성기능과 여성기능은 온 몸에 퍼져있어 남성과 여성의 외관과 특징으로 드러나게 된다.

〈앗타살리니〉(같은 절, 322)에 여성기능과 남성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 두 통제기능 중 여성기능은 여성의 상태를 알리는 특성을 가지며, '이 사람은 여성이다'라고 보이는 기능을 하며, 용모와 특징, 하는 일과 태도에서 여성의 원인이 드러난다.

남성기능은 남성의 상태를 알리는 특성을 가지며, '이 사람은 남성이다'라고 보이는 기능을 하며, 용모와 특징, 하는 일과 태도에서 남성의 원인이 드러난다."

이 두 기능들은 〈청정도론〉(14, 58)에는 몸의 감성처럼 온 몸에 퍼져있고 안식(眼識)으로는 알 수 없고 의식(意識)으로만 알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앗타살리니〉(321)에는 그들 각각의 기능에 의해 조건 지어진 특징 등은 안식과 의식 양자 모두로서 알 수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색깔만을 감지하는 안식으로 "이것이 여자다." 또는 "이것이 남자다."라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여성 또는 남성의 특징을 인식하는 마음이 마음의 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인식은 안식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주석서에 안식과 의식 양자 모두에 의해 이것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눈의 문과 마음의 문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다른 마음의 인식과정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화장과 옷으로 여자다움을 강조하기를 좋아하고 남자들 또한 외관과 행동으로 그들의 남자다움을 강조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여성이나 남성의 특징과 처신방법에 집착한다. 그것은 남성기능 또는 여성기능이라는 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 이것이 남성 또는 여성 각각의 외관과 태도를 조건 짓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성을 자아로 여기지만 그것은 무아이며 단지 조건 지어진 성품일 뿐이다.

생명기능물성(지위띤드리야루빠)은 이 또한 일생의 첫 순간부터 일생동안 생성되는 섬세한 물질이다.

물질생명기능(루빠지위띤드리야)외에도 마음생명기능(나마지위띤드리야)도 있다. 마음생명기능은 모든 마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음부수(쩨따시카)들 중 하나다. 이 마음부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들을 지지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생명기능인 물질생명기능은 물질의 한 그룹에 수반되는 물질들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은 전적으로 업에 의해 만들어지며 살아있는 생명에게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몸에 있는 물질들은 온도 즉 열 성품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식물의 그것들과는 다르다. 생명기능인 물질은 업에 의해 생성된 몸의 각



살아있는 몸의 물질 생명기능으로 유지
우리는 이 특성을 '자아'라 여기지만
그것은 업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일뿐
몸의 무상함을 잘 이해한 사람은
몸·느낌·지각·행온에 집착하지 않아

그룹의 물질들에 포함되어 있다.

생명기능은 '통제기능인드리야'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는 다른 물질들에 대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청정도론〉(14, 59)에 생명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생명기능은 함께 일어나는 물질 종류들을 지탱시키는 성질을 갖는다. 그 기능은 그들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현재 나타나는 것을 확립시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의 가까운 원인은 지탱시키려는 주된 성품들이다."

생명기능은 한 그룹에서 함께 일어나는 다른 물질들을 유지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사라진다. 〈청정도론〉(같은 절에)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생명기능은 사라지는 순간에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등불이 심지와 기름이 없어지면 스스로 사라지듯이 함께 사라진다…."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들 몸에 집착한다. 살아있는 몸의 물질들은 죽은 물질이나 식물에는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생명기능에 의해 지지되어진다. 우리는 이 특성을 '자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업에 의해 생성되는 한 물질일 뿐이다.

심장토대(하다야왓투)는 업에 의해 생성되는 또 다른 물질이다. 정신과 물질현상이 있는 존재계에서 정신현상은 발생하는 물질 장소인 토대를 가진다. 안식은 눈의 감성물질, 즉 안근을 토대로 가진다. 이와 같이 다른 오식(五識)들도 그들의 적합한 발생 토대를 가진다. 이러한 오식토대와 달리 또 다른 토대인 심장토대가 있다. 이것은 오식 이외의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가 된다.

생의 첫 순간에 재생연결의식(빠띠싼디-찟따)은 업에 의해 생성된다. 이 마음이 마음과 물질이 있는 존재계에서 일어났다면 반드시 육체적 토대를 가져야만 한다. 이 토대가 업에 의해 생성되는 심장토대다. 업은 생의 첫 순간과 일생동안 이 심장토대를 생성한다.

심장토대인 물질은 '담마상가니' 같은 곳에는 분류해 놓지 않았지만, 논장 7권 '빳타나(발취론)'에 이 물질을 언급하고 있다. '의존조건'(2부, Analytical Exposition of Conditions)의 절에서 오근에 의존하여 오문인식이 일어나고 '이 물질'에 의존해 의계(마노다뚜,意界)와 의식계(마노윈냐나다뚜,意識界)가 일어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 물질'은 심장토대의 물질이며 의계(마노다뚜)와 의식계(마노윈냐나다뚜)는 오문인식 이외의 모든 마음들이 포함된다. 안식 등은 적합한 감각토대를 물질적 토대로 가지며, 모든 다른 마음들은 심장토대를 물질적 토대로 삼는다.

〈청정도론〉(14, 60)에 심장토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심장토대는 의계 마음(마노)과 의식계 마음(마노윈냐나)의 물질적으로 토대가 되는 특성이 있다. 기능은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들이 일어남으로 드러난다…"

〈청정도론〉(8장, 111, 112)에 심장토대는 심장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심장토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추측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문인식 외에 나머지 모든 마음의 토대가 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심장토대를 그렇게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나 만약 심장토대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지, 행불행을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마음과 물질이 있는 존재계에서는 모든 마음들은 육체적 토대를 가져야 하며, 몸 바깥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예를 들면 화날 때 성냄에 뿌리를 둔 마음들이 심장토대에서 일어난다.

만약 아비담마를 공부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관습적 언어로 '뇌'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마음들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뇌'라는 개념에 매달려 그것을 자아라고 집착할지 모른다. 논장을 공부하면 몸과 마음의 현상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잘못된 이해들을 깨끗이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몸의 현상과 마음의 현상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정신적 현상들은 육체적 현상들에 의존되며 육체적 현상들은 정신적 현상들을 조건요인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의 조건요인들은 무상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영원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상윳다 니까야〉(3권, 존재의 다발, 사대의 품, 제1 50경, 2장, 18, 원인의 경)에 의하면 붓다는 사왓티에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설했다.

"비구들이여, 몸이란 무상한 것이다. 그 몸의 발생의 원인과 조건도 역시 무상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무상한 것으로 구성되어진 몸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정신적 현상(네 가지 무더기칸다)에 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몸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 지각에, 행온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의식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그것을 갈망하지 않게 되고, 갈망하지 않음으로 그는 자유롭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깨닫게 된다. '재생은 단절되었다. 바른 삶은 실현되었고, 나의 할 일은 끝났고, 이러한 조건들로 이루어진 삶은 이제 더 이상 없으리라.'"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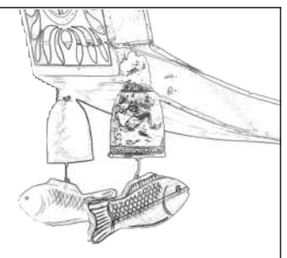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가는 자유를 만나리라.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마음 챙기며 청정한 행위를 하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
절제하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명성은 더욱 커지리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정확한 방편술 (비법)을 출판하였습니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공양주 구함

대구 팔공산에 있는
조계종사찰로 직장인,
청소년에게 자신감 , 집중력
명상을 하는 현대적인 사찰
45세~60세 신심있는분
4대보험과
해외성지순례 기회제공
010-8221-4900

60대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177-1583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자성 천도 사십구재 제사 전문도량 바라, 회심곡

02)483-1566

1종 면허 소지한 처사님 구함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051)334-30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10-3764-3661
033)482-338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애기있어도 됨
(진주 근교)
017-587-1011

제주도 영실 존자암

청정도량 적멸보궁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상주인원
두사람, 보시금 전화상담
스 님 010-2308-6685
주지스님 010-3696-8500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렵고 가난한 절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불사를 헌신적으로 도와드립니다

010-4882-3838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할 능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보시금은 없습니다 이외 비용문제 상담 출가 남녀 행자도 찾습니다

(강원지역)
010-9421-0730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 배우실 분은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바닷가 전경이 아름다운 절에 여(女)행자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016-562-6677

포교원 매매, 창건전문 공양주 상담

-서울 강서 화곡동 최고 요지
-2층 20평,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건물주가 생활하면서
적극 협조할 것임
010-5381-1419 상신부동산

4.8 염불해 드립니다

무유스님
010-8396-433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①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참관가능)
* 일시 : 매달 2일간, 토, 일 진행 합니다.
* 부모,자녀,부부관계와 조상, 무의식 치유
② 원네스 깨어남 힐링명상(무료체험하기)
* 세계적인 치유명상, 강력한 삶의 변화
*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적천수 명리 강의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감정을 못하는 분
(용신 잡는법, 통변, 실전위주, 책임지도)
◦ 사복결 1:1 강의
- 모든 (시험, 국가고시) (결혼, 재혼, 이혼) 되는가? 안되는가?
- 모든 (사업, 매매)가 잘 되는가? 그만둬야 하는가?
- 돈 (받는가, 떼이는가, 구해지는가?)
(한눈에 신당을 내리고 단기간에 도인이 되는 사복결 강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1 아울렛' 옆 2층
"적천수 명리 연구원" 031)465-3738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부처님 오신날 청암법사 친필달마도 특별가 보급

4.8행사에 선물이나 불사용으로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해
1장당 5,000원에 보내드리오니
연락주십시오
010-2953-8770
051)202-8770
* 10장이상 사찰명, 스님법명 넣어드립니다
www.달마.kr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명상과 힐링상담자 모집

명상, 불교심리치료, 서양심리치료, 명상치료법을
무료로 지도하오니 많은 동참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259-20 고산골 해룡사 지도법사 화성 스님
☎ 053)471-7769. 010-2866-4860

영 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풍수계 최초 밝혀낸 명당의 실체와 신통발복력!

◒ 태극혈맥풍수

반드시 발복흥성 유지되는 혈맥음양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덕숭산승 지천공
010-4600-7399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7 절로암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 수 내 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 체 전 기 파 동 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나라에 비추는 것이 마치 천 개의 해가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아 서 향수로 땅을 씻고 전단향 가루를 뿌린 것 같구나."

- 아육왕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생수공장, 황토공장)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 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8m 접
- 건물 : 42평, 남향(별장 및 전원주택)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양도금액 : 평당 20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4동 (법당 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구로사찰 양도
- 3층 법당 90㎡, 요사채 90㎡
- 공양간 90㎡, 토지950㎡
- 뒷편은 산,아파트.주택밀집지역
- 40년운영하였으며 텃밭있음
- 양도금액 : 9억원조정불가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법당 40평, 총평수 80평, 방2개, 창고2개
- 종무실 시설좋고 시장 옆 최고의 지역으로 전망좋은 지역임, 전화 주세요
- 가액 : 시설비 3,000만원 월 165만원

010-6722-2211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신도시
- 부지 : 5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양도가 : 20억 8천
- 위치 : 경남 진주
- 부지 : 1300평
- 법당 : 20평,목조기와
- 요사 : 60평, 2채
- 양도가 : 6억 8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양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소재지 근처
- 면적: 400평
- 법당: 목조 10평
- 요사채: 통유리 적벽돌 반기와 30평
- 가액 : 1억 9천만원

017-310-6482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 남쪽 산자락
- 1층 본요사채 45평, 황토벽돌로 조성 2층 법당 25평
- 주차장 완비 총 171평 외 토지 80평과 별요사채 1,2층 30평, 저온창고 2.5평
- 가액 : 4억 5천 직접거래

010-3743-994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9천5백

011-645-1361

사 찰 전 세

- 위치 : 경북 점촌시 동로면 생달리
- 목조법당 25평 요사, 큰크리트 50평
- 심야 보일러 산세 수려함
- 텃밭 다소
- 가액 : 전세 6,000만원

011-9731-141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및 화왕산, 군립공원대로변, 교통요지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30평, 종교부지 600여평
- 요사채(60평), 화장실, 석탑, 주차장, 창고(산신각, 칠성각)
- 산밑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CCTV설치, 집기일체
- 가액 : 3억5천만원(답사후 조정, 평당70만원시세)

010-8664-8259
(답사하실분만 전화주세요)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소재지 근처
- 면적: 400평
- 법당: 목조 10평
- 요사채: 통유리 적벽돌 반기와 30평
- 가액 : 1억 9천만원

017-310-6482

문경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154-4
- 문경 IC에서 10분, 문경온천에서 5분거리
- 면적 225평
- 소나무숲 전원주택 부지로 현재 10여동이 입주한 상태
- 가액 : 4천5백만원(평당 20만원)

010-8555-4480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대지 110평, 건물80평, 인법당 10평,
- 포교원 요양 수행 힐링처
- 별장식 별궁으로 용도 가능한곳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 독채 : 방1,거실1,주방1 - 월세15만원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10-8872-13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 포교하기 좋은곳
- 주차가능, 신도분들 오시기 편안함
- 시설 깨끗한 약 10년가량된 사찰
- 대지 708㎡ • 건평 250㎡
- 법당, 공양간, 종무소
- 가액 : 5억5천만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5346-4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수익성 건물 안내

- 부산 동래도시 철도역세권
- 대지 106평, 건물350평
- 주거밀집지역
- 월수익 900만원 받고
- 가액:5억6천만원에입주할수있습니다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8676-227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화원읍에 위치 (지하철 도보 10분 이내)
- 대지 112평, 건물 67평 (고풍스런한옥, 도심지역)
- 시설일체 양도 가능(살림도 가능)
- 가액:4억 6천만원(융자 2억포함)

053)523-7777
010-8732-335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7대 주차가능
- 가액 : 전세 1천만원
- 월세 120만원, 시설비 6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93-3689

포교원안내

- 위치 : 1층 경남 김해시
- 법당 : 오존불, 48평
- 시설 : 쑥뜸찜질방 1개
- 주차 :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376-7242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 위치: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산48
- 임야 8,250평 • 가액 : 7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시 남구 소재
- 부지: 60평(대지)
- 법당: 35평(임법당, 방 2)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포교도량으로 주지스님의 말사발령으로인해 저렴하게 나온 도심포교사찰입니다
- 2층 증축(30평)이 가능하며 현지가는 평당 400만원입니다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 위치 : 경북 연천시소재
- 부지 : 1,5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80평
- 기타 : 연못, 석탑, 석등
- 특징 : 영천IC에서 5분거리이며 산새와 조경이 어우러진 멋진도량입니다
- 가액: 6억 5천만원

대구)010-5848-0455 / 서울)010-5728-0455
동진사찰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사찰안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 융자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천년부처님의 터

- 위치 : 충남 안산시 영인면 소재
- 대지(전) 600평
- 고려시대 석불, 석탑 각1기
- 꼭 불사하실 능력 있으신분만 전화
- 가액 2억 2천

010-7127-3325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 대지 : 약180평, 건물 2채
- 기도도량 부처님전, 방 2개
- 수양하실스님이나 비구니보살 적합함
- 부처님전까지 승용차 진입
- 가액 : 7천 5백만원

010-2372-7681
010-9800-7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40평, 대지총면적 45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725-5907

사찰(급)안내

- 위치 : 진주 IC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사찰
- 평수 종교용지 600평, 법당20평과 영험스런 약사굴법당 있음
- 요사채 및 건물 5동, 70년된 사찰
- 가액 : 4억 8천만원

010-4021-8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 석탑, 요사채3동, 방10개,(고찰) 토지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 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창원 명당 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주상복합3층 단독 약40평 재래시장 입구
- 유동인구 최다 (현성업중, 확장이전)
- 가액 : 전세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118-117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200만원

010-8505-0101

포교원안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지하철 남산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정남향 주차장 최고급시설, 냉난방, 바닥전체 필름난방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조절가능)
- 시설비 : 600만원(최의시설 깨끗함)
- 법당 50평

010-9317-919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감천동 아파트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300만원(조절불가)

010-5173-3355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고성 통영의 명산 백방산 등산로 입구
- 신설 동고성IC, 신설통영공단대로 나들목에서 700m
- 계곡의 물소리, 고목노송들의 바람스치는 합창소리가 들리고,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큰절터!!
- 1,500-3,000, 5,000평 평당23만원

010-9393-894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총대지 : 156평
- 법당, 요사채 3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540-6549
010-7169-139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충남 아산 유구 중간에 있음
- 평수 : 약 대지200평 정도
- 신축건물 30평 심야전기
- 자연석, 조경, 약사불, 석탑
- 산세수려, 자연경관 최고
- 가액 : 전세금 6천만원 승속무관함

010-3630-32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토굴농막(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44번지
- 평수 734평, 남향
- 용도: 농막이나 토굴 용, 현황도로 전기, 샘물, 있음
- 전망좋고, 솔향기 그윽한곳
- 해발 700고지
- 가액 1,500만원

010-5454-9198

도심사찰,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타리)육거리 근처
- 넓은 면적, 5층 94평(7층, 지하주차장 지분 별도15평 있음)
- 방3, 공양간(약10평), 실내화장실, 실외남녀 별도 화장실
- 경전철 역 가까워 도보 이용(대중교통편리함) 대단지 아파트 인근으로 불교신자 많음 근처 교회는 많으나 절이 없음
- 임대(시설금 없음)및 양도(현 시세에 비교 매우저렴)
- 도심 사찰하기에 내부 구조가 매우 편리함

010-6570-1000
055)247-70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수산
- 약 90년된 고찰, 도사바위, 약물 폭포수 있음
- 대웅전, 미타전, 칠성각, 산신각, 요사채
- 뒷산 시부지 10만평 사용가능
- 스님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6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33)762-6347
010-6399-4285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중심도시
- 대지 60평, 건물 2동, 요사채35평, 법당1동
- 삼존185대불계금, 대형후불탱화, 1자 원불108불
- 방 4개, 욕실 2개, 2층동 18나한 네팔에서 모시고옴
- 방송스튜디오 녹음실, 차고
- 가액 : 3억 5천만원, 보시고결정, 절충
- 불교포교원 90평, 전세5,000만원 최고집기시설

010-9546-2255
010-5236-7310

절터 및 납골터 안내

1.납골터
- 위치 : 연천군 연천읍 상리 산47번지
- 가액 : 평당6만원(3,937평)

2.절터
- 위치: 구인사 뒷산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13-1번지)
- 임야 18,356㎡ 14-1번지 53,411㎡
- 가액 : 평당 2만원 (두필지 총 23,000평)

010-3893-1749

토굴 가능한 전원주택지

- 위치 :경남 산청
- 현황 전원주택단지로 임야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리산 가는 길목에 성철스님 생가 근처로 토굴지어 쓰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변시세는 평당 40-50만원 정도입니다만 급양도인 관계로 저렴하게 양도 원합니다.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면적 : 240평
- 가액 : 평당 35만원 8,400만원(대출 4,000포함)

010-6790-1080
010-9373-9718

포교원(급) 임대

- 위치 : 경기 부천시 부천역에서 7분거리 최고의 요지
- 5층건물 중 5층 100평(옥상도 사용가능)
- 주지실, 상담실, 종무소, 공양간, 큰방3개
- 법당 단청되어 있음
- 소임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초파일 법회도 가능함)

010-6216-4133
032)655-413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2억(융자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화해(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틱낫한 스님 (프랑스 플럼빌리지 설립자)

〈3〉 행동의 씨앗

대상을 뿌리까지 깊이 보는게 '명상'

습관 에너지에 휘둘리지 말자

명상의 목적은 대상을 깊이 그 뿌리까지 보는 데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 씨앗을 알아볼 수 있다. 그 씨앗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왔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와 함께 그 행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행동하고 있다.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당신과 함께 행동하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살아가는 동안 심은 씨앗도 있지만, 당신이 지금 이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 심겨진 씨앗들도 있다. 때로 우리는 아무런 의도 없이 움직이지만 그것 역시 행동이다. '습관 에너지'가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든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한다. 때로 우리는 말한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보다 더 강해서 끌려다녔어요."

그것이 씨앗이고, 습관 에너지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많은 세대에게서 물려받았다.

우리는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 깨어 있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물려받은 그 습관 에너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우리와 유사한 부문에서 취약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 습관이 조상의 뿌리에서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단점에 미소를 보내고, 습관 에너지를 보고 웃을 수 있다. 알아차림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고통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 매혹적이지 않은가!

아마도 과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 즉 우리가 물려받은 습관 에너지에 몰려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저 "내탓이야!" 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단점이 가득한 독립한 개체로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 내면의 변화가 가능해지고 이런 습관 에너지를 놓을 수 있게 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깨어 있음을 수행하면 우리는 이미 일어난 습관적 행동을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 있다. 깨어 있음이 가져다주는 최초의 알아차림이다. 그런 다음 마음이 내킨다면, 깨어 있음과 집중의 에너지를 빌려 행동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 그 행동은 어제 일어난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때론 300년 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우리의 행동을 알아차린 후에는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습관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다면 단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그 씨앗을 심어 놓은 조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조상과 후손을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온 세상, 온 우주를 위해 수행을 한다.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도 웃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이미 달라졌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조상 역시 시비 거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누군가가 걸어오는 싸움에도 침착한 마음과 미소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더 나은 기회가 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좀 더 이해하는 것, 그것은 오직 깨어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인생의 선택지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소유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하기'라는 수행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다 갖추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이 수행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소유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진 행복의 조건들을 모두 확인해보자.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도 남을 만큼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달리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욕망하는 대상을 손에 넣었다고 행복해지는가? 분명히 또 다른 대상을 향해 달릴 것이다.

평화와 안정감을 충분히 느낄 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가족이 어깨를 스치는 작은 집이면 족하다. 더 큰 집은 필요없다. 우리 집엔 창문이 많고 전망도 아름다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미래로 달려가서 두세 가지 조건을 더 움켜쥘 필요가 없다.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스타일의 삶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지혜를 현대인의 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돈과 권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과연 이들이 행복한가?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여전히 깊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돈과 권력은 해답이 아니다.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버리다

저장식은 과거의 영화가 항상 연속 상영되고 있는 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과 트라우마, 고통은 모두 저장식에 저장돼 있다. 원칙상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이미지는 여전히 거기 남아 있고, 우리는 꿈속이나 깨어 있는 동안 가끔씩 과거로 되돌아가 당시의 고통을 다시 체험하곤 한다.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버리는 경향이 있다. 원리상 과거는 더 이상 여기 없으며 기억은 단지 과거를 담은 영화나 그림일 뿐임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그 영화들은 연속 상영되고 있고, 그 화면을 볼 때마다 고통이 엄습해 온다.



행동 들여다 보면 그 씨앗 볼 수 있어
"깨어 있어야 물려 받은 '습관에너지'를
알아차리고 고통의 악순환 끝낸다"
수행은 작은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가령 우리가 지금 영화관에 있으며 영화 한 편이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다고 하자.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며 우리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라고 믿기도 한다. 심지어 울기까지 한다. 그 고통과 그 눈물은 진짜다. 하지만 영화 속 그 사건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지 않다. 단지 영화일 뿐이다. 만약 내가 당신과 함께 스크린 가까이로 다가가서 화면을 손으로 만져 본다고 치자. 우리는 거기에 아무도 없고 단지 명멸하는 불빛만 있음을 알게 된다. 스크린 위에 나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그들에게 차 한잔 하자고 초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생생한 고통과 우울한 감정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

내 안의 아이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거기 있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그 아이를 구출해 내야 한다. 자, 자리에 편안히 앉으시라. 그리고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두고는 내 안의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라. "사랑하는 어린 동생아, 이제 우리가 다 자랐다는 것을 너도 알아야 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자신을 지킬 수도 있단다."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두지 말자

만약 당신이 일곱 살 때 학대를 경험했다면, 그 상처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한 일곱 살 아이의 이미지를 늘 내면에 지니고 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고통을 떠올리는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 옛 이미지와 만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체험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 고통의 기억으로 데려간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면 보고 듣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 학대 이미지와 연결돼 우리를 우울한 과거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렇게 과거의 이미지와 늘 만나다 보면 두려움, 화, 절망감이 일어날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잘못된 곳에 마음 두기(inappropriate attention)'라 부른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버리고 오랜 고통의 장소인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의력이 그 옛 장소로, 옛 이미지로 되돌아가는 순간을 응시하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일어나는 슬픔, 두려움, 고통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다.

종소리는 우리에게 생각과 이야기를 멈추고 이 순간의 들숨과 날숨으로 되돌아가라고 알려 준다. 고통의 이미지를 떠나 지금 이 순간의 깊은 호흡을 즐기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며 웃으라고 한다. 고통이 일어나면 우리는 수행을 시작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한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고통이 내 안에 있음을 아네." 그런 심리 현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다. 이것에 능숙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깨어 있음과 집중을 통해 우리는 그 고통의 이미지로 되돌아가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다. "내게 이것이 있는 것은 내가 저것을 접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의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깨어 있음의 에너지로 우리는 오래된 고통이 그저 이미지임을, 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경이가 다 갖추어진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고통에서 배운다

우리가 고통을 이해할 때 자비와 사랑도 따라온다. 행복은 이해와 사랑과 연민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해와 자비는 고통에서 태어난다.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비로워진다. 그러므로 고통은 유용한 존재다. 고통을 다룰 줄 모른다면 우리는 아마 고통의 바다에서 익사할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다룰 줄 안다면 고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고통에서 달아나려 한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때로는 도움이 되는 유용한 존재라고 마음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심지어 '고통의 장점'에 대해 말을 할 수도 있다. 고통 덕분에 이해심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 이해와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행복도 없다.

그러므로 고통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안아 주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고통에서 배워야 한다. 사실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고통을 받는 방법을 안다면 고통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는 순간 당신은 이전만큼 고통스럽지 않다. 그리고 고통에서 행복이라는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

다섯 가지 유념하기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의 씨앗이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깊은 어둠 속에 가둬 둔다. 우리가 두려움의 씨앗을 알아보고 두려움을 안아 주고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님은 '다섯 가지 유념하기'라는 수행을 주셨다.

1.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2. 나는 질병을 피할 수 없다.
3.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4. 나는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5. 오직 내 행동만이 진정한 내 것이다. 나는 내 행동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내 행동은 내가 서 있는 바탕이다.

매일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서 호흡을 따라가며 각 항목을 명상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유념하기'를 수행하여 두려움의 씨앗이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을 거실로 불러 올려 인정하고 안아 주어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은 다시 내려갈 때 크기가 조금 작아져 있을 것이다.

두려움의 씨앗을 이렇게 초대할 때 우리는 화를 더 잘 보살필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은 화에 생명력을 준다. 두려움이 있을 때 평화는 없고 대신 화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잘 모르는 것 역시 화의 일차적 원인이 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틱낫한 스님이 쓴 〈화해〉(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법당 25평
• 요사채 40평
• 급한사정상 알림
• 가액 : 3억 7천만원
010-4747-3164

사찰 터 안내
• 위치 : 합천군 대양면 함지리
• 평수: 두 필지..
각각 – 답 232평, 답 234평
• 평당 : 12만원
• 강원도 육송목재 나무재적
• 14,000사이 • 가격:3,000만원
010-6266-3907

토굴(암자)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 ㄷ자건물 주택3칸 39평
(텃밭 400평)
• 주변경관수려, 도심인접,
교통편리, 도시포교용이
• 보증금 1천만원에 월40만원
010-3811-9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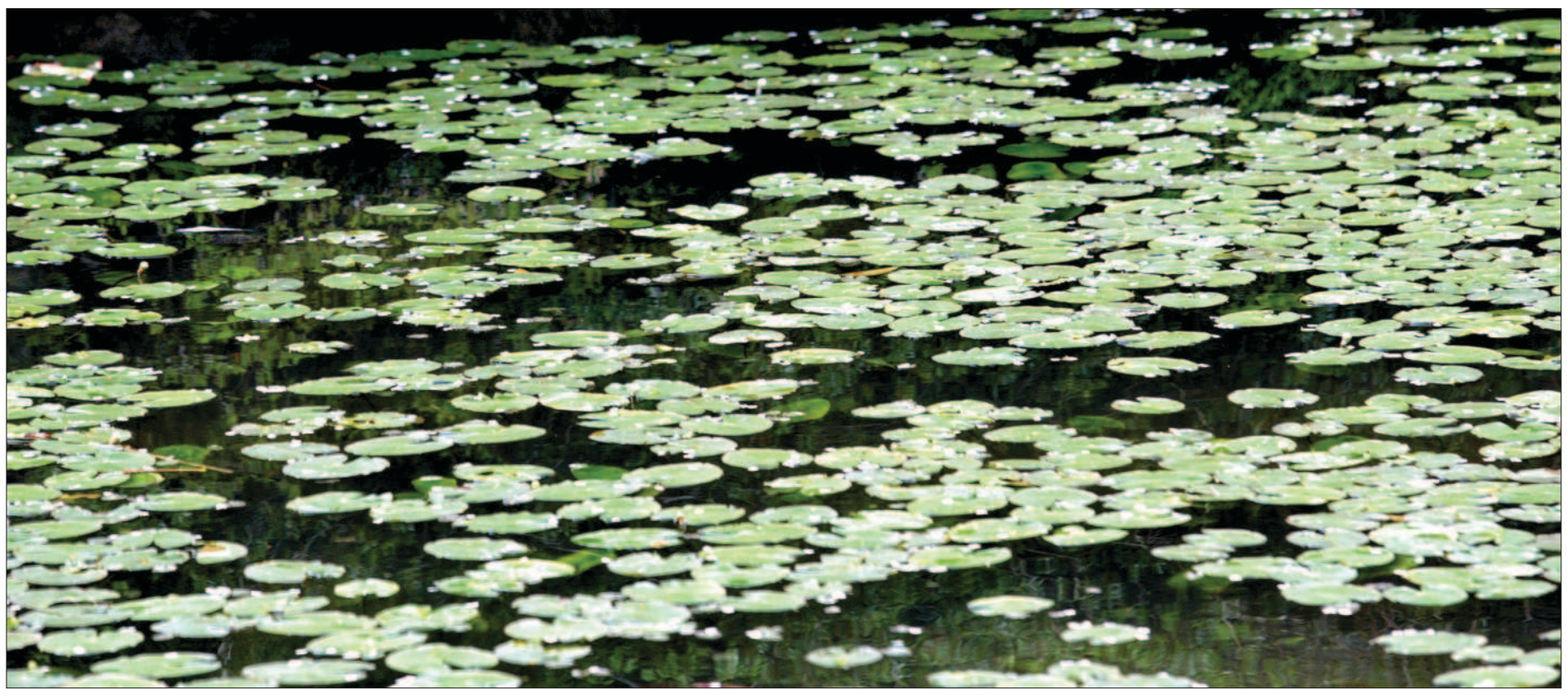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갤러리 색즉시공



어제와 오늘 사이

연못 위로 꽃잎이 쌓인다
이 봄날이 생사가 갈리는 날일 줄이야
꽃잎 하나에 천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일
꽃잎 하나 지는 데 천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생사의 기별은 기막혀라
그래도 연못 위에 쌓인 꽃잎만 같으면 좋으련만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어제' 와 '오늘' 사이가 괴로운 것은 하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곁에 없다는 것

사진 · 글=박재완 기자

"승만보살이 되십시다"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승만경〉 수지 독송하며
여성불자으로서 정체성 정립 기회

나의 모델 승만부인

〈승만경〉은 여러 경전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독송한 경전일 것이다. 읽을 때마다 좋았고, 읽을수록 내가 불자로서 행해야할 서원과 실천이 마음속에 새겨졌다.〈승만경〉을 공부하면서 여성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었기에 〈승만경〉은 특히 여성 불자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경전이다. 해인사 종진 스님에게 처음 강의를 들었고, 이후 동국대 고영섭 교수님, 동국대 역경위원인 이인혜 선생에게도 강의를 들었다.

처음〈승만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선생님(고등학교 은사님)이 내 삶의 롤 모델이었는데. 불교에 입문해서는 승만보살이 모델이다. 이제 승만보살의 삶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승만경〉을 공부하고 나서 승만보살이 정법을 수지, 유포하고 대중들과 함께 하며 상담사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승만보살과 같은 삶으로 회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요즘도 매일 일과수행으로 승만보살 10대원을 읽고 있다.

〈승만경〉을 일컬어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曼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이라 한다. 승만부인이 일승의 대방편을 널리 사자후하는 경이라는 뜻이다. 승만부인은 유마거사와 더불어 재가 불교, 즉 출가를 하지 않은 일반불자라도 세속의 삶을 영위하면서 성불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재가 여성불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경전이다.

승만은 산스크리트어 슈리말라(SRI MALA)를 음역한 말로, '아름다운 꽃다발' 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승만보살의 아버지는 중인도 코살라국 사위성 파사익왕인데, 성장해서 아요디아국의 우칭왕과 혼인하여 일국의 왕비가 된다.

어느날 파사익왕과 말리왕비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넘쳐 총명한 딸인 승만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겠다고 결심하고 불교를 믿을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받은 승만은 결국 부처님을 찬탄하기에 이른다. 그때 부처님께서 출현하여 그녀가 장차 보광여래(普光如來)가 될 것임을 수기한다.

"여래의 참된 공덕을 찬탄한 인연으로 부인은 한량없는 미래에 천상과 인간세계에 자유자재한 몸이 될 것이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래를 볼 것이며, 아승지겁 이후에는 붓다가 될 것이니, 그때의 이름은 보광여래라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승만은 열 가지 서원을 세우게 된다.

승만보살 10대원

1.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받은 계율에 대하여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모든 어른들에 대하여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3.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4.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가진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5.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 내 몸과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6.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제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으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중생을 성숙시키는 데 쓰겠습니다.

7.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섭법(四攝法)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애착하지 않고, 싫증내지 않고, 걸림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8.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고독한 사람,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괴로움에 처한 중생들을 보면 잠시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편안케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로움을 주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9.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동물을 잡거나 기르는 등의 옳지 못한 행위와 계를 어기는 것을 보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을 얻었을 때 이런 중생을 보면 그때마다 막을 일은 막고 받아들일 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게 되면,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지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은 줄어들어, 여래께서 굴리신 법륜이 점점 더 잘 굴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정법을 항상 몸에 지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가르침을 잊으면 대승을 잊는 것이며, 대승을 잊으면 바라밀을 잊는 것이며 바라밀을 잊으면 대승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승에 굳건한 마음이 없는 보살은 정법을 받아들일 욕구도 없고 취향에 따라 들어갈 능력도 없어서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는 일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한없는 잘못을 보며, 또한 미래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보살마하살들의 큰 복덕을 보기 때문에 이 10대원을 세웁니다.

다문(多聞)이면 지혜가 증가하여 성불하리란 서원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경전을 읽는 것도 많이 듣는 다문에 속하는데,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지속해서 읽다보면 저절로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경전을 사경(寫經)하고 법문을 듣고 또 듣는 것이다.

도덕적인 삶을 살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화를 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나에게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베풀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겠다는 내용이 깊이 다가왔다. 승만보살이 세운 10가지 큰 서원은 오늘날 승만의 후예들을 늘려가며 여성불자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다. 나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서원을 외우며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승만보살은 이와 같은 열 가지 서원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부처님께서는 증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 뒤 다시 3대 서원을 세우는데, 정법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정법을 알리기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 재산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고 감명 깊었다.

첫 번째, 진실한 서원으로 끝없이 가없는 중생들을 편안하고 안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선근의 인연으로 태어날 때마다 정법의 지혜를 얻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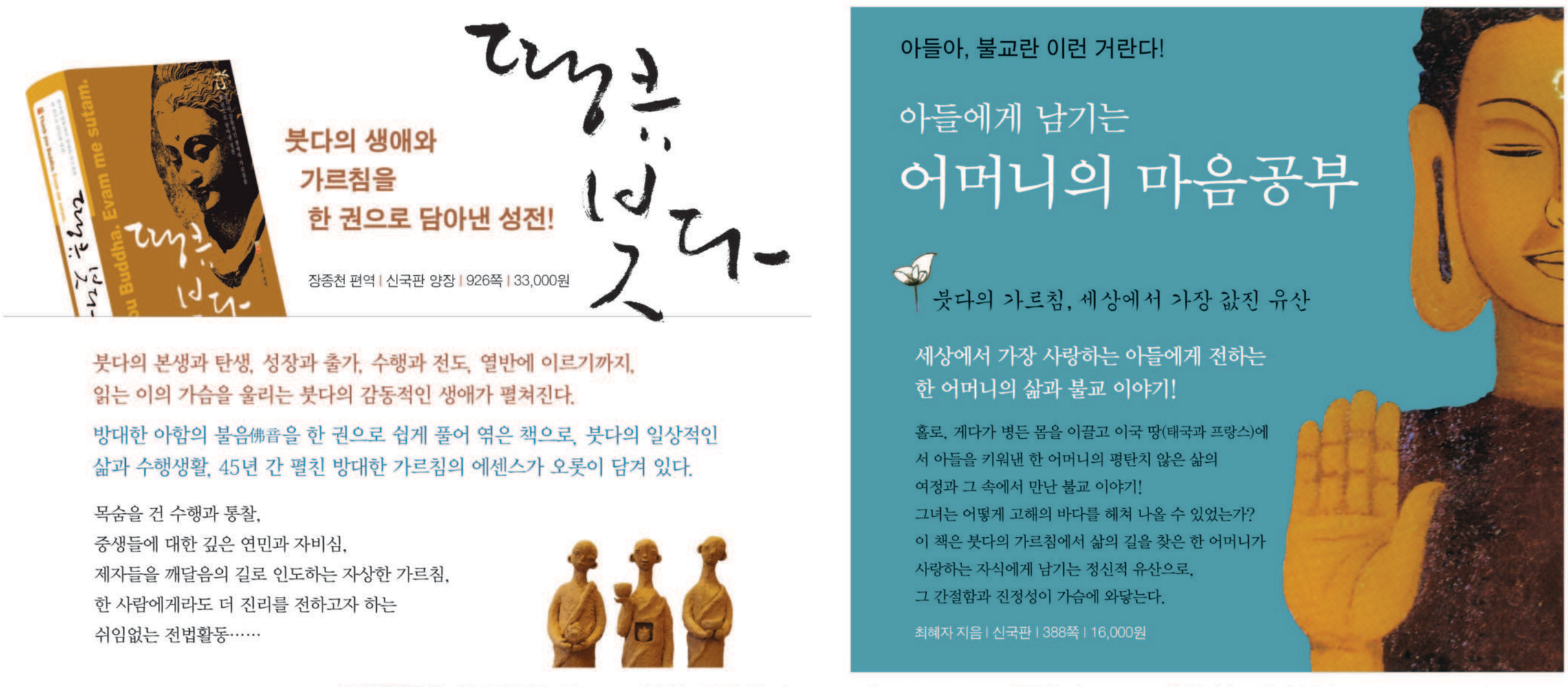
두 번째, 정법의 지혜를 얻은 뒤에는 게으르거나 싫어함이 없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세 번째, 바른 진리를 거둬들이고 몸과 목숨, 재산 등을 바쳐 정법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승만보살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으며, 그 붓다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중생에게는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그 일체중생실유불성의 이치를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사자의 포효처럼 울려대며 오늘날까지 많은 여성불자들의 상징이 되었다.

여여회에서는〈승만경〉을 배운 다음, 승만보살의 10대 발원문을 외우고, 나무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을 부르면서 108배를 한다 . 그리고 만나면 서로에게 "승만보살이 되십시오." 하고 축원했다. 그때 집에서 함께 공부한 도반들은 이제 이순(耳順)을 전후한 나이가 되었는데, 나는 그들이 승만보살의 삶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여여원 원장〉





대행 스님

사월초파일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탄생하도록 하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몸뚱이 속에 업식이 뭉쳐 있습니다. 업식을 받아 가지고 나왔으니까 고덩어리죠. 우리 중생은 고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없이 악업 선업의 업을 지어서 인연이 돼 가지곤 잔뜩 짊어지고, 카세트 하나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거기 죄 담겼거든요.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모가 짝짓는 데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받느냐? 자기가 지고 나온 업식을 그냥 짊어지고 그리로 들어가되, 아버지한테서는 뼈를 빌리고 어머니한테서는 살을 빌려서 집을 짓고 나옵니다. 집만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업식은, 그 고덩어리는 자기가 그대로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임신이 되면 수십억 마리가 다 없어지고 자기 영혼 자체 하나가 부모가 주는 모습, 집을 받는 거죠. 집을 받으면 거기에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그 업식들이 다 골고루 펴져서 그 몸뚱이에 그냥 전부 같이 하고 말아 버리죠. 그러면 그게 점점점점 자라 가면서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받는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도 혼자 왔다가 혼자 가고, 자식도 혼자 왔다가 혼자 가죠. 모두가 대신 가줄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같이 갈 양으로 애를 써도 돈이 안 가 줍니다. "네가 나를 좋아서 따라다녔지 내가 너를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못 가겠어." 이러고 안 가요. 몸뚱이도 안 갑니다. 몸뚱이도 따라가 주질 않아요. 그렇게 이 몸뚱이를 아끼고 쓰다듬고 온통 만지고, 추우면 더운 거 입혀 주고 더우면 시원한 거 입히고, 질척질척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고 이랬는데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죽을 때 가서는 안 따라가요.

또 자식들도 보십시오. "얘야, 내가 가는데 외롭고 그러니 너희들 좀 따라가 주지 않으련?" 그러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나는 같이 가 드릴 수 없어요. 그저 산소까지나 화장터까지만 가 드릴게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가 줄 수 없고요.

그러나 수억겁 전부터 같이 진화하면서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해서 자기를 형성시켜 온 그 절친한 벗,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절친한 벗은 누구냐? 자기 주인공입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공은 죽으나 사나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죽으나 사나 끌고 다니고 죽으나 사나 끌려다닙니다.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은 어딜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딜 믿으실 겁니까? 나 자신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게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것과 더불어 이렇게 끌려다니고 끌고 다니면서 둘이 아니게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애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떠한 짐승이나 벌레를 죽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전에 그런 거를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 피를 먹기 위해서 돼지 목을 땄습니다. 그거를 가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흑흑 흐느껴 가면서 울었습니다. 흑흑 흐느껴 가며 우는 건 정말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는 것도 '흑흑흑 흑흑흑' 이러고 울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됐다가도 마음을 잘못 쓰고 업장이 두꺼우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트이지 않아요. 죽어서 그 영령이 돌아다니다가 짝짓는 아무 데나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고요.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걸렸다 하면 그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겁니다. 돼지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뼈를 빌려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것 참 애석합니다.

그리고 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도 그렇습니다. 나는 일부러 도살장에도 찾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본 것도 많고요. 보면 벌써 미리 알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봤지만 개가 아주 영리하게 그 집 식구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도 그렇게 식구를 살리는 걸 봤거든요. 쥐도 그렇게 하는 걸 봤고요.

말하고 돼지하고 소를 기르는 어떤 촌가가 있었습니다. 말은 마차를 끌고서 항상 짐을 지러 다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마차에 싣던 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쓰고 그랬는데,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앙심을 품고 대립이 돼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만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끼리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 가지곤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너머 동네의 쪼그만 애들이 이쪽 동네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애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르던 말, 소, 돼지가 그 밤에 '꿀꿀 꿀꿀' '음메 음메' 소리치면서 그냥 막 뛰어나와 가지고서 집 불붙은 데를 맴돌면서 막 뛰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죄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동네를 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 못된 거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가 있죠. 나는 그런 것을 역력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미란 놈이 떼를 지어 가면서 전부 통신을 해요. 수많은 개미들이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개미란 놈이 전부 통신을 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씩 떨어뜨리고 가요. 자기 간 데로 그걸 따라서 오라는 거지요. 가지고 가는 것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저 요만큼씩 한 것을 중간 중간에 흐트리고 가는데 개미들이 그거를 쫓아가더라는 얘깁니다. 그저 새까맣고 쪼그마한 건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나이가 어릴 때 봐서…. 지금 같으면 자세히 좀 볼 텐데 말입니다. 지금도 보려고 하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 길을 인도하는 그런 표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요거를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서 끝을 내겠습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절친하게 지냈는데 한 친구는 절로 들어가서 승려 노릇을 하게 됐고 한 사람은 그 동네 마을에서 그냥 부모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승려 노릇 하던 사람이 홀어머니를 남기고 갔는데 큰스님 밑에서 3, 4년 공부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안됐어서 도로 와 가지고서는 친구하고 같이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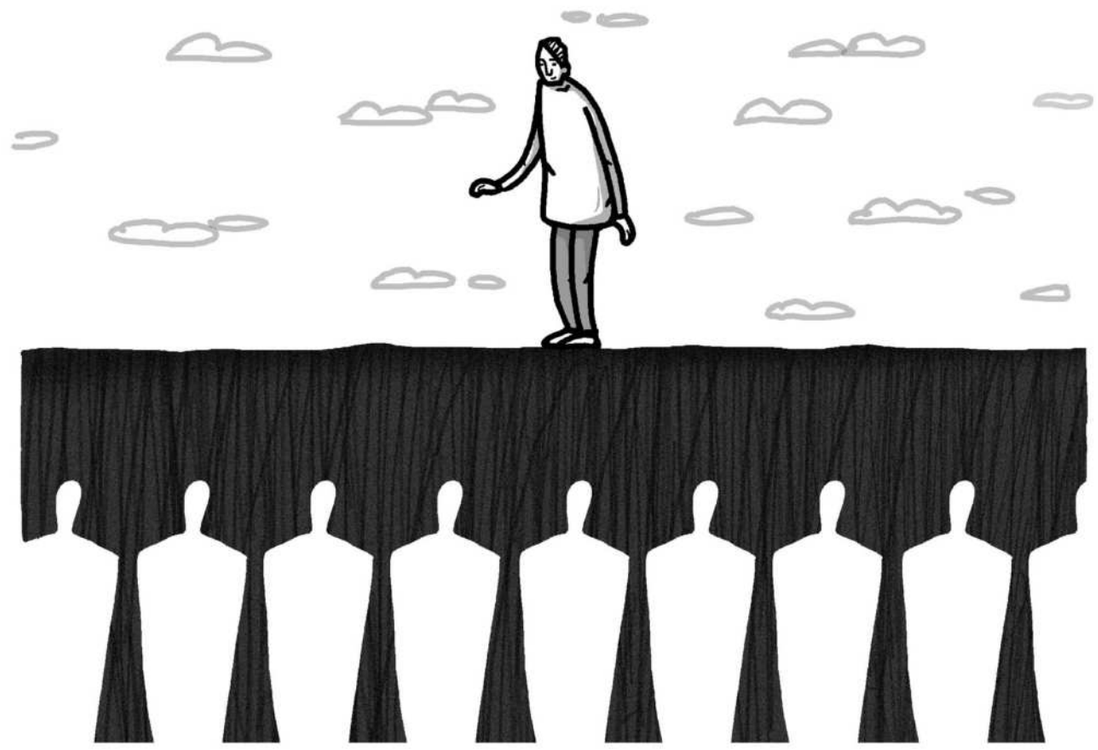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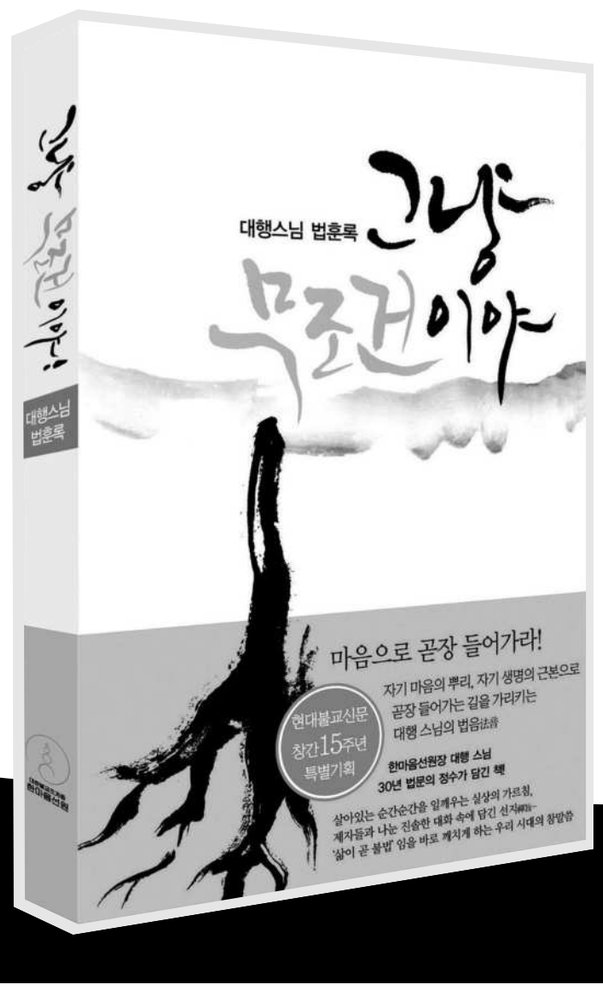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것에 속지 마시고 항상 주인공에 맡겨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어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설법을 하시는데 아, 그렇게 마음에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있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이고, 이 세상을 다 봐도 저분만한 분이 없다. 저분은 참, 세계의 왕이로다. 저런 설법을 내가 언제 또 들을 수 있으며 저런 법을 언제나 배워서 내가 저렇게 하나? 그래도 고생하신 어머니, 나를 이렇게 길러 주신 어머니,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도 그 은공을 잊을 수 없으니 우리 어머니만 공양을 잘 받들어 모시고 난 뒤에는 내 몸에다가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모시고 그 법을 배우러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이, 저거 사기꾼 같아. 저렇게 돈 벌어서 제 봉창에 다 넣겠지.' 요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눈이나 깜짝하시겠습니까? 이 도리를 완전히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 몸뚱이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어찌 여러분이 다 아시리까마는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예전에는 칠일장을 보았는데 도매로다가 한 보따리 사 가지고 소매로 팔 양으로 들고 가다가, 스님을 했던 사람이 주막에 가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기다리는데도 다른 친구가 영 오질 않아요. 술을 잔뜩 먹고는 길에 쓰러진 겁니다. 옛날에는 수레가 많이 다녔죠. 백 대 이백 대의 수레가 새벽에 지나가는데 그냥 거기에 치여서 죽어 버린 겁니다. 그 친구를 기다리다 안 와서 새벽녘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치여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짊어져다가 잘 묻어 놓고 집에 돌아가려니 글쎄, 자기 어머니나 그 집 어머니나 똑같이 한 동네에서 사는데 어떡합니까? 그 어머니도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복통을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 가지고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굶고 잘못될까 봐 "난 몰래 갑니다. 한 3년 있다 오겠습니다." 이러고선 그냥 밑천을 다 주고 물건 산 것만 짊어지고서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서 멀리멀리 목적지도 없이 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었습니다. 인군이 죽었는데, 금옷을 걸치고 금테를 두른 말이 새 인군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슬슬슬슬 걸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영 등에 태우질 않아요. 그러다가 보따리를 지고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더니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헤치고선 꽁무니를 돌리면서 타라고 몸짓을 하니까, 따라오던 신하가 그 사람을 번쩍 들어서 그 말에다 올려 앉혔습니다. 보따리를 지운 채 말입니다. 그래서 끌려 들어갔죠. 그래, 인군이 됐단 말입니다.

인군이 되니까 '아하! 이 나라에도 부처님 법을 펴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해 주셨으니 이젠 부처님을 모셔다가 불법을 펴야지.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인군으로서 관리하라고 이름만 주셨지 불법을 펴라고 이랬구나!' 하면서 껄껄껄 말을 타고 웃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라는 건 다 빼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참 출중합니까, 네? 인군이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마는 그거를 다 버린 채 말 위에서 '야! 참, 부처님께서 날더러 불법을 펴라고 이렇게

수억겁 전부터
같이 진화하면서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해서
자기를 형성시켜 온
그 절친한 벗,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절친한 벗은 누구냐?
자기 주인공입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죽으나 사나 함께
있습니다.

인군의 이름을 주셨구나! 이 이름으로 불법을 펴야지. 어쩔 수가 없지.' 하고서 인군이 됐습니다. 그러고선 그 훗날부터 부처님을 모셔다가 사람들이 설법을 듣게 하고, 자기 어머니와 죽은 친구의 어머니까지 모셔다가 잘 모셨답니다.

육의 부모도 부모요 법의 부모도 부모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법의 부모도, 부처님 마음 주인공도, 영원한 나의 근본 주인공도 바로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생을 다 같이 하시고 아픔도 같이 하시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식과 마음을 같이 하거든요. 적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고 애쓰는 그 마음,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작은 그릇의 물 한 그릇도 한 그릇이요 큰 그릇의 물 한 그릇도 한 그릇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작은 그릇의 물 한 그릇은 평소에 살면서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큰 바다의 물 한 그릇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 그러니 어찌 마음이 둘이겠는가? 그러니 육의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고 법의 부모만 내 주인공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인공 안에 내 법의 부모와 내 육의 부모도 둘이 아니요 여기 스님네들도 둘이 아니요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둘이 아니요. 이러니 어느 하나도 둘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속지 마시고 속에서 분노가 솟더라도 '아이! 내 주인공만이 화가 안 나게 할 수 있지.' 하고 거기 맡겨 놓고, 안되는 일이 있으면 '아!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데가 없어.' 그러고 또 거기 맡겨 놓으시고, 잘되는 거는 '내 주인공밖에는 감사할 데가 없어.' 그렇게 또 맡겨 놓으시고…. 이렇게 사신다면 첫째, 벌써 그 마음이 편안하니 좌선이고, 일을 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이러면서도 편안하면 참선이라, 또. 일상생활이 그냥 참선이라. 누워도 서도 앉아도 그냥 참선이야. 그러니 일상생활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네? 그러니 어느 법당에 들어간들 부처님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저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마운 줄을 아셔야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여러분한테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람은 화해서 공기로 되어 여러분이 숨쉬고 살게 해서 생명력을 이어 주는 게 되니 고마운 겁니다. 태양도 여러분을 길러 주니 고맙고, 모든 만물을 다 길러 주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도 죽죠? 불이 없어도 죽죠? 바람이 없어도, 공기가 없어도 죽지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수화풍이 뭉쳐서 모든 생명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인공!' 한마디만 부르면 될 것을 왜 여러 군데로 쫓아다니면서 그냥 방황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쓰러져야 합니까?

어느 스님이 이렇게 공부를 시켰답니다. 제자를 열두 명을 두었는데 제자를 영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제가끔들 학(學)으로만 하고 이론으로만 밝지 자기가 목마르면 물 한 컵을 제대로 떠먹질 못해요. 이 소리를 뜻으로 들으십시오. 정말 물을 못 떠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배고프면 자기가 얼른 밥을 먹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부처님께서 내 배를 부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를 해서 참, 달마 대사나 역대 조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예전에는 스님네들이 전부 아침에는 죽을 쑤어서 일찍 잡숴습니다. 모두 공양들을 하고 일어나려는 참이었는데 주지이신 은사 스님이 "주인공!" 하고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기가 또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선 "아침 공양 했는가?"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또 자기가 대답하기를 "식기 닦았

그러니 여러분은
어딜 믿으실 겁니까.
나 자신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과 더불어
이렇게 끌려다니고
끌고 다니면서
둘이 아니게
같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살짝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구! 은사 스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저 우리 은사 스님이 참 이상하기도 하다.'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에 고만 의정이 났습니다. '은사 스님이 왜 저럴까, 아침마다.' 미쳤다고 생각을 해도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저럴까?' 하고 항상 어디 가서 앉았어도 그냥 그 생각만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사 스님이 "주인공!" 부르고 또 스스로 "예!" 하고 대답하는 소리에 고만 퍼뜩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냥 깨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깨달아서 그 은사 스님하고 다 한자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이 무슨 죄며 못난 게 무슨 죄며 말 못하는 게 무슨 죄며 부처님 법을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죄가 있다면 모르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업을 짓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짓는 것이니,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항상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주인공밖에는 해결을 못한다. 주인공밖에는 내 아픔을 씻어 줄 수 없다. 주인공밖에는 내 아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없다. 주인공만이 내 남편을 잘 이끌어 주고 나를 사랑받게 할 수 있다.' 고 믿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세요. 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한테든지 남녀를 막론해 놓고, 자식이 그러든지 남편이 그러든지 아내가 그러든지 안으로는 맡겨 놓고 언제든지 좋게 따뜻하게 대해 주면 그냥그냥 모두 착한 아들이 되고, 또 화목하게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도 "아유! 저놈의 집은 자꾸 싸움만 하니까 난 들어가기 싫어." 하고 거기 안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부처님께서 사월초파일날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탄생하시도록 하십시오. 이 법당을 짓는데도 서쪽을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무슨 뜻이 있느냐? 동쪽은 해가 뜨는 데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둘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왜? 다른 혹성에 가 보면 서쪽이 동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좁게 생각을 하지 말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두는 거는, 법당을 넓고 높게 두어야 우리에게 좋겠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동쪽을 향해서 해야 되겠으니까 그럽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환경에 맞게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고, 저기 가면 저기에 맞게 따라야 하고 그런 것이니 유의 법, 무의 법, 이 도리를 혼란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오순도순 이야기도 해 드리고 착한 행동으로 효도한다면 자식들도 차차차차 착해져서 효도할 줄도 알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또 모든 부처님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 꼭 모든 깨달음을 자기로부터 깨달을 수 있게 하십시오.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9년 4월 2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댁의 아이도 "재미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나요?

우리 아이 인성교육 6

회색 아이

온몸이 회색으로 태어난 아이 마르틴.
마음도 시멘트처럼 굳어 버린 마르틴이 웃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시큰둥한 아이의 마음을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물들여줄
유쾌하지만 뜨끔한 이야기



루이스 파레 글 | 구스티 그림
남진희 옮김 | 11,000원

우리 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화가 났어요
2011 행복한아침독서 추천 도서 • 2011 경기도사서협의회 추천 도서

천천히 걷다보면
2012 행복한아침독서 추천 도서

마법의 가면
2013 행복한아침독서 추천 도서 • 2013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추천 도서





잠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읽는
불교동화 18
다르마차리 나가라자 지음 · 이은숙 옮김
128쪽 | 14,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여덟 가지 바른 길!

잠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지혜가 담긴 불교 동화를 읽어 보세요.
아이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 ...≫〃,–

세월호 침몰 사건 SNS 애도

4월 16일 사상 최악의 해상 인재가 발생했다. 475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다. 179명이 최종으로 구조됐고, 18일 현재 200여 명은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빠가 구명조끼를 입혀 살린 5살 여아부터 학생들을 대피시키며 승조원의 의무를 다한 뒤 목숨을 잃은 22살 아가씨까지.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온 국민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페이스북에 올린 스님들의 심정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우리 다함께 기도합시다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 및 선원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함께 기도합시다. 실종자들은 무사하기를. 고인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말 한다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금강 스님
미황사 주지

땅끝마을 모시개떡 한말 싸들고 진도실내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모시개떡 건네받는 손길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250봉지의 떡이 금새 동이 났습니다. 내일을 위해 한가마를 떡집에 주문했습니다. 부도전 거북이들처럼 모두들 무사히 뭍으로 걸어나오기를 바라며.

아픔이 밀려와 잠을 못 이뤄



마가 스님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참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꽉 막힙니다. 그들의 아픔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파하는 가족들, 고통받고 있을 실종자들, 이미 운명을 달리한 분들, 이번 사고를 애타게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울음 잃은 아이 눈빛이 아프다



가섭 스님
조계종 교육국장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엄마와 오빠 그리고 아빠를 찾는 다섯살 아이. 엄마와 오빠가 입혀준 구명조끼를 입고 힘겹게 지나던 낯선 오빠에게 안긴채 정든 품을 떠났다. 병실에서 두리번두리번 엄마를 찾는 아이는 울지 않는다. 울음을 잃어버린 아이의 눈빛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진도 앞바다서 너희와 머문다



혜민 스님
미국 뉴햄프셔대 교수

제발 도와 주소서. 캄캄한 세월호 공간에 갇혀 생사를 사투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 주소서. 또한 지금 구조하시는 분들을 도와 주소서. 얘들아 미안하다. 바보같은 어른이라는 것이 미안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미안하다. 온 종일 마음은 진도 앞바다에서 너희와 함께 머문다. 정말로 정말로 미안해.

통곡소리 가슴 매어 옵니다



원영스님
조계종 교수 아사리

한밤중에 절 마루에 말없이 앉아보니 고요하고 쓸쓸하여 본래 자연 그 자리라. 서쪽 바람 건듯 불어 숲 흔들려 바라보니 찬기러기 울음소리 긴 하늘을 갈라놓네. 애끓는 통곡소리가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 •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단상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인재는 확실해 보인다. 국민들은 제일 먼저 도망을 친 선장에 분노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수학여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가지 단상에 대해 듣어봤다. 〈편집자 주〉

대중교통 운전자들 책임감 갖길



법상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유사 이래 배와 얽힌 사건 사고는 많았다. 그 중에는 배와 운명을 함께 한 선장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는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해상사고는 타이타닉호 침몰사고일 것이다. 1912년 4월 영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호는 나흘째 되던 날 빙산에 충돌했다. 당시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생존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타실을 지키다가 장렬히 최후를 맞았다. 그는 당황하는 선원들에게 "제군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고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스미스 선장은 영웅이 됐고, 리치필드 비콘 공원에는 그의 동상이 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은 탈출 당시 해적들 교란하는 등 맞섰고 결국 다리, 왼팔에 총상을 입었다. 그 역시 '영웅' 이 됐다.

2012년 이탈리아에서는 유람선 콩고르디아호가 좌초됐다. 당시 선장은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인데 그는 사고 직후 구명정을 타고 육지로 도망쳐 택시를 타고 내뺐다. 사고로 승객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탈리아인을 그를 'CAZZO(썩을 놈)' 라 불렀다.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장은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승조원에게만 탈출 명령을 내린 채 제일 먼저 도망쳤다. 그리고 병원 온돌에서 돈을 말렸다. 사고처리도 마찬가지였다. 기본적인 집계도 이뤄지 않아 혼선을 줬고, 오보가 난무했다.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은 분노했다.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하는 듯 보였다.

굳이 배가 아니라도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목숨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강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사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겁쟁이 선장이 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대규모 행사 지양하고 소규모 전환 필요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수행여행을 갔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망 혹은 실종되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비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뜻밖의 사고 소식에 혼란과 슬픔에 빠진 것이다.

이번 사고는 1차적으로 탑승부터 사고 위기사항 대처까지 불성실했던 선박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2차적으로 325명이 대형 인원으로 수학여행을 감행한 학교 측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는 수학여행의 규모를 한 학년 전체로 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나누어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단체로 갔을 때 일어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관리와 지도 편달을 맡은 학교에서는 소규모로 나뉘는 것보다는 한번에 이동하는 것이 행사 진행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수련이나 템플스테이 등 단체 행사가 많은 불교계 역시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속에 위치한 사찰 시설물들은 경사진 곳들도 많고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일이 많다 보니 안전적인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사고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모두 깨지지만 나누어 담으면 깨질 확률이 줄어든다.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학교에서든 불교단체에서든 대형 행사는 지양하고 소규모로 행사를 전환해주길 바란다. 이처럼 행사를 기획하는 단체는 내실 있게 행사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社說

안전 불감증 참사, 불교도 방심말자

최악의 해상사고가 벌어졌다. 승객 47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한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가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배는 1시간여 만에 완전 침몰했고, 179명만이 구조됐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사망자 28명, 실종자는 2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에 전국은 애도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분위기다. 불교계 역시 전국 주요 종단 소속 사찰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생환을 바라는 기도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 산하 긴급재난구호 봉사대는 4월 17일 소속 활동가들을 진도 팽목항으로 급파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과 각종 봉축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대형 인재에 불교계는 계획했던 행사들과 축제들을 축소,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은 지역별 봉축 행사에 화려한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했다.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다. 선장은 입사 7개월차 20대 항해사에게 배를 맡겼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나와 돈을 말렸다. 배 안에 적재된 화물은 제대로 묶지 않아 급선회시 배가 쏠린 것도 침몰의 원인이다.

최근 불교의 템플스테이 사찰과 시설들이 청소년 수련회와 문화체험 장소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만큼 시설물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을 대상으로 4,5월 2차례 진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교육은 의미가 있다.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전을 고려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다. 사고는 방심에서 온다. 항상 경계할 일이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안내책부터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영어 안내서가 발간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무명스님과의 대화〉– '한국불교 가이드북' 을 발간했다. 이 책은 무명 스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한국불교를 쉽게 설명한 안내서로 템플스테이 현장을 비롯한 영어포교 현장 곳곳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책은 외국인 승려 무진 스님(스위스 법계사 주지)과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이 공동집필했으며, 순수 영어로만 구성된 국내 최초의 불교영어회화 책이다. 이 책은 절하는 방법, 합장의 의미 등 사찰문화는 물론 왜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지, 왜 채식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은 영어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불자이나 각 승가대학 영어 교재, 청소년 포교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발간까지 가장 힘쓴 사람은 자우 스님이다. 스님은 발품을 팔아 3천만 원이었던 제작비를 1천만 원으로 아꼈고, 공동 저자 무진 스님과 협의해 둘다 원고료를 받지 않았다. 그야말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영어 포교 원력이 한데 집대성된 불사였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찰을 방문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안내책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승의 저서를 번역해 각종 대학과 도서관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내서를 제대로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바로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를 닦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우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회화책 한 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부디 이 책의 발간으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안내서와 저서들이 쏟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法果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오신 기쁜날, 신도들과 함께 그 참된 뜻을 기리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 법과란?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 키



포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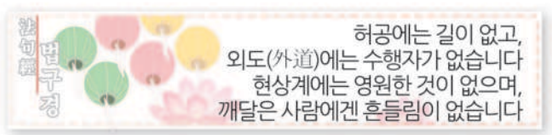
슬립지

■ 앞면예시



원하시는 문구(30자 이내)를 넣을 수 있습니다.

■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법과의 효능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 법과와 함께 하세요!

부처님 오신날, **법과**와 함께하세요!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진한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법과,
법과와 함께 하세요!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